

2013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4. 1.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내실 있는 평가 추진
 - 국정과제와 성과관리시행계획 간 상호 연계 강화를 통한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문화융성’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 마련

- 자체평가 역량 및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 주요정책과제 현장점검 실시, 상시적인 정책정보 제공, 주기적인 평가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자체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자의 평가 역량 강화 지속 추진
 -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부터 충분한 내·외부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체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엄격한 평가기준 적용 및 결과 공개로 신뢰성 확보

- 평가결과의 체계적인 환류로 정책개선, 인사 및 성과급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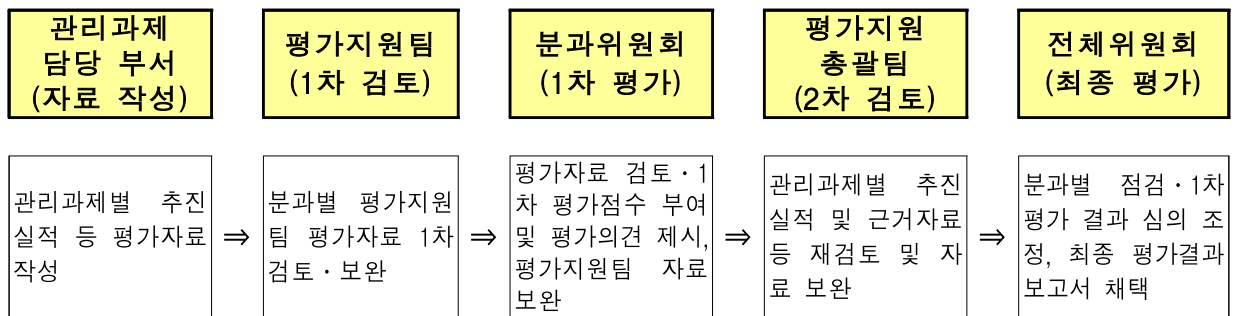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 30명 중 민간전문가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문화콘텐츠 산업·문화예술·관광산업·체육·홍보 5개 분과위원회(분과위원 22명) 구성
 - * 재정사업(3명) 및 행정관리역량(4명)은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
 - 성과관리계획 심의·의결 및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2회)
 - 분과별 현장 점검 실시(5회)를 통한 주요정책 현장 이해도 제고 및 자체평가 역량 강화

○ 분과위원회별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 각 분과별로 평가 지원을 위해 평가지원팀을 구성하여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자료 작성·검토, 최종 평가자료 작성·검토 및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의 지원, 분과위원회 운영 등 역할 부여
- 정부업무평가 총괄담당관을 중심으로 평가지원총괄팀을 구성하여 평가자료 검토 및 보완 추진 등 평가 지원 총괄

□ 평가방법

〈자체평가 절차〉



○ 평가 자료 작성 및 1차 검토

- 담당부서에서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보고서 및 최종평가보고서 등 평가 기본 자료 작성 및 평가지원팀의 1차 자료 검토
- 과제별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 제시

○ 분과별 평가자료 검토 및 1차 평가

- 분과위원회와 평가지원팀에서 분과위원의 평가자료 검토 및 평가지원팀의 자료 수정·보완
- 필요시 현장 점검 등 병행 실시, 분과위원의 과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수시로 정책자료 등 제공

○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 분과별 평가자료에 대해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및 자료 수정·보완

○ 전체위원회 최종 평가

- 분과위원회의 1차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점수 확정
- * 관리과제별 평점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 관대화 여부 검토 및 과제별 중요도·난이도 등을 반영
- 과제별로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 효과,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대안 제시 등 질적 측면 평가 강화
- 평가결과는 상대등급화 추진으로 관대화 경향을 최소화하고 결과 공개시 등급기준으로 활용

○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전체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평가개요, 총평, 과제별 평가결과 및 개인별 결과 반영계획 등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13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58개 관리과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정책형성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 관련 통계현황·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
정책집행	추진일정의 충실성	○ 평가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성	○ 관련기관 등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이의 반영 여부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자체평가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 '12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환류 하였는지 여부
정책성과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평가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 기여 정도

2. 평가결과

(1) 총 평

- '13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58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4개(6.9%), 우수 8개(13.8%), 다소 우수 8개(13.8%), 보통 18개(31.0%), 다소 미흡 8개(13.8%), 미흡 8개(13.8%), 부진 4개(6.9%) 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등 12개 과제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장애인체육 육성' 등인 12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총 58개 관리과제의 118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 96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22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국립문화시설 관람객 수 미달 및 각 분야별 만족도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임계치에 다다른 만족도 지표의 경우 대체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2) 주요성과

-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 세종학당 전략적 확대 및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표준화·전문화 및 문화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
 - 세종학당 확대 운영('12년 43개국 90개소→'13년 52개국 120개소)
 - 한국어 교원 해외 파견 확대('12년 11개국 20명→'13년 21개국 24명)
- 국민 문화복지 증진
 - 문화나눔 및 문화다양성 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혜자 확대
 - 문화나눔 사업 : (11년) 480억, 301만명 → (12년) 574억, 335만명 → (13년) 581억, 369만명(목표)
 - 문화다양성 사업 : (12년)18.5억, 3만 7천명 참여 → (13년) 28억, 6만명 참여

□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 체계 마련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14.3.31 시행 예정)
- 총 5,500명의 예술인 대상 창작 및 교육 지원을 완료하고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등 추진
 - * 미술(42.6%), 문학(20.3%), 영화(10.1%) 등 전체 문화예술 분야 1,831명의 예술인이 1인당 300만원의 실업급여에 준하는 혜택을 줌
- 예술인 472명('13.12월말 기준)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보험료의 30%, 월 3,500원)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창작/실연/기술지원 등 3종) 개발·보급을 통한 예술분야 계약문화 정착기반 마련('13.5월~)

□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 학교 내 유휴공간을 문화동아리실, 갤러리, 도서관 등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 제고에 기여
-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소규모 간이역, 폐교, 폐창고 등의 유휴공간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7개소)

□ 문화예술교육 지원

- 소외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추진으로 소외 아동·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 *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수혜아동 1,572명)
- 학교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 전국 7,254개교에 국악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 4,485명 파견(3~12월)
- 농어촌 등 소외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확대 운영('10년 10개교 → '11 ~ '12년 26개교 → '13년 30개교)
-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 체험·감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600여 개 프로그램)

□ 핵심콘텐츠 집중 육성

- 장르별·분야별 핵심콘텐츠 육성 및 창조경제 실현과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유관부처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각 장르별·분야별 주요 성과 달성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MOU 체결(미래부-문체부, 6.4)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수립(미래부 합동) 및 발표(7.4/경제관계장관회의)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MOU 체결(미래부-문체부, 6.4)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수립(미래부 합동) 및 발표(7.4/경제관계장관회의)
 - 문체부 - 미래부 콘텐츠 업계 초청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 개최 (11.12/스마트콘텐츠 육성전략 발표)

□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 국내 유통 중인 저작권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ICN(통합 저작권관리관리정보) 구축 및 발급을 통한 신뢰성 있는 저작권 권리정보 제공
 - * 음악·어문·뉴스·방송대본·영화·방송·미술·캐릭터·공공 9개 분야의 저작권 관리 정보 수집·제공 : 11,392,352건(‘13년 12월말 기준/누계)
-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신속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저작권 이용계약 서비스 운영
 - * 음악(전송·복제), 어문(전송·복제·배포), 뉴스(전송) 거래 계약 건수 3,679건(‘13년 12월말 기준)
-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투명한 음원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운영
 - * 5개 음악 유통사 로그정보 수집 및 가온차트 제공(31,363백만건, ‘13년 12월말 기준/누계)

□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 방한 일본인관광객 ‘12.9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12.8 외교갈등, ‘12.11 엔화 약세), 중국<관광법>시행으로 인한 방한 관광상품 가격인상 등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위기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적절한 대책마련을 통해 외래관광객 1,200만 돌파 달성(12,172천명, 전년동기 대비 9.3% 증가)

- 한국인의 UNWTO 고위직(문화관광국장) 진출을 달성하고 Rio+20 정상회의 후속조치인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10개년 계획’ 방향 설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국제기구 내 한국의 주도적 위상 강화

□ 녹색관광 자원개발 활성화

- 녹색관광기본계획(‘10.4월)을 수립 이후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생태관광인증제 시행 등의 다양한 녹색관광 자원을 발굴·지원으로 녹색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주민이 주체적·자발적·협력적으로 관광사업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관광경영체 형성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 및 각국 공관과의 네트워크 구축하여 국제대회 대비 유관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추진력과 대응성을 확보
 - △2017 U-20 월드컵대회 유치, △세계반도핑기구 이사국 진출, △종목별 대회 우수성적 달성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

□ 건강 100세를 위한 스포츠 참여환경 조성

- 중장기적 생활체육 정책의 방향을 담은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발표(11.14)
- 각 사업별 평가단 운영을 통해 현장 대응성을 제고하였으며, 그 결과 생활체육참여율 제고 및 만족도 상승 등 효과 달성

□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 새 정부 국정기조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홍보 협업 체계 구축·운영으로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 마련 및 추진력 확보
 - (국정비전·과제 및 정책현안 홍보) 5대 핵심 국정과제 및 정책 현안 홍보 TF 운영,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6회)·홍보 컨설팅(64회)·언론보도분석 지원, 광고캠페인(8회)·주월간지·단행본 발간(10종)·정책포털·정부SNS·KTV 활용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확산 홍보

- (범정부차원의 정책홍보 협업체계 구축·운영) 대변인협의회 및 온라인 대변인협의회 활성화, 공공부문 매체협업 시스템 구축·운영, 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도입·운영, 7개부처 공동 4대약 근절 광고캠페인 등

(3) 개선·보완 사항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 성과지표 중 ‘전당 시범콘텐츠 만족도’의 목표치(68.5%)가 지난 2년간 실적치(‘11년 70%, ’12년 75.6%)를 감안할 때 낮게 설정됨
- 추진계획 중 일부 일정이 지연 추진됨
 -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시 그 간의 추세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추진계획 수립 후 엄격한 추진일정 관리가 필요

□ 해외문화교류 인프라 및 한국 문화 저변 확대

- 2012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이 반복됨

< 2012년 자체평가 지적사항 >

- 문화원 신설에 있어 현지국(이집트)에서의 정치·사회적 불안 등 돌발 상황 발생으로 성과목표 미달성

- ☞ 비록 외생변수(해외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동일 사유로 다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추진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이 요망됨

□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 추진계획 중 일부 일정이 지연 또는 변경 추진됨
 - ☞ 대부분의 추진계획이 해외에서 다른 나라와 관련된 행사가 주를 이루므로 보다 계획적인 추진일정 수립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국립국악중고 운영

- 성과목표의 적극적 설정 필요(입상실적 목표치 92건/달성 139건)
 - ☞ ’11~’13년간 성과지표 달성치를 분석하여 ’14년도 목표치 설정

□ 전통예술중고 지원

-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 교실의 축소 운영
 - 평소 수업 기간 중에 공연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전년에 비해 불가피하게 축소하여 운영
 - ☞ 지역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봉사단체와 연계한 활동으로 국악의 저변 확대 및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기여

□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 멘토링 종료 후 교육생 경력경로의 면밀한 관리 및 후속 지원 확대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필요
 - * 대학생 등 예비인력의 지속적인 배출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는 전문경력직 선호 등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창작인력은 부족

□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 인터넷신문 폭증으로 선정적 기사, 광고로 인한 국민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의 신문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13.6~9)하고 시도에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청('13.12)하였으나,
 - 인터넷신문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실태점검 정례화 및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 권역별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

- 지역 관광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05년 1,941→'13년 4,283억원) 체계적 평가시스템 및 데이터 축적 부재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움

□ 관광레저도시 육성

- 개발여건 미성숙 등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 및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근본적 민간 투자유치 방안 필요

□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건립지원 생활체육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없던 것을 개선하여 생활체육시설의 리모델링 등 개보수 지원으로 확대 필요

-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10년 이상 노후화된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의 지원도 포함

□ 장애인체육 육성

-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13-’17)’를 통한 정책기반을 마련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미흡, 2014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 필요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 시청률 제고를 위해 정책현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및 지속적인 채널 마케팅 추진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국민 문화복지 증진	우수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다소미흡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다소우수
지역 민족문화 활성화	보통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매우우수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활성화	보통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다소우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보통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보통
국립국어원 운영 활성화	보통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구축	다소미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미흡
해외문화교류 인프라 및 한국문화저변 확대	미흡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미흡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우수
예술의 산업화 및 창작·발표 공간 지원	다소우수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우수
국립중앙극장 운영	보통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보통
문화예술교육 지원	우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보통
국립국악중고 운영	미흡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전통예술고 지원	부진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다소미흡
국립국악원 운영	보통
콘텐츠산업 금융·투자 지원 활성화	보통
차세대 문화기술 연구 개발	보통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미흡
핵심콘텐츠 집중 육성	매우우수
문화콘텐츠 상생환경 조성	보통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 지원	다소미흡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다소우수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우수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부진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다소우수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다소미흡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보통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 관리	다소우수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	다소미흡
권역별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	미흡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매우우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보통
녹색관광 자원개발 활성화	우수
관광레저도시 육성	부진
건강 100세를 위한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우수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부진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보통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매우우수
태권도 세계화 및 태권도원 조성	보통
스포츠산업 육성	다소우수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 조성	다소미흡
장애인체육 진흥	보통
장애인체육 육성	미흡
부처 홍보 역량 강화	보통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우수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다소미흡
대국민 현장 소통 및 온라인 소통 확대	다소우수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미흡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국민 문화복지 증진	우수
---	------------	----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문화나눔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내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표현 기회 및 향유 기회 확대

□ 주요 성과

- 문화나눔 및 문화다양성 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혜자 확대
 - * 문화나눔 사업 : (11년) 480억, 301만명 → (12년) 574억, 335만명 → (13년) 581억, 369만명(목표)
 - * 문화다양성 사업 : (12년) 18.5억, 3만 7천명 참여 → (13년) 28억, 6만명 참여
- 문화나눔사업 추진으로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문화바우처 카드발급 659,130매, 119만여명 수혜
 - 자발적 관람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기획바우처사업 추진 ('모셔오는 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문화카드 플러스서비스' 등 5,552건 추진, 320,094명 관람)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교정시설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2,127회 공연, 53만명 관람)
 - 지방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민 문화예술 관람 기회 제공 (150개 기관, 261건 추진, 40만명 관람)
 - 사랑티켓으로 노인 및 청소년 등 문화소외계층 기회 확대 (2,621개 공연 42만명 관람)

- 우수문학도서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등 315종 선정, 소외 지역(계층) 시설 2,326개소 배포(총 462,250책 지원)
-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공동사업 45개관, 개별사업 66개관, 총 30만명 관람)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71개 사업, 28,796명 수혜)
- 지역별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 운영(27개 단체, 3만명 수혜)
-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 연수 운영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의 지속 확대 (교육연수 10회 운영, 교육 커리큘럼 2종 개발)
- 문화예술 기반 외국인-내국인 간 문화소통의 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 교류 기회 확대
 -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한 문화적 주체로서 이주민의 자존감 회복 도모 및 지역 내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12개 문화재단, 140여개 프로그램 운영)
 -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및 케이블 다문화방송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력 배양 및 내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증진(총 365개의 다언어 방송프로그램 운영)
 - 문화기반 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식 정보 공유 프로그램 운영(관련예산 총 13억)
- 문화다양성 정책도구 개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개발 및 기초 조사 연구 추진
- 수준별(다문화가족 자녀,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매체별(도서, 방송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보급(3종 6권) 및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통한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의 질 향상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박물관 기획전시 강화, 교육 프로그램 대중화로 국민 문화향수권 증진에 기여
- 전문인력 고용 확대를 통한 사립박물관의 운영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주요 성과

- 사립박물관 기획전시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1관당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가 5,856명으로 목표 대비 131% 달성
 - * 125개관에서 총 731,998명의 교육 수혜자 발생
 - 박물관 126개관에서 기획전시 280회 개최로 목표 대비 222% 달성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도(%)
사립박물관 1관당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4,450	5,856	131%
사립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건수(회)	126	280	222%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학예사 인건비 지원시 등급별 차등 지원 필요
- 교육사(에듀케이터) 채용시 자격 요건 강화 필요

□ 조치계획

- '14년 사업계획 수립시 학예사 등급별로 차등화 하여 인건비를 지급 하고 및 교사자격증 이외 문화예술교육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 검토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과 농산어촌 공공도서관에 우수도서 보급과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 지원으로 정보의 획득 및 이용이 취약한 농산어촌,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 계층에게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
- 다양한 독서장려 정책 및 체험활동 제공을 통해 국민 독서열 증대와 평생 독자층 창출을 통한 국민 행복지수 상승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주요 성과

- 17개 시·도 52개소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13년)
 - ※ '04년부터~'13년까지 521개소 조성
 - 작은도서관은 거리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공간, 마을 단위의 지역 공동체 문화형성의 장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구심적 역할 수행
 - 국고 및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추진, 지역간 균형 및 사업 추진의 안정화 도모
- 운영인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사서 지원
 - 공공도서관 48개관에 순회사서 1명씩을 배치, 관내 작은도서관 192개소 운영 지원
- 공공도서관 통합도서관서비스 시스템 구축(8개지역 206개관) 및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 대차서비스 시스템 시범 설치(2개 지역)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 대차서비스 시스템 시범 설치(2개 지역)

- 다문화 자료실 조성(9개관), 다문화 프로그램(89개관) 지원
- OA 저널(5종,누적 25종, 2,960편) 확대 및 리포지터리 (5개관,누적25개관) 구축
- ‘국민독서문화 진흥기반 마련’ 사업 추진
 -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혹은 지역 독서동아리 등 전국의 200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및 독서동아리 축제 개최(‘13년 11월)
 - 전국의 주요지역 대표도서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독서문화강좌 운영(독서아카데미 운영 13곳)
 - 취약계층 독서활동 집중지원(책책폭폭 책드림콘서트(4회),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17,424명 수혜),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운동(12만명) 전개
 - 병영 독서활성화 추진(40개 부대 선정, 독서코칭 파견 등)
- 지역의 역량 있는 문학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작품 창작환경이 열악한 문학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문학 발전 지원 및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 확대
 - 문학작가 파견 : 공공도서관·문학관 70개관에 70명의 지역작가를 파견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도서관·박물관의 양적 성장에 비해 대국민 서비스 기반 취약

□ 조치계획

- 대국민 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여건 개선 등으로 운영 활성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지역주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문화 발전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문화도시 선정 지원,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및 문화향유 확대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확보에 이바지 * '10년 1,979개소, '11년 2,072개소, '12년 2,182개소 평균 매년 5%증가
 - 일반국민 주도, 지역 문화공동체의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단위 문화의 달 행사를 통해 일상 문화, 지역문화의 가치 확산
- 국학진흥, 문화원형 발굴, 전통문화 융복합 등을 통한 전통문화 가치 재창조 및 민족문화 전승 기반 구축

□ 주요 성과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 근거 마련('13.12.31 본회의 통과)
-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경주, 전주, 공주·부여)을 통해 지역문화 브랜드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진흥
 - * 경주(신라탐방길 조성, 교촌한옥마을 조성, 한옥지구 보존정비 등 8개 사업), 전주(한국전통문화전당 기반구축,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국제 스로시티 기반구축 등 4개 사업), 공주·부여(공산성 활성화, 성왕로 정비 등)
-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지역 소재 대학 및 문화재단,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 등 지역현안에 대한 컨설팅

실시, 민-관-학의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제고

* '13년 6개 시도 13개 과제 수행

- 지역문화재단 자체 기획사업 지원 및 지역문화재단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의 핵심주체인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 * 군포문화재단(파출소가 돌아왔다), 익산문화재단(전국지역문화재단 지식 공유포럼), 춘천시문화재단(지역문화재단 운영매뉴얼 개발 등 역량강화 프로젝트) 등 3개 문화재단 기획사업 지원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 적극적인 사회 참여 등으로 자아 성취감 및 만족도 제고 등 문화욕구 해소에 기여
 -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수 : ('12년) 11,804명→('13년)12,068명
-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 문화향수 기반 마련
 -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건립,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등
 - * 공공도서관(47개관 38,765백만원), 공립박물관(12개관 10,826백만원), 공립미술관(8개관 14,800백만원), 문예회관(22개관 17,436백만원), 지방문화원(7개관 3,515백만원)
- **(문화의 달 행사)** 전문예술인 중심에서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이 주도하는 행사로 확대, 국민 모두가 일상 속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를 통해 소통·공감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 마련
- 민간소장 국학자료의 종합적·체계적 수집·관리를 통해 국학진흥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성 제고
 - 민간소장 국학자료(고문서, 고도서 등) 26,390점 수집(누적 39만점), 25,900건 DB 및 이야기소재 600건 구축
- 고유의 무릎교육을 재해석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통해 민족문화 전승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
 - 이야기할머니 917명 활동 지원, 720명 신규양성, 전국 2,690개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17만여 유아 수혜('12년 386명 활동, 1,128개소 파견)

- 부처간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 정책 제공 기반 마련
 - 국학연구 및 세계화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교육부, 외교부 및 소관·공공기관 등 16개처), 수요자 중심 정책을 발굴·시행
 - 문체부-교육부 공동으로 전통창작소재의 문화산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이야기 한국, 전통창작소재 컨퍼런스(12.6)'를 개최하면서 문화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정책방향 설정
- 문화원형 디지털DB의 이용환경 개선 및 유관기관 사이트 연계를 통해 전통문화콘텐츠의 문화산업 창작소재 활용도 제고
 - 민간포털과 연계, 문화원형 백과사전 서비스 제공('13.12월, 18만건)
- 전통문화의 대표 자산인 한복의 대중화 및 한지의 이용 활성화 촉진
 - 한복 교복 제작 지원(8개교), 한복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 패션쇼(11.7) 운영, 한복 페스티벌 및 다큐멘터리(MBC) 제작(10.5)
 - 한지품질표시제 확립(18개 업체), 한지상품개발디자인 경연대회(12.22), 한지소재 등록 연구 및 해외 프로모션 추진
- 한국적 생활문화모델의 개발 및 확산
 - 도서관, 주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한국적 공간 조성 시범사업 지원(3개소), 한국적 실내공간 우수사례 선정(7개)
- 전통문화와 현대산업간 융복합상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시와 시설구축 지원 등 업무협약(12.23)으로 전통문화창조센터 구축 및 교육, 컨설팅 등 사업 추진
-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으로 한류의 지속적 성장 도모
 - 2013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 참가, 한국관 조성 및 전통공예(가구) 전시, 문화행사 운영(4.9~4.14)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목표(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의 조정 필요
 - 성과목표 점수(90점)는 미달성 하였으나, 실적(88점)이 '매우 만족'인 점과 만족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후 성과 목표 설정 시 성과지표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 필요

□ 조치계획

- 문체부 고객만족도 표준조사표 적용, 목표치 조정('14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세종학당의 확대 운영,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해외 한국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 강화로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효율화 기반 마련
- 국립한글박물관의 건립공사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가치 확산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 마련
- '쉬운 공공언어 쓰기 운동'으로 국어 관련 조례 제정 확대(1→10개) 및 언어문화개선 관심 고조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운동으로 확대, 범국민연합 출범(12. 18.)

□ 주요 성과

- 세종학당 전략적 확대 및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표준화·전문화 및 문화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
 - 세종학당 확대 운영('12년 43개국 90개소→'13년 52개국 120개소)
 - 표준 교육과정 정착 및 표준교재인 <세종 한국어1~4>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어 교육내용의 체계화
 - 한국어 교원 해외 파견 확대('12년 11개국 20명→'13년 21개국 24명),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
 - 세종학당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확대, 우수학습자 초청 문화 연수(43개국 172명)를 통한 교육 방법의 다양성 및 한국문화 홍보 기여
- 부처간 정보 공유 및 토론회 개최, 한국어 보급기관 합동 현지실사, 세종학당 정책협의회 규정 마련(12월)을 통해 협업 체계 강화
- 한글박물관 건립 통한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기반 구축
 - 국립한글박물관 건립공사 50% 달성(목표 46%의 4% 초과 달성)
 - * 전체 공정률 95% 달성, 건축공사 준공 (8. 31.)

- 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훈령 제정(4월, 문화부 훈령 193호) 및 개관위원회 구성(5월) · 운영(전체회의 3회, 5/9/12월)을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
 - 한글박물관 콘텐츠 구축을 위한 한글 관련 유물·자료 수집을 통해 박물관의 핵심 기능인 전시,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 조성
 - * 유물 구입: 1,212점, 수증: 7,580점
 - 한글문화의 보존·확산 위한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시스템 구축
 - 전시 공사 정상 추진("13. 10월 현재 전시 공사 공정률 65%)
 - 상설전시, 교육체험실, 기획특별전 등 분야별 콘텐츠 구축 및 전시 구성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21회)
 - 민간 및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 콘텐츠 구축 및 국내외 한글문화 융성 추진(네이버 업무 협약-8월, 구글 전시체험콘텐츠 재원 기부-10월)
 -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한글과 한글문화") 개최, 한글박물관 홍보 전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한글박물관 누리집 구축(10. 10.) 등을 통해 국립한글박물관 조성과 한글 문화 가치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적 관심 제고 기회 마련
- '쉬운 공공언어 쓰기 운동' 등 언어문화개선 기반 마련
-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교류 확대 및 국어책임관 역량 향상 도모
 - 공동 연수회 개최(6.19.~20./충남 부여, 160여 명 참석)
 -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협의회 개최(15개 지역)
 -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 활성화 계획' 국무회의 보고(9. 17.)
 - 제2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보고(10. 31.)
 - 언어문화개선운동 범국민연합 출범(12. 18.)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립한글박물관의 핵심 기능인 전시, 교육, 연구의 균형있는 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간 공감대 형성 추진

- 개관시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공개되는 전시 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시·체험 콘텐츠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글 연구·예술/산업적 활용을 위한 한글아카이브 구축 및 원형 연구 등 한글 자료의 집적화된 연구 및 활용 기반 구축 추진 필요

□ 조치계획

- 국립한글박물관의 성공적 개관 및 교류·협력 기능 강화
 - 상설 전시실, 교육체험실, 기획전시 공사 준공('14.2월)
 - 구글 재원 기부를 통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14.5월)
 -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시 연계 및 기관 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반 구축('14.1~12월)
 - 소장 한글 자료 및 국내외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한글 자료 및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으로 한글 연구 및 활용의 중심점 역할 수행('14~'18년)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특별전, 기념 학술행사, 개관기념식 준비('14.1월~)
 - 국내외 문자 및 언어박물관, 관련 기관 등과 교류·협력 시스템 구축('14.1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등 박물관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기획전·특별전·학술연구 등을 통한 우리 역사 문화의 보전·계승·발전 도모
- 우리 문화재 국외전시,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으로 세계 속의 한국 문화 인지도 확산 기여

□ 주요 성과

-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해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상승
 - 국립박물관 고객만족도 상승(83.1점 / 전년대비 1점 상승)
- 관람객 눈높이를 맞춘 다양한 기획전시, 연구성과를 결집한 전시 개최
 - 세계 문명시리즈 '이슬람의 보물' 기획전 등 3건 전시 개최
 - 탄신 300주년 기념 '표암 강세황' 특별전 등 8건 전시 개최
 - 청자실, 가야실, 아시아실 등 전시실 개편을 통한 폭넓은 역사인식 제고
- 박물관 교육·문화행사 등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기능 역할 수행
 - 대상·연령별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총 19종 392회, 143,059명 참여
 - 문화축제(9회, 7천명 참여) 및 '박물관 주간' 행사 등 다양한 누릴거리 제공
- 소장자료 체계적 관리 및 정보 공유
 -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정리 및 공개 실시
 - 보고서발간(3권), 공문서 공개(23,819쪽), 3만 여점 조사·정리
 - 우리관과 문화재청 내부망 연계를 통한 국가문화유산 관리정보 공유 확대 및 효율적 활용기반 마련

- 국제교류를 통한 국립박물관 위상제고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ASEMUS(아시아유럽박물관네트워크) 집행위원회 및 VCM(가상 명품박물관)이사회 참석(10월/아일랜드)
 - ASEMUS 의장기관으로서의 위상 증대 및 아시아·유럽 박물관 간 협력 증진
 - AAM 총회(5월/미국), ICOM 세계박물관대회(8월/브라질) 참가
 - 해외전문가 초청, 한중·한일 학술인적교류, 해외 한국학 연구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연중)
 - 해외 박물관과의 상호교류, 공동사업 발굴 등 협력관계 정립
-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관람질서 확립 제도 시행
 - 초·중·고등학교 단체 관람객 대상 「청년 멘토」 프로그램 운영
 - 멘토 700여명 활동, 초·중·고 819개교 94,047명 안내·해설
 - 전년 대비 멘토제도 이용 관람 202개교 24,362명 증가
 - 학생 단체관람 사전예약제 정착 유도
 - 학생단체 분산 관람 유도(2시간당 1,300명, 1일 최대 5,200명)
 - 2,123개교 306,982명 사전 예약 후 관람(전체 단체관람 대비 91.4% 전년대비 4.4%p 증가)
-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의 연구·보존을 위한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및 개관
 - 영산강유역의 밀집된 고분문화 및 개방형 수장고 형식의 박물관
 - 지상2층, 지하1층(상설 및 기획전시실, 야외체험학습장, 편의시설 등)
 - 나주 신촌리 출토 금동관(국보 제295호) 등 871건 1,340점 유물 소장
 - 개관행사(11.22.) : '천년목사골, 나주' 개관기념 특별전 개최 및 개관식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중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가 목표치에 미달(고객지원팀)
 - 목표 845만명 대비 828만명(추정치)이 관람하여 98% 달성

□ 조치계획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변화 필요

-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증가 및 여가 환경의 다양화로 2012년을 기점으로 관람객 감소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 관람객 규모가 임계점에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10년~'12년)의 관람객 수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835만명(중박 310만명, 지방박물관 525만명) 정도를 목표 관람객 수로 적극 검토

- 따라서 관람객 수 지표의 일방적 상향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고객만족도 평가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함.

* '대체문화' 환경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순천정원박람회, 캠핑문화 등 대체문화시설, IT 콘텐츠 서비스 확산, 주5일제 수업 등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우리 민속과 세계 민속의 비교연구와 유물의 수집·보존·전시를 통해 전통 민속 문화의 보급·선양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 한국 민속 문화를 알리는 민속 주제 전시, 지역 민속 전시, 세계 민속 교류 전시 등 다민족·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전시환경 구현
 - 세계 박물관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협력 동반자관계 형성 및 상호 문화 이해 기반 조성
 - 다양한 계층 대상 사회문화교육 통해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전통 문화 수요층 저변 확대
 -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통해 지역민속의 보존과 연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유무형의 전통 민속 문화 보급 활성화
 - 국내외 민속유물 수집 통해 박물관 전시·연구 기능 활성화

□ 주요 성과

- 창의적인 전시 기획을 통한 민속 문화 활성화
 - 2012 아시아문화 기획전 '혼례' 운영('12.12.11~'13.2.11)
 - 이병찬 기증특별전 '자연을 물들이다' 개최(4.10.~5.20.)
 - 경남민속문화 특별전 '끈질긴 삶과 신명, 경상남도' 개최(4.17.~6.24.)
 - * 국립진주박물관 두암실(순회전): 9.13.~12.1.
 - 이동영 기증특별전 '만인산' 개최(6.26.~9.30.)
 - 민속의 새로운 지평 '쉽' 특별전 개최(7.24.~9.23.)
 - 제38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공동 개최(10.9.~10.28.)
 - 우리숨씨전 '박물관 속 하나 되는 어울림' 개최(10.25.~11.18.)
 - '힘찬 질주, 말' 2014 갑오년 말띠특별전 개최(12.18.~'14. 2.17.)
 - 한국 대표문화 기획전 '종가' 개최(12.4.~ '14.2.24.)

- 해외 순회전 '아리랑로드' 개최 (일본, 2회)
 - * 국립민족학박물관(오사카, 5.1.~6.12.), 주일한국문화원(도쿄, 7.3.~7.27.)
- 지역 순회 공동 기획전 개최(6회 * 당초 5개관→6개관 개최 확대)
 - * 옛길박물관(경북 문경) '길 위의 노래, 고개의 소리 : 아리랑' 특별전(4.4.~6.30.), 경기도자박물관(경기 광주) '복, 간절한 염원의 장식' 특별전(5.10.~8.25.), 해금강테마박물관(경남 거제) '흥남에서 거제까지' 특별전(6.4.~7.30.), 안동민속박물관(경북 안동) '빛, 어둠을 비추고 마음을 담다' 특별전(9.26~11.22.) 목포자연사박물관(전남 목포) '군자의 덕, 자연에서 배우다' 특별전(10.18.~12.15.)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서울) '바라고 바라다' 특별전(12.11.~'14. 3.28.)
- 어린이박물관 '속닥속닥 재미난 통신여행' 특별전 개최(5.1.~ '14.6.9.)
- 세계문화와의 소통 및 민속 문화 교류 활성화
 - 국제저널 무형유산 8호 발간 및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발간보고('13.8.)
 - '박물관을 위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13.9.), '박물관과 무형유산'('13.11.) 국제학술대회 개최
 - 베트남 혼례문화 현지조사 보고서 발간(5월)
 - 동아시아 상장례 현지조사(중국, 3월)
 -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학술교류 및 현지조사(4년차)
- 지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지역 민속 문화 진흥
 - '2013년 경남 민속문화의 해' 성공적 추진
 - * 경남민속문화의 해 선포식 및 민속축제한마당('13.3.30~3.31), 경남민속문화의 날 행사('13.5.4~5.5), 민속축제한마당(경남무형문화재 축제('13.6.11~6.12), 전국활쏘기 백일장('13.9.29~10.1/2350명 참가) 등
 - '2014년 강원 민속 문화의 해' 관련 민속 문화 학술조사(철원, 삼척)
 - '2015년 경기 민속 문화의 해' 공동사업기관 확정('13.4.24.)
 - 경남 거제 도시민속조사보고서 발간(6월)
 - 강원 속초 도시민속(실향민촌) 조사 :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
 -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의 발전적 운영(교보재 개발지원 10개 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1개 기관 4,524명, 소장품 정리 지원 4개 기관 1,000건 등)
 - '경남의 민속 문화' 등 총 16종 보고서 발간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만족도 제고
 - 새로운 교육 수요층 창출 및 학점 연계·특별전 연계 교육 개발
 - 세종특별자치교육청('13.6.24.)과 MOU 체결 등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기능 강화
 -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총 82개 프로그램, 1,911회, 193,580)
 - 다문화꾸러미(우즈베키스탄꾸러미) 개발 및 운영(다문화 관련 기관 대상, 160건, 48,460명 체험)
 - 교육부 평생학습계좌제 '전문인력양성교육' 등 2개 프로그램 등록
 - 상설공연, 세시 및 전시 연계 등 다양한 공연 개최(105회, 37,200명)
 - 설(30,346명), 정월대보름(4,370명), 단오(630명), 추석(52,852명), 동지(2,300명) 행사 등 90,498명 참여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 3.0 기반구축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 텍스트(3,671건), 사진(2,883건), 동영상(139건), 음원(1,831건) 등 민속대백과사전 정보 및 멀티미디어 정보 제공, 한국민속대백과사전 OPEN API 개발, 민간포털 지식백과 서비스 제공 3,671건
 - * 2013년 공공문화 정보화 대상 수상(총 49개 기관 중 1위)
 - 영상제작 스튜디오공사 및 장비 구축을 통한 자체 제작시스템 구축
 - 뉴스·행사·스팟, 전시, 교육, 자료·조사·연구, 어린이, 특별기획 등 6개 부분의 영상프로그램 60편 제작 및 다시보기 서비스(VOD)
- 다양한 소장자료 확충 및 과학적 보존환경 구축
 - 국내외 민속자료(3,404건 6,473점) 및 아카이브 자료(46,842점) 수집
 - * 민속자료 구입 787건 1,944점 / 수증 총 90명 2,617건 4,529점
 - 수집자료의 국가귀속 및 정리(민속자료 : 국가귀속 4,247건 4,964점, 가등록 5,845건 6,877점/아카이브 자료 : 국가귀속 55,306점)
 - 소장자료 재질별 이전 정리(총 6,195건 9,632점), 보존처리(1,086건 1,364점), 상태조사(2,936건 12,459점)
 -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 개발·운영(저산소농도살충법 특허 등록)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불필요시 제외)

- 지속적인 시설관리 및 점검을 통한 관람객 안전 추구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미흡
 - 내진보강 미추진 : 내진구조기준 제정이전('72년) 건축된 시설물로 내진성능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내진보강 실시설계 시행 이후 내진보강 대상 3개소 중 1개인 각황전 내진보강 공사만 완료된 실정임.
 - 2012년 관람객 만족도조사에 의하면 관람객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옥외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함.

□ 조치계획

- 국립민속박물관 건물은 '22년 철거가 예정(2단계 경복궁 복원정비사업)되어 있어 내진보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선행조건인 이전건립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연간 27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다중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내진보강을 추진
 - 현행 내진설계 대상시설별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내진보강 수행('15~'16년: '14년 예산 미확보)
- 사적지인 경복궁내에 위치하는 관계로 편의시설 확충에 제약이 예상되나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회의 사전협의나 문화재형상변경을 통해 보완 예정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개관(12.12.26) 이후 신설기관으로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력하는 한편, 국내 최초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자료 수집, 조사·연구, 전시기획, 교육 및 박물관 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온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상설전시 보완·개편 및 정전60주년 기념 특별전 등을 개최하고, 5만 8천여명의 관람객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관람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생활 속 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하여 옴
- 또한 ‘13년 한 해 동안 2,352점의 근현대사 자료를 기증받고, 기증 특별전시를 개최하여 기증문화 활성화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조사 연구 등 박물관 주요 사업 진행 시 외부 전문가들로 부터의 충분한 자문 및 의견청취를 통해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 매우 적절하게 조치한 것으로 평가됨

□ 주요 성과

- 상설전시실 운영 및 특별전 개최
 - (상설전시실개선보완) 2,964㎡(4개 전시실) / 자료 1,169점, 영상 109건 / 전시자료 교체(48건 68점) / 새마을 운동 코너 전면 개선 등
 - (특별전개최) 식목일 기념 특별전(4.5~4.28) / 정전 60년 계기 <휴전 그리고 대한민국 60년>전(7.23~9.29) / 기증특별전 <아름다운 공유>전(10.15~12.29)
- 근현대사 자료 수집 및 정보서비스 확대
 - (자료수집) ‘13년 12,032점 수집(공개구입 9,678점 / 경매 2점 / 기증 2,532점) / 총보유자료 52,456점

- (디지털아카이브 웹서비스) 근현대사 소장자료 아카이브 웹 서비스 실시(원문, 음원 등)
 - ※ DB구축 현황: 20,864건('12년, 목록DB), 1,600건('13년, 원문DB)
-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개발운영) 교육 운영 417회 11,606명 / 우리역사보물창고 1,522회 46,707명
 - (문화행사운영) 주요 기념일 체험행사 4회, 29,000명 / 주말 등 문화행사 개최 국악, 아카펠라 등 총 18회
- 교류협력 및 홍보활동 강화
 - (국내협력망구축) 국내 근현대사 박물관 33개 기관 협력망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 (MOU체결) 각급 교육기관과 인적교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력 확대
 - ※ 체결기관 : 이화여대, 서울시 교육청,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교류재단 등
 - (국제협력망구축)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및 해외 유사박물관과 교류사업 추진
 - ※ 브라질 ICOM 분과회의 운영 및 해외 박물관과의 인적교류 실시(초청 2명, 파견 1명)
 - (홍보활동강화) 기자간담회(2회), 인터뷰(23회), 보도자료 배포(15건), 외국인 대상 전문지 광고(5개) 및 특별전계기 광고(버스, 지하철) 박물관 소개를 위한 계간 소식지 발간(2회) 및 주요 계기별 홍보 이벤트 실시, 홈페이지 개편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편의시설 확충 및 수준높은 관람 서비스 제공
 - (박물관의휴식공간화) 옥상정원 개방, 역사마당 오색 분수대 및 야외 벤취 설치
 - ※ 어린이날, 한글날 등 계기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야외 설치작품 전시
 - (관람서비스제고) 전시실 내 의자·탁자 설치 등 관람객 학습·휴식 공간 제공 및 야간 개관으로 직장인 등 관람편의 증진
 - ※ 직장인 위주 박물관대학(20주, 매주 40여명), 클래식 공연 등 실시

○ 근현대사 연구 기반 조성

- (연구용역사업) 파독 50년, 정전과 한미동맹 60년, 정부수립 65년 등 5건 및 박물관 전시구성 검토 용역 및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실시 (4월~10월)
- (학술자료발간) 《현대사교양총서》 8종 발간 및 현대사 주요쟁점의 토론과 교류를 위한 『현대사광장』 발간(7월, 12월)
- (학술교류강화) 개관 1주년 국제학술대회(12월), 전시 및 연구용역 연계 학술대회 개최(총 5회) 및 근현대사 콜로키움 운영(총 9회), 학회 공동 주최 학술회의 개최(총 5회)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개관(12.12.26) 이 후 첫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성과지표 설정 시 경험적으로 입증된 기준 제시가 미흡하였음
- 이에 따라 성과지표 중 '관람객 수'에서 최대한 적극적인 목표치 (114만명)를 설정한 결과, 최종 92%달성에 그쳤음

□ 조치계획

- '13년도의 관람객 수 및 형태에 대한 분석 실시를 통해 '14년도 관람객 수 및 관람객 만족도에 대한 적절한 목표치 설정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기반(열람실, 대체자료 20,915종, 독서지원 보조공학기기 229대, 자원봉사자 36명)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1:1 맞춤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로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생활 속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
- 온라인 자료의 수집체계 및 운영·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고품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연구를 통해 효율적 업무 수행과 성과제고의 방향을 모색하였음

□ 주요 성과

-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실시로 연간 이용자 수 증가
 - 장애인정보누리터 연간 이용자 수가 목표 5,500명에서 12월 현재 6,548명으로 목표치 대비 19% 초과 달성
 -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을 통한 청각장애인 인식 개선
 -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손책누리 시범 운영(총8회), 손책누리 2차(총10회)실시 및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전국 확산을 위한 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참관행사(47개관 63명) 실시
 -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인 '손책누리'의 운영으로 상대적으로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했던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고 독서능력을 향상시킴('12년 36명 → '13년 50명 신규등록)

- 도서관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종합적인 원스톱 시설 구축
 - 324m² 공간 확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51종 229대 확보, 장애인 독서를 위한 대체자료 20,915종, 장애인 서비스 증진을 위한 자원 봉사자 36명 확보
- 디지털도서관 콘텐츠 활용
 - 도서관정보화 DB 구축을 통한 인터넷 이용서비스 확산으로 '13년 목표치 87,000건 달성
 - 디지털도서관 콘텐츠 활용 건수(월) 증가
 - : '12년 84,000건 → '13년 87,400건
 - 모바일 원문 콘텐츠 서비스 개시('13.4.5.)
 - '젊은 느티나무(강신재 저)' 등 저작물 이용계약체결('13.4.1)
 - '봄은 간다(김억 저)' 등 교과서에 실린 시·소설·고전문학작품 290편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문화 융성의 기초를 놓은 국어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고, 국어 관련 교육 및 상담 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소통과 언어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생활 속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
- 특히 국어 관련 각종 정보, 연구 성과 등의 우리말 통합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향상시킴.
 - 다만, 개방형 국어대사전(우리말샘)에 대한 정보 자료의 정비·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공개시기를 당초 2013년 10월에서 2016년으로 연기하는 등 사전 정보의 신뢰성 확보 필요

□ 주요 성과

<국어 교육 기회 확대>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20회 개설) 및 소외 계층 대상(북한이탈주민 포함) 우리말 교실 운영(204회 1,496명 수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어 교육 기회 확대

구 분		세부 추진 내역
국어문화학교	정규과정	- 18회 2,329명(공무원·일반인 대상 14회 2,203명, 교사 대상 4회 126명)
	특별과정	- 독서특별과정, 강사연수회 등 7회 812명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일반인 대상	- 241개 기관 286회 19,765명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우리말교실	- (강서지역 우리말 교실 운영)17회 3,873명 - (지역아동센터 우리말 교실 및 쓱쓱 국어 교실)총 204회, 1,496명 수강
기획과정		- 새터민 대상, 국립암센터, 국회 사무처 등 100회 7,306명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 생활 속 어문 규범 등 13개 강좌 - 총 20회 운영, 2,521명 수강, 948명 유료, 유료율 37.4%

<우리말 통합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인력 증원(2명) 및 전화 상담 시스템의 안내 음성 세분화(대기 안내, 휴일 안내 등) 등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 2013년도 운영 현황(상담건수)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가율(%)
전 화	85,147	97,700	14.7
온라인	16,032	23,046	43.8
트위터	14,001	17,877	27.7
계	115,180	138,623	20.4(평균)

-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제공
 - 신어 및 생활용어 5천 항목, 전문용어 6만 항목 등 실생활어 중심의 6만 5천 항목 한국어 자료와 1만 6천8백 항목의 언어별 다국어사전(5개 언어, 총 8만 4천 항목) 구축
 - 우리말 다듬기 실적 확대('12년 13개 → '13년 34개)
 - 국립국어원 모바일 누리집 서비스(m.korean.go.kr) 실시(1월)
 - 기관 영문 누리집 오류 수정 및 맞춤법 감수(8월~9월, 총 5회, 본부 영어 감수전문위원)
- 국어 정보지 발간으로 국민의 국어에 대한 인식 제고
 - '새국어생활' 연 4회 발간,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주 1회씩 총 50여회 발간, 국어 연감 발간(연 1회)

<어문 규정 정비를 통한 국민 언어생활 편의 증진>

- '한글 맞춤법'(1988. 1. 19. 고시)의 부록인 '문장 부호' 개정 추진
 - 명칭 변경(. 온점→마침표 등), 부호 추가(《 》 꺾쇠표 등), 용법 추가 등
- 국어 규범 정비 위원회 개최(3회) 등을 통한 어문 규범 현실화 추진
 - '굽신거리다 빠지다 등 복수 표준어 인정 논의 [김밥] 표준 발음 인정 논의 등

<지역어 보존과 활성화 노력 지속>

- 국내 9개 권역 국외 1개 권역 지역어 구술 발화 자료 각 7시간 분량 전사 및 대역
- 제2회 전국사투리상품아이디어 공모전 개최(8.5~9.6./151점 접수, 17점 시상)
- 2013 경남 언어문화 축제 '마이 오이소, 사투리 한마당' 개최(11월)

<언어 정책 개발을 위한 국내외 학술 교류 강화>

- '통합과 소통의 국어정책 개발을 위한 전국학술대회' 개최(10월)
-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11월, 중국 연변대학)
- 지역 학회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3회/6, 8, 9월)
- 외국 언어 기관 방문을 통한 세계 유수의 언어 정책 기관과의 국제 교류
 - ※ 2013 방문 기관: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연구소, 함부르크대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 연구소, 유럽한국학학회(AKSE)

<한국어교육진흥 및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역량 강화>

- 한국어교육 문법·표현과 어휘에 개발에 관한 2단계 추진 등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 실시
- 세종한국어 5~8권 및 '세종한국어' 1~4권 교원용 지침서 개발, 누리-세종학당 온라인 강좌 개발 및 멀티미디어 한국어 교육자료 제작 등 세종학당 관련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
-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초·중·고) 1, 2 교사용 지침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표준발음 및 화법 교육 프로그램 등 국내외 맞춤형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한류 콘텐츠 활용 한국어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
 - '12년 시범사업(두근두근 한국어) 실시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KBS World 채널을 통한 국외 송출
- 국내외 한국어 교원(전문가) 연수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외 한국어 전문가 및 세종학당 교원 초청 연수: 2회, 69명
 -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6개 지역, 11명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연수회(2회)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1회)
 -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교원 공동 연수회(2회)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구축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을 2013.10월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구축 자료의 정비·보완을 위해 2016년 개통으로 변경 필요

- 3년 동안 130만 항목 구축(신규 80만, 가공 50만)하였으나, 전문 용어 분류체계 사전 검토 미흡, 표절 및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우려, 등록된 용어들에 대한 전수 조사 등 필요

□ 조치계획

-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자료 정비 및 보완('14~'15년)
 - 구축 자료에 대한 전수 교정·교열 및 일관성 검토 등 정비 보완('14~'15년)
 - 개방형사전 운영위원회 등 안정적 운영 체계 수립('16년 초)
-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개통('16년 이후) 계획 수립
 - 시범 운영 실시('16년 상반기)
 - 정식 개통('16년 하반기)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행사)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이웃종교 간 이해 및 화합 행사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지원 및 종교문화유산 보존 전승사업 지원을 통해 민족 전통문화 유산 보존·전승 기반 마련

□ 주요 성과

-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문화적, 인적 교류확대를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 제고 및 관광수용태세의 질적 성장 도모
 - * '13.10월 부산 개최, 해외참가자 2,900명 포함 역대 최고 11,500여명이 참가
- UN이 정한 '종교화합주간'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한국의 모범적인 종교간 화합 사례를 홍보하고 한국 종교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
 - UN 종교화합주간 기념 및 기도회 참석, 김희중 대주교(KCRP 대표)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이웃종교화합주간 행사 소개 및 세계평화 호소
 - * '13.2.12~17 / UN 본회의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단 10명 참석
- 종교계의 다양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 7개 종단 20개 사업 22,587명 참석
 - * 청소년 인성교육 “심심풀이”: 소비자선호 1위 브랜드로 선정
- 국제종교교류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의 문화 홍보
 - 국가간 종교문화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3회/중국, 북한, 스리랑카)

- 전 세계 종교계가 참여하는 종교간 대화회의 참가
(3회/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집행위원회의,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
- 종교평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회/동북아 공동 세미나, 한-이슬람 종교간 대화세미나)
- 세계 청년 종교문화 교류 및 평화 전문가 워크숍 개최
(3회/한일 종교청년평화캠프, 세계청년종교문화캠프, 아시아 평화교육전문가 워크숍)
- 한중일 불교문화교류 활성화 및 우호증진
(2회/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 제28회 세계청년대회 국가홍보 지원
(2013.7.23~28,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종교문화활동 지원으로 국민의 다양한 종교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연등축제(5월), 산사문화예술제(4월-12월, 57개 사찰), 명동성당 5월 대축제(5월),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행사(12월), 원불교 종교문화 활동, 민족종교 정신교육프로그램 운영(4-11월, 1,270명) 등 다양한 종교문화활동 지원
 - 7대종단 지도자 및 종교인 등 1,500명이 참석하는 이웃종교 화합 주간행사(이웃종교화합주간 개막식 5월,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 6월, 이웃종교체험스테이 7~9월, 지역별 종교화합 행사 11~12월)를 통해 다종교 국가로서 종교간 화합과 상생의 장 마련
- 전통사찰의 보존 지원 및 전통문화유산 전승 보존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화재·도난 등 재해 사전예방
 - 아크 차단장치 시험기준 및 성능 효율화 방안 마련('13년까지 221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162개 사찰)으로 전통사찰 보존 전승
 - 가산불교대사림 편찬, 한국유경정본화 DB구축,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 전통문화 유산 전승 보존
-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확대로 종교인프라 확충 기반 조성
 -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김수환추기경 '사랑과나눔 공원' 조성,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사업,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제2원사 건립 등 11개 사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종교문화시설건립 집행률 부진

- 2013년도 종교문화시설 11개소 중 8개소가 2012년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지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하였음

□ 조치계획

- 향후 지방비 확보 상황 점검 등 사업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공정율을 반영하는 등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는 5·18단체의 구)전남도청 별관 원형 보존 요구 등으로 지연되어 왔으나, 정부최종안 확정(‘10. 12월)이후 현재는 건물의 외형이 완성되어 ‘14년 완공을 목표로 관련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
 - ‘14년도 건립공사는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 등 잔여 공사마무리를 추진하고, 각종 장비의 시운전 및 검사를 통한 성공적인 준공을 이루어 고품질의 문화전당을 완공할 예정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당에서 생산하는 콘텐츠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속적 업그레이드, 다양한 운영 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 아시아예술극장의 개관 사전제작 프로젝트인 <One Day Maybe, 언젠가>공연을 통해 국내외 창작자들의 공동제작이라는 새로운 작품 개발 환경을 제공, 향후 전당 제작 시스템과 관객의 니즈(needs)를 미리 확인, 보완하여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

- 작품명 : <ONE DAY MAYBE, 언젠가>
- 사업 기간 : 2013.01. ~ 2013.12.
- 공연 지역 : 광주광역시, 일본 고치시, 일본 가나자와(총 3개 도시)
- 연출 : 트리스탄 샹스(드림씽크스피크)
- 기획 및 제작 : 아시아문화개발원, 고치현립미술관,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 아시아나우, 드림씽크스피크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영국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공연일정 및 장소
 - 9.3.(화)~9.15.(일) 광주광역시_(구)광주여자고등학교
 - 11.2.(토)~11.9.(토) 고치_고치현립미술관
 - 11.29.(금)~12.8.(일) 가나자와_가나자와21세기미술관, 타테마치街쇼핑몰
 - ※ 국제공동제작으로 광주 공연 후 일본 두 개 도시 재창작 공연 진행
- 관객수 : 728명(이동형 공연의 특성상 회당 60명 관객 수 제한)

□ 주요 성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금년도 목표 공정률(75%) 대비 105.7% 초과 달성(79.3%)
 - 아시아예술극장,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내부 마감공사 85% 진행, 어린이문화원 골조공사 완료
 - 수목식재, 수경시설, 포장 등 조경공사 54% 진행
 - 기계, 전기, 통신 설비 공사 67% 진행
- 국립 문화전당과 연계한 '아시아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14. 상반기 준공 예정)
 - 아시아 예술인 창작 스튜디오, 레지던시, 전시장 등 조성
-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아시아 문화마루'(문화전당 홍보관) 운영
 - 다양한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통한 아시아 각국 문화의 대국민 홍보, 시민참여를 통한 문화 이해도 증진
 - ※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창작 프로그램- 전시명 : '팔로우' 등
 - 상설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특히 청소년 교육을 통한 문화 미래 꿈나무 육성
 - ※ 상설 교육 프로그램 - 리틀유네스코, 인체와 움직임, 신나는 아시아 음악여행 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및 프로그램 준비를 통해 개관 후 전당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한국과 일본, 영국의 공동제작 시스템 구축 및 광주와 일본 2개의 도시에서의 공연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알리는데 기여
 - 아시아예술극장이 지향하는 동시대 예술에 대한 광주 지역의 관심을 제고, 향후 안정적인 관객 확보에 기여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중 '전당 시범콘텐츠 만족도'의 목표치(68.5%)가 지난 2년간 실적치('11년 70%, '12년 75.6%)를 감안할 때 낮게 설정됨

□ 조치계획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시 그 간의 추세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추진일정을 엄격히 관리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세계 주요 거점별 해외문화홍보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한국 문화 저변 확대로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를 강화
 - 27개소 문화원 운영, 3개소(태국, 브라질, 벨기에) 신설 완료 및 코리아센터 2개소(뉴욕, 파리) 건립 추진
 - 문화동반자 사업,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등을 통하여 대외 관계개선 및 국가이미지제고

□ 주요 성과

- 문화원 신설을 선진국 중심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태세가 갖춰진 제3세계(태국, 브라질)로 확대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코리아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이집트문화원은 계속되는 비상사태로 인해 협정체결 및 개원식 연기
-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한국문화 저변 확대 기반 마련
 -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한중일 문화장관회의(9월, 광주), 제9회 한중일 문화교류포럼(한일 문화교류회의, 11월, 일본)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문화원 신설에 있어 현지 국가에서의 돌발 상황 발생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미흡

□ 조치계획

-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개원('14.6월~)
 - 현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이집트 정세가 완화되면 '14.6월 이후 개원 예정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주요계기별 문화행사 집중개최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정수를 종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
 - 주요 국제행사(이stanbul-경주문화엑스포 계기 한국문화축제)를 활용하여 한국소개 종합 홍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를 브랜딩(branding)
 - 외교관계수립을 기념한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 국가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 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 수행

2013 수교 기념 행사 대상국 : 7개국
○ 캐나다 수교 50주년, 독일 수교 130주년, 영국 수교 130주년, 핀란드 40주년, EU 수교 50주년, 인도 40주년, 파키스탄 수교 30주년

- 캐나다 수교 50주년, 독일 수교 130주년, 영국 수교 130주년, 핀란드 40주년, EU 수교 50주년, 인도 40주년, 파키스탄 수교 30주년
- 주요 선진국 이외에 중동, 서남아 등 그동안 교류가 미흡했던 문화권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문화교류지역 다변화
- 수교기념, 국제 행사 등 주요 계기 활용한 우리문화소개를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증가에 기여함

□ 주요 성과

- (터키 한국문화페스티벌) 이stanbul-경주 세계엑스포 계기 공연, 전시, 영화, 한식, 태권도, K-POP, 학술 등 7개 분야 11개 행사 개최(13. 4월~10월)
- (독일 130주년) 국립무용단 '코리아환타지'(5.13/베를린 포츠담광장극장)를 시작으로 9개 도시에서 한국문화소개행사 개최(연중)
 - 국립무용단 '코리아환타지', MBC 파독 50주년 기념 '이미자의 구텐탁, 동백아가씨', 국립현대무용단 '호시탐탐', 2013 Jazz Korea 등 독일 9개 도시 공연 및 전시 개최, 7,300여명 관람
 - * <언론보도> KBS 뉴스광장 '전통춤사위 박수갈채', FAZ지, Der Spiegel지 등 '50년 전 근로자를 수출하던 나라가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이어 음악도 수출한다' 요지 보도

- (핀란드 40주년) 년비벌 퍼포먼스 '난타'(5.27/헬싱키 사보이 극장)
 -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벨기에 연계 공연 추진, 총 7회 공연 4,300여명 관람
- (영국 130주년) 런던한국음악축제(6.14~6.21/런던 바비칸홀, 카도간 홀)
 - 판소리, 거문고 등 전통음악에서 현대적 인디락까지 다양한 한국 음악을 현지에 소개하는 5개 공연에 총 3,500여명 관람 등
 - * <언론보도> KBS 뉴스: '런던한국음악축제 개막, 국악에서 K록까지', Financial Times: 'Seoul Sensations', London Evening Standard: 평점 5점(만점), 공연 호평 등 총 93건(국내 68건, 현지 25건)
- (캐나다 50주년) 전통 퓨전·현대의 종합 공연(6.28~7.8/오타와 등 4개 도시)
 - 7.1 캐나다데이 특별공연 참가(NCC의 Jean-Francois Trepanier 사장 감사 메시지 전달)
 - 퀘벡주 문화장관, 연방의원, 외교사절 등 주요인사 참가 한국문화 홍보
 - 캐나다 ALL TV 등 현지 8개 언론사에서 보도와 함께 호평
- (인도 40주년) 국립창작관현악단 공연(10.10~10.15/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 3개 도시 4회 공연으로 4,200여명의 관람
 - The Indian Express 등 7개 언론사에서 보도와 함께 호평
- (파키스탄 30주년) 창작국악공연(10.28~11.1, 이슬라마바드, 아부다비)
 - UAE 아부다비 연계공연을 통해 이슬람지역에서 한국문화 소개(1,200여명 관람)
 - 파키스탄 문화부장관 및 외교사절 등 주요인사 참가
 - 파키스탄 국영방송 PTV 등 10개 언론사에서 보도와 함께 호평
- (EU 50주년) 벨기에 한국문화원 개원식 연계 '아리랑' 공연(11.26/브뤼셀)
 - 벨기에 정부인사 및 EU 관계자, 외교사절 등 참가(1,300여명 관람)
 - 네덜란드 및 독일 연계 공연 추진을 통해 유럽 내 한국문화소개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추진계획 중 일부 일정이 지연 또는 변경 추진됨

□ 조치계획

- 대부분의 추진계획이 해외에서 다른 나라와 관련된 행사가 주를 이루는 만큼 보다 계획적인 추진일정 수립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즉각적 대응 체계 구축할 계획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13.12)로 예술인의 사회보장 지원 확대 기반 마련
- 열악한 창작 환경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제공에 기여
 - 예술인 대상 교육 및 창작지원, 사회보험 지원 등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지원

□ 주요 성과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14.3.31 시행 예정)
- 총 5,500명의 예술인 대상 창작 및 교육 지원을 완료하고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등 추진
 - 미술(42.6%), 문학(20.3%), 영화(10.1%) 등 전체 문화예술 분야 1,831명의 예술인이 1인당 300만원의 실업급여에 준하는 혜택을 줌
 - 3,852명의 예술인 대상 강좌형·맞춤형·바우처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역량 제고에 기여
 - * 성과(수집 중) : 취업 71명, 협동조합 결성 추진 5건, 창작활동연계사례 12건 등
 - 예술인 472명('13.12월말 기준)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30%, 월 3,500원)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창작/실연/기술지원 등 3종) 개발·보급을 통한 예술분야 계약문화 정착기반 마련('13.5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창작준비금 지원은 지원심의 시 소득보다 예술활동 실적이 우선 적용되는 문제 등이 제기됨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재단에서 강좌를 직접 설계한 강좌형 교육 등은 일자리와의 연계가 미흡하였음

□ 조치계획

- 지원대상자 선정을 소득기준으로 변경하여 저소득 예술인지원 확대('14.1월~)
- 강좌형 교육 폐지 및 맞춤형 교육 확대, 예술인 파견사업, 잡페어 등 일자리 연계 사업 확대('14.1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우수한 공연작품 발굴을 위한 전략적 지원(선택과 집중 및 사후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대외 경쟁력 향상

□ 주요 성과

- 창작산실 사업을 통해 우수창작 연극, 뮤지컬 발굴 및 전략적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향상
 -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 제작의 전 과정을 경쟁을 통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운영,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단체별 대표 공연 레퍼토리 육성 추진(창작지원 총 45편)
 - ⇒ 창작산실 관람객 증대('13년 64천명, 목표 60천명 대비 초과달성)
 - 창작산실 홈페이지 개설·운영을 통해 장르별 일괄 통합 홍보 추진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효율성 제고
- 서울아트마켓은 전년대비 참가자 수 증가(13.9%), 동유럽 신규 권역 개발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연마켓으로 성장
 - * 총 1,870명(국내 1,546명/국외 51개국 324명)
 - * 호주예술위원회와 캐나다 공연예술마케(CINARS)와의 협력관계 지속 유지 (호주 및 캐나다 참가이누언 43명으로 전체 해외참가자 규모의 10.1%)
- 국제아트페어참가 지원 및 코리안아트쇼, 한국국제아트페어 개최를 통해 한국미술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추진(판매액 총 318억원)
 - 한국국제아트페어 관람객 8만5천여명 방문, 판매액 190억원(전년 대비 35.7% 증가) 달성
 - 국제미술전 참가지원(판매액 110억원), 코리안아트쇼(8억원), 아트에디션(10억원)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확대 기반마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음악분야의 창작 역량 및 콘텐츠 강화를 위해 무용이나 연극 장르와 같이 오페라 외에 창작음악 등 세부 장르 지원 방안 마련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문화적 소통이 활성화된 생활공간 조성, 공공영역의 디자인 문화 확산을 통해 누구나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교 유휴공간, 소규모 간이역, 폐교, 폐창고 등의 유휴공간을 문화 예술공간으로 조성하여 창의적인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구 서울역사'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문화역 서울 284'로 운영, 이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주요 성과

-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학교 내 유휴공간을 문화동아리실, 갤러리, 도서관 등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 제고에 기여
 - 디자인디렉터(건축가)를 중심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디자인워크숍을 개최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창출하고 디자인 인식을 제고시킴
-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소규모 간이역, 폐교, 폐창고 등의 유휴공간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7개소)
 - 프로젝트 매니저의 주도하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휴공간의 디자인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병행을 통해 지역민의 소통과 문화향유공간으로 활성화

- (국제타이포비엔날레 개최) 세계 유일의 그래픽디자인비엔날레 개최를 통해 타이포그래피의 예술적 가치와 실험가능성을 탐색·교류하며 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13.8.30~10.11)
 - 국내외 작가 57팀 참여, 총 33,013명 관람(일 평균 917명)
- (공간문화 인식 확산)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및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등의 개최를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화디자인 방향성 제시
 - 2013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개최('13.11.1/330여명 참여)
 -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 및 시상('13.10.17)
-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구 서울역사가 지닌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현
 - 전시, 공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총 관람객 165,000명
 - 기획전1 '여가의 새발견'(3.22-4.14, 4.26-5.26), 기획전2 '대중의 새발견'(6.6-7.14), 기획전3 '근대성의 새발견'(11.23-12.31)
 - 정기공연1 '아트플랫폼'(5.28-11.17), 정기공연2 '즉흥상설-고수푸리'(6.22-11.23), 정기공연3 '오픈스테이지'(6.29-12.28), 정기공연4 '아트인큐베이팅'(10.1-12.8)
 - 교육과정1 '대중예찬'(6.20-7.6), 교육과정2 '여가의 새발견-리바이벌'(7.25-8.13), 교육과정3 '근대만담'(10.17-12.12)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학교 측에서 시공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 * 학교만들기 사업 추진시에 우리부에서는 공간조성 컨설팅에만 예산을 지원함
-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 종교집회, 각종시위, 노숙인 장기체류에 따른 악취, 소음 등 문화공간 정산운영에 외적 장애요인 발생(10일 동안 임시휴관)

- 서울역광장 소유가 민간(코레일)에 있어 광장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사용료 요구
- 문화재시설로서 시설활용의 제약요인 상존

□ 조치계획

-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2014년 사업 추진시에 학교 측의 시공비 확보여부를 심사중에 확인하고 대상 선정 이후에도 시공비 확보를 수시 확인 및 독려
-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 추진('14.3)
 - 관객편의시설 일부(까페)를 노숙인 자활 공익단체에 임대
 - * 문체부, 안행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코레일, 빅이슈코리아, 등 참여예정
 - 코레일 측과 협력하여 광장프로그램 공동운영 추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국가를 대표하는 극장으로서 전통예술 공연의 창조적 계승과 진흥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 기획·제작, 교육·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 여건 개선에 기여
- 국립레퍼토리시즌의 성공적 정착으로 극장의 3개 전속단체 공연을 포함한 국립예술단체의 우수레퍼토리를 연중 공연하여 국립예술단체들의 창작역량강화 및 공연작품의 질적 제고

□ 주요 성과

- 2013-2014 국립레퍼토리시즌 공연실적 대폭 증대(첫 시즌 대비 부문별 10% 이상 증대)
 - 작품 수 55편→63편(14% ↑), 공연일 285일→319일(12% ↑) 증가
 - 국립예술단체 공연 평균 객석점유율 74.4%→82.5%(11% ↑) 증가

구분	2012-2013 시즌	2013-2014 시즌
전체 작품 수	총 55편 (레퍼토리 12편, 신작 13편, 상설 30편)	총 63편 (레퍼토리 14편, 신작 13편, 상설 36편)
기간	2012년 9월 5일~2013년 6월 16일	2013년 8월 14일~2014년 6월 28일
공연일수	285일	319일
국립 예술 단체	참여 단체 수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현대무용단)	7개 단체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실적	객석점유율 74.4%

- 국립극장 제3기 국가브랜드공연 <단테의 신곡> 전회 매진
 - 고전 단테의 “신곡”을 원작으로 한 국가브랜드공연 <단테의 神曲>이 해오름극장 초연으로 7회 전석 매진의 성공 달성(13.11.2~9)

- 우수 레퍼토리 개발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수립 및 지속 추진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3개 전속단체별 전략수립 및 작품제작 추진

한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세계가 공감하는 동시대적 작품 개발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전략 방향	판소리 5바탕의 현대적 창극화	한국 춤의 미학을 재조명하는 신작 안무	한국전통음악의 재작곡/음악교류
전략 과제	세계적 연출가 공동제작	해외 안무가 초청	해외 작곡·음악가 교류
프로젝트	세계거장시리즈	안무가 초청 프로젝트	아시아 뮤직 시리즈
세부 추진	<수궁가> 공연('12년) <춘향가> 착수('13년) <적벽가> 착수('13년)	테로사리넨 신작 착수('13년) 프랑스 안무가 섭외('14년) 테로사리넨 신작 공연('14년)	몽골국가대합주단 연합공연('12년) 대만국립관현악단 연합공연('13~'14년) <리컴포즈> 공연('14년)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중 '고객만족도' 점수가 당초 설정된 목표인 81점보다 약간 미흡 달성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조치계획

-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내·외부 인프라 구축 노력
 - 고객지원팀 통합 ARS(자동응답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설립 ('13.12월~'14.2월)
 - VOC(고객의 소리) 처리 시스템화를 위한 TF 구성 및 연구 진행 ('14.3월~6월)
 - 기존 고객관련 업무의 분리된 구조의 개선을 위해 극장안내, 공연정보 및 예약현황 등 일반안내와 불만 의견 접수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구축 노력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성공적 준공 및 개관, 미술작품과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 미술 관련 교육·문화 프로그램 보급과 제공을 통한 대국민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신장과 국제 교류를 통한 우리 미술문화의 적극적인 해외 홍보 추진

□ 주요 성과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준공('13.6월) 및 개관('13.11.12), 성공적 운영
- 새로운 미술관 운영 방향 정립
 - 국립현대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13.12월)
- 과천관·서울관·덕수궁관의 특성과 기능을 반영한 특화된 전시 개최
 - 과천관 18개, 서울관 개관기념 5개, 덕수궁관 4개 전시
- 체계적인 소장작품 구입(102점)·보존(374점)·관리(9,443점 조사) 강화
- 다양하고 전문화된 미술관교육의 활성화
 - 전시연계 프로그램, 어린이미술관 교육, 문화나눔, 문화행사 개최
- 미술연구센터 개소('13.10월) 및 미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 소장품 과학적 보존처리·재질분석 및 대외 지원
- 미술은행 사업역량 강화 및 창작스튜디오 창작 지원 활성화
- 국제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 강화 및 고객서비스 혁신(고객지원 센터 운영)
-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기본계획 완료 및 실시설계 실행
- 미술관 후원 및 협찬 대폭 활성화(12개 기업에서 총2,760백만원 지정기부)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교육부 및 17개 시·도 지자체와의 협력 하에 양질의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성 제고에 기여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군장병, 재소자 등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사회계층간 문화적 격차 해소에 기여
- 예술강사의 선발·과건에 따른 문화예술인의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 농·산·어촌 및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 30개 학교를 ‘예술꽃 씨앗 학교’로 선정, 집중도 및 효과성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

□ 주요 성과

-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문화 양극화 현상 해소 등 국민의 행복을 배려하는 문화 복지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속 확대

※ 사회문화예술교육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예산(억원)	82.81	126.04	137.16	202.92	289.92
예술강사(명)	560	998	1,092	1,636	2,224

- 소외 아동, 노인, 장애인, 군장병, 재소자들이 전문 예술 강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체험·학습·향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 10개 분야별 예술강사 373명 선발 및 복지기관 425개 지원

※ 2013년도 분야별 복지기관 예술강사 현황

구 분	아동		노인		장애인	
	반수	강사수	반수	강사수	반수	강사수
국악	58	33	-	-	-	-
연극	44	29	70	43	-	-
영화	64	36	-	-	18	6
무용	33	16	50	24	48	34
미술	82	38	44	15	47	14
음악	98	36	74	26	24	13
사진	-	--	33	10	-	-
계	379	188	271	118	137	67

- 교정시설·소년원, 군장병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180개 군 부대, 42개 교정시설, 10개 소년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4,727명 수혜 (112개 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 284명 지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9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개 치료감호소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222명 수혜 (13개 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 27명 지원)
- 지역 문화사각지대(미혼모시설, 청소년 쉼터, 경로당, 임대아파트) 대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477개 문화예술단체, 607개 프로그램 선정, 강사·기획자 등 문화 예술교육 일자리 590명 창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례>

서울지역에서 선정된 '희망예술기지'(대표 최미환)는 도박중독자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자서전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이해와 심리적 재활의 기회를 제공함

부산지역에서 선정된 '미야아트댄스컴퍼니'(대표 강미희)는 부산 서구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두드림의 몸짓 메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이 억압된 욕구와 상처를 몸짓으로 표현하고, 나아가 공연을 통해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

- 소외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추진으로 소외 아동·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 여성가족부 협력('10년 MOU체결/ 2억원 예산 매칭), 청소년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상상학교' 전국 10개 지역별 46개 청소년 시설 지원
 -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 전국 30개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수혜아동 1,572여 명/예술강사 325명)

사업주체	협력기관	오케스트라명	비 고
대전문화재단	대전시립교향악단 등	주니어 드림 오케스트라	3년차
춘천문화재단	춘천시립교향악단 등	신나는 오케스트라	3년차
부산문화재단	사)인코리아안심포니 등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	3년차
부천문화재단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놀라운 오케스트라	3년차
익산문화재단	클나무오케스트라단 등	꿈과 희망의 오케스트라	3년차
화성시문화재단	수원대 등	I am a musician	3년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립교향악단 등	어울리오	3년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청소년교향악단 등	너+나=우리가 함께 만드는 한소리 오케스트라	3년차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소월 아트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꿈나무 오케스트라	2년차
원주문화재단	음악만들기 앙상블 등	푸른꿈 오케스트라	2년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립교향악단 등	꿈나무 오케스트라	2년차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경북도립오케스트라 등	다함께 오케스트라	2년차
목포문화예술의전당	목포시립교향악단 등	목포 꿈의 오케스트라	2년차
부안예술회관	드림필 오케스트라 등	아리울 오케스트라	2년차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시	I.P. Jeju Junior Orchestra	2년차
승달문화예술회관	무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희망의 오케스트라	2년차
군포시문화예술회관	프라임 필하모닉 등	행복이 가득한 오케스트라	2년차
성북문화재단	서경대학교 음악학부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신규
안산문화재단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안녕?! 오케스트라	신규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대학교 음악대학 등	꿈의 오케스트라 “안양”	신규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김포필하모니오케스트라	드림마루 오케스트라	신규
평택문화원	중앙대학교 음악학부 등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신규
아산문화재단	아산시 교향악단	꿈의 오케스트라 “아산”	신규
수성문화재단	대구MBC 교향악단	대구 신세계 청소년 오케스트라	신규
창원문화재단	경남대학교 등	꿈의 오케스트라 “창원”	신규
포항문화예술회관	아트챔버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포항”	신규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광주대학교 음악학과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	신규
장수문화원	우노 챔버 오케스트라	꿈나무오케스트라	신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코리아 콘서트 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정선”	신규
강릉문화원	관동대학교 음악학부	강릉&하슬라 유스 오케스트라	신규

- 2013 꿈의 오케스트라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5.22~23/ 서울, 대전)
- 2013 꿈의 오케스트라 이음캠프(8.12~15/ 강원도 알펜시아 '뮤직텐트' 등)
-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 단독 공연 개최(10.18/ 예술의 전당)
- '2013 꿈의 오케스트라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10.20/ 덕수궁)
-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예술캠프('13.8.8~8.12, 숲체원/400여명)
- 단순 체험캠프를 지양하고, 소외 아동, 청소년들에게 예술가와의 공동창작을 통한 입체적·심미적 체험 기회 제공

- 예술강사 연수과정 운영을 통한 강사 전문성 및 교육의 질 제고
 - 기본연수 : 예술강사 핵심역량(예술교육전문성, 교수역량, 관계&관리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분야별 연수체계 개선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심화연수 : 기본연수 과정 수료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경력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 연수프로그램 확대 개설·운영

구분	교육기간	교육시수	교육인원	만족도조사	비고
기본연수	상반기 : '13.1.24~3.4	1,200	1,587	3.9(5점 기준)	* 12년 만족도 평균 3.9
	하반기 : '13.7.29~8.10	320	723	3.7(5점 기준)	
심화연수	'13.6.28~9.8	828	962	4.3(5점 기준)	
계		2,348	3,272	4.0(5점 기준)	

- 학교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전국 7,254개교에 국악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 4,485명 파견(3~12월)
 - * 지원학교 : 전체 초·중·고 (11,559개교) 대비 63%(7,254개교)
 - * 수혜학생률 : 초·중·고교생(677만명) 대비 31%(210만명)
 -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
 - * 수혜학생수 : 174만명('10) → 184만명('11) → 190만명('12) → 210만명('13년)

< 2013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역별 현황 >('13.9월 말 기준)

(단위 : 개교/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학교수	897	456	275	297	223	205	158	28	1,057	423	294	493	557	578	505	661	147	7,254
강사수	810	378	214	185	225	188	127	6	529	166	167	235	373	258	296	237	91	4,485

- 농어촌 등 소외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확대 운영 ('10년 10개교 → '11 ~ '12년 26개교 → '13년 30개교)
 - 국악관현악, 미술교실 등 전교생 1인 1예능활동 지원
 - 교육 기자재 지원, 지역 예술단체 연계지도 등 통합적 지원
 - 문화예술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선정된 학교 4년간 지속지원

-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 체험·감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600여 개 프로그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넘어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강화 필요

□ 조치계획

- 지자체 공무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개최('14.8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교무·학사 행정관리 및 학생의 학습권 강화, 입시제도 관리, 학생 장학·복지 증진 제도개선 시 학생의 면학욕구 및 만족도를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학교 운영 추진
- 국내외 우수 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및 공동사업 추진으로 선진 예술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제교류, 대외협력 분야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

□ 주요 성과

- 세계 유명콩쿠르 수상 및 최정상급 발레단 입단, 주역 데뷔 등 한국 예술교육의 위상 강화(64개대회 150회수상, '13.3분기 누적기준)
- 합리적인 교무·학사 운영체계 추진으로 교육의 질 개선
 - 문화예술교육 수요증가, 전공 세분화를 고려한 전임교원 채용(4명)
 - 전임교원 승진, 재임용 평가제도 개선으로 객관성 확립('13.2월, 5월)
- 교과과정 편성 및 행정서비스·제도개편 등 재학생 만족도 제고
 - 문화예술교육사 2급과정, 이러닝 교목신설 등 사회적 수요 반영
 - 재학생 교육만족도를 반영한 강의평가지침 개정('13.6월), 학점관리 졸업사정시스템 구축('13.11월), 학사행정시스템 기능 개선(26건) 등
- 인재 유치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추진
 - 외부평가위원 풀(pool), 특별전형 등 전형자격 심사절차 강화로 입시 공정성 제고('13.10월)
 - 장학금 3,588명 수혜(전년대비 12.4%증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시설 개선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체 학습공간 마련
 - 서초동교사 증·개축 예산 및 대체학습장 조성 예산 확보(41억원)
 - 학습장 보수 및 환경개선(23건), 서초동교사 기숙사 추가확충(20세대)

- 예술영재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 예술영재 선발·교육(166명, 수상 130회), 예술영재교육자 연수 및 예술영재캠프 등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180명)
- 국내외 주요대학과의 협력, 우수예술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국내 학점교류 및 공동연구·학술회의 개최 등 교류학습(14개교)
 - 해외 문화예술교육 기관과 교류협력사업 추진(ALIA, AMA, AMFEK)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합리적인 교육계획의 수립을 통한 실질적인 창의·인성·예술 교육을 실현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와 창의성과 지혜를 갖춘 예술 인재 육성의 교육목표를 달성
- 전통예술을 통한 지역교류 및 사회 기여 활성화 등 국립학교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함께 예술 재능 기부 등 실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함

□ 주요 성과

- 교육계획 심의 등 계획 수립 과정의 구체화 및 체계화
 - 학교중장기발전계획과 전년도 교육활동 평가('12년 11월) → 201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수립위원회 활동('12년 12월) → 교과별·부별 협의회 실시('13년 1~2월)→ 학교중점교육목표 및 교육계획 수립('13.2월)
- 지역과 학교를 묶는 배움터 네트워크 구축
 - 강남구청, 개포동 등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 및 교육 실천 활동 전개 (5회, 164명)
 - 서울시교육청, 미국대사관, KBS, 국군지휘통신부, 교육부, 강원도 화천군 등과 협력을 통한 교육활동의 장 확대(13회, 354명)
 - 개포도서관과 MOU체결을 통해 기관단체도서 대여(월 120~180권)
- 예술능력 함양과 국악의 대중화를 실천하기 위한 체험활동 전개
 - 목덕예술제(5월), 한중교류음악회(6월), 전공이습회(7월), 목덕한마당(11월), 개포골 국악한마당(11월), 전국순회공연(11월, 12월), 소리샘예술제(12월) 등

- 공연활동을 통한 국제교류로 한류문화 확산에 이바지
 - 자매학교인 중국음악학원 부속 중등음악전과학교와 교류공연(5월, 북경)
 - 소리샘예술단 해외공연(9월, 프랑스 및 영국)
- 개인별 학습, 협력적 협동학습, 집단적 협력학습, 개인별 발표수업, 상호 발표와 분석을 통한 학습 등 다양한 예술학습 실시
- 학생 개인 능력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진로·적성에 맞는 다양한 심화과정 방과후 학교 운영
 - 개인별 맞춤형 전공 심화과정 운영(연 1,585명 교육)
 - 전공외 특기적성 함양을 위한 과정 운영(연 135강좌 운영)
- 학생주도의 인성교육, 자기주도학습 전개
 - 손편지 쓰기 행사, 체육대회 등 학생회 주도의 프로그램 마련
 - 학습플래너 제공, 자기주도적학습상 및 다독상 신설 등
- 재능기부 등 “소통하고 참여”하는 국악예술교육활동 강화
 - 초등학교와 소외계층대상 전통음악교실 운영(여의도초교외 17개교, 성빈센트다문화센터 등 총 2,562명 참가)
 - 전공을 살린 재능기부 봉사활동 실시(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 <2012년>청소, 일손돕기 등 ⇒ <2013년>공연을 통한 재능기부
- 종합예술관동 신축추진으로 교육환경개선
 - 추진일정 : 설계 2012년, 공사 2013. 6월 ~ 2015. 2월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건축면적 1,354㎡, 연면적 5,329㎡)
 - 소요예산 : 10,734백만원
 - 공 정 율 : 15%(흙막이 가시설 및 토공사 완료)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목표의 적극적 설정 필요(입상실적 목표치 92건/달성 139건)

□ 조치계획

- '11~'13년 실적치를 분석하여 '14년도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프로그램 개발 등 아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여론의 관심을 가짐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제목의 총체극으로 국내외 아리랑을 널리 알림
 - 서울시교육청과 협업으로 우리춤 우리가락으로 된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아리랑 체조’를 개발하여 학교 등지에 보급 기반 마련
-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 이해교육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
 - 체코 국립음악원, 중국 성도 국제청소년음악제, 일본 아이라시와 전통예술교류활동을 통한 국제이해, 글로벌 인재육성
 - 대만지선고등학교와 총학생회 문화예술교류활동
-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
 - 금천경찰서와 MOU 체결 청소년선도프로그램 ‘두드림’운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 및 선도교육 참여
 - 금천구 주민과 함께하는 한류예술축제로 관내 소외계층 등 문화예술 향유층 확대에 기여
- 2013년도 성과지표 달성
 - 2013년도 경연대회 및 대학진학율 목표치 달성
 - * 학생수 177명 상급학교 진학생 162명 진학 67%에서 91.5% 달성

□ 주요 성과

- MBN 등의 뉴스 보도
 - 아리랑 공연 및 아리랑 체조에 관련된 기사 보도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 교실의 축소 운영
 - 평소 수업 기간 중에 공연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전년에 비해 불가피하게 축소하여 운영

□ 조치계획

-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공연을 실시하여 국악의 저변확대에 노력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각 사업의 기본추진계획 수립단계부터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과 추진일정과 예산, 세부계획 등이 면밀하게 반영되었고, 사업수행 주체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음

□ 주요 성과

- 전통예술 원형 복원 및 재현 : 연 5개 과제 복원

단체명	과제명	지원예산	재현공연	홍보결과
채수정예술단	"동편제 심청가"의 복원 및 재현	44,600천원	공연 1회, 세미나 1회	관람객 : 230명 지면 3건, 온라인 12건
(사)동북아음악연구소	"전라 우수영 들소리" 복원 및 재현	38,400천원	공연 1회	관람객 : 800명 지면 9건, 온라인 12건
(사)경기도산이제도당굿연구회	"이용우 산이 전승 경기도동막도당굿" 복원 및 재현	37,200천원	공연 1회	관람객 : 550명 지면 2건, 온라인 8건
광주광지원농악보존회	"남한산성취고수악대" 복원 및 재현 사업	41,300천원	공연 1회, 세미나 1회	관람객 : 1,000명 지면 29건, 온라인 14건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	"숫대쟁이패" 복원 및 재현	41,000천원	공연 1회, 세미나 2회	관람객 : 2,500명 지면 1건, 온라인 5건

- 전통예술분야 창작활동 지원

-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개최, 전통예술 실험무대 개최(3개 극장, 30회)

- 전통예술 대중화 및 산업화 지원

-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한국청소년예술제 개최(총 2건)
- 계기별 행사 지원(연 건), 전통예술 산업콘텐츠 개발(2건)
- 전통풍물활성화, 외국인국악활성화(국제국악연수, 청소년전통예술단 해외공연)
- 해외레지던시, 텍스트번역, 아리랑세계화사업 추진

- 국악방송은 유일한 한국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개발, 방송함으로써 공익적 기능과 역할 수행 - 문화의 다양성 추구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대중화에 기여하는 등 국민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국악방송 청취자 만족도'는 국악방송 운영사업의 지표로는 적절하지만,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의 성과지표로서는 부적절

□ 조치계획

- '14년부터 과제 또는 지표 조정을 통해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국악 원형 복원과 재창조를 위한 브랜드 작품의 완성도 제고 및 고궁공연 등 신규작품 추가 개발을 통해 국악공연의 전통성 강화
- 소외 지역·계층 문화수요충족, 국악교육 내실화, 생활국악 보급을 통한 국악대중화 실현과 전통예술을 활용한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한류확산 기여
- 근·현대 국악사 기록, 국악기 연구, 국악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한국음악학 연구 기반 조성 및 보유자료의 대국민 활용 활성화 여건 조성

□ 주요 성과

[국악 종가로서 위상 강화 및 문화유산의 가치 전파]

- 대표브랜드 작품의 완성도 제고 및 신규 작품 개발
 - 검증된 작품의 정례화 및 고품격의 브랜드공연 신규 제작
 - 총 7작품 17회 4,996명(소리극 ‘아리랑’, 창극 ‘홍부와 놀부’ 신규 개발)
- 특성화된 기획으로 국악공연의 감동 제고 및 대외협력 강화
 - 연희풍류극장 개관 계기 기획·정기·상설공연 다양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객석점유율 89.9%(12년 대비 11.4%▲), 관람객만족도 92.2%(12년 대비 23%▲)
 -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및 대외협력공연 개최
 - 고궁공연 27회 9,280명, 대외협력공연 25회 4,408명
- 연주단 역량 제고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기관 경쟁력 강화
 - 연주단 운영 제정비, 신규단원 채용 및 단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연주단 운영 규정 등 제정비, 감독·단원 등 31명 채용, 교육 77회 실시
 - 연희풍류극장 건립 및 중장기 시설개선 연구용역 추진
 - 연희마당(600석), 풍류사랑방(130석) 등 2,726㎡(지하3층, 지상1층)

[국악으로 선도하는 문화 나눔 및 한류 확산]

- 국악공연 및 교육확대로 소외 지역·계층의 문화향유권 증진
 - '국악을 국민속으로' 등 문화 소외·계층 대상 공연 개최(92회 31,363명)
 - 가족·청소년·유아·장애인 대상 체험·교육사업 확대 운영(228회 25,184명)
 - 다문화·해외교포 등 한국체험 및 국악동아리 연수 시행(55회 1,886명)
- 전통예술을 활용한 한류확산의 가능성 확인 및 문화경쟁력 제고
 - 수교기념 및 문화교류를 위한 해외공연, 해외관광객 대상 공연 개최
 - 한-인도 수교 40주년 기념공연 등 해외공연 38회 18,565명
 - 부산방문 해외관광객 대상 공연 37회 6,363명
 - 해외 한류거점지역 국악강습 및 외국인 대상 강좌·체험 추진
 - 해외국악문화학교 9개국 343명, 국내거주 외국인대상 강좌·체험 54회 1,486명
- 정규교육과정 음악교육 내실화 및 대외 국악 이미지 제고
 - 교원·공무원·기업 맞춤형 국악연수 실시, 국악 전문 교양강좌 운영
 - 국악연수 35회 1,666명, 국악아카데미 5회 345명
 - 온라인 국악교육 콘텐츠 제작 및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제고
 - 3D 애니메이션 1건, 온라인 교육콘텐츠 2과목, 모바일 콘텐츠 1건
- 국악인재 육성 및 생활국악 소재 발굴을 통한 국악저변 확대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예술단 운영 및 경연대회 개최
 - 청소년 국악예술단 113명 운영, 국악동요제·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등 4회 개최
 - 체육분야와 연계한 생활국악 개발·보급으로 국악의 친밀감 제고
 - 프로축구 연맹 주제곡 및 응원가 4곡, 태권도 시범단 배경음악 제작·보급
 - 온라인 홍보효과 지속 증가 및 이용 연령층 확대
 - 국악원 SNS 방문자 '12년 408,746명 ⇒ '13년 658,230명(12년 대비 61%▲)

[한국음악학 연구 중심으로서 기반 조성]

- 국악학 연구기반 조성 및 근·현대 국악사 정립
 - 국영문 학술연구서 발간, 기록 음반제작, 학술상 시상, 학술회의 개최
 - 『국악원논문집』, 『월북국악인연구』 등 연구서 8종 발간, 제2회 국악학술상 시상
 - '동아시아 음악교류 및 음악고고학의 성과와 과제' 등 국내외 학술회의 4회 개최
 - 지역의 음악자원을 특화한 연구서 발간 및 학술회의 개최
 - 『국립민속국악원 20년』, 『남도국악원총서』, 『영남춤사위 용어편람』 발간

-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5주년 세미나 등 학술회의 4회, 기획음반 3종 제작
- 국악기의 정통성 확립 및 제작환경 조성
 - 고악기 연구, 국악기 기초과학·산업기반 연구 및 악기제작 체험
 - ‘편종·편경 유물악기 음향특성 연구’ 등 5건, 국악기음향세미나 1회
 - 청소년 국악기 제작체험 8회
 - 악기연구소 연구결과 및 개발악기 기획전시(1회)
- 국악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 국악유물 수집·선정 및 소장 자료 관리 체계화
 - 유물자문 및 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유물 수집·선정 전문성 제고
 - 소장 유물·자료 DB 구축(121점) 및 소장품 대여·열람, 규정 개정 등 관리 강화
 - 국악박물관 기획전시를 통한 국악유물 위상 및 가치 제고
 - ‘겨레의 노래, 세계의 노래 - 아리랑’ 기획전시 (26,490명 관람)
 - ‘해외국악유물 초청 특별전’ 개최(325,125명 관람, 8회 공연, 7회 교육)
 - 국악아카이브 보유자료 디지털화로 온라인 제공 콘텐츠 다양화
 - 동영상·음향·사진 등 15,213점 디지털화
(보유자료 총 197,835점 / 디지털화 비율 ‘12년 21.9% ⇒ ‘13년 28.9%)
 - 국악아카이브 보유자료 이용권한 확보 및 공공활용 기반 조성
 - 자료수집 약 8,500점, 기록물 등록 17,476점, 권리처리 826건, 이용허락 46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13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4/4분기 시행 예정이었던 30개 공연·교육·연구사업 취소에 따른 국악원 이용객 수 목표치 미달
- 공연작품의 자체 제작 역량 강화 및 공연작품의 활용도 제고
 - 4개월 제작 작품의 투자비용과 기간 대비 공연효율을 높이고,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교류공연을 적극 검토
- 합주·군무 중심의 공연운영 외 내부단원의 역량 발휘 기회 제공 등 대외 인지도 제고 전략 수립 필요
- 국사, 국악 등 전통문화에 대한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교 국악교육을 정상화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국악교육 정책 연구 기능 강화 필요

□ 조치계획

- 정부재정상황 등 외부 변동요인에 따른 사업추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체계 마련
 - '14년 업무계획 수립에 따른 개별사업 시행계획 및 집행 조기추진
- 일회성 공연 지양, 중장기공연 지향 및 브랜드 작품의 지방 대도시 순회공연 추진('14년)
- 국악연주단 단원 중심의 '젊은명인' 육성 추진('14년)
 - 우리 원 단원들을 위한 연중 기획공연으로 역량 강화에 기여
 - 독주, 독무, 중주, 군무(2~3인) 작품 중심의 공연 추진
- 학교 국악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악교육협의회' 재구성 및 교과서 수록용 표준악보 제작('14년)
 - 국악교육 현안 논의 및 실효성 있는 국악교육정책 협의
 - 교과서 수록용 표준악보 제작·배포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조성 추진으로 민간자본의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유도
 - 정책적 육성분야이나 수익이 저조한 분야로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콘텐츠에도 제작자금을 조달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 특히, 올해의 경우 투자가 저조한 장르(애니메이션, 공연) 및 제작 초기단계 프로젝트, 재무적 출자에 대한 중점펀드 조성 추진
- 완성보증 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콘텐츠기업 제작 활성화 유도
-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및 종합적 금융지원(융자, 투자, 컨설팅 등) 시스템 구축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창립총회개최10.31/법인등기 11.21)을 통한 영세콘텐츠 업계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
- 모태펀드 투자재원 확충('14년 200억), 완성보증계정 국고 추가 출연('14년 20억)등 다양한 금융·투자 지원정책을 통해 콘텐츠업계에 안정적인 재원 공급 기반마련

□ 주요 성과

- 모태펀드 신규출자 300억원을 통해 총 760억원 규모 투자조합 추가 조성
 - 민간 출자가 저조한 애니메이션(210억원) 및 공연예술(150억), 제작 초기(200억원) 분야 중점 펀드 조성
 - 재무적 투자자 매칭펀드(200억원) 신규 조성하여 금융권 등 재무적 출자자의 콘텐츠 투자 유도
 - 영화계정을 통한 영화 다양성 투자펀드 150억 추가조성

[2013년도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조성내역]

구분	조성 분야					계	
	애니만화	재무적출자	제작초기	공연예술	한국영화		
문화 계정	출자규모	120	120	140	100	-	480
	결성규모	210	200	200	150	-	760
영화 계정	출자규모	-	-	-	-	100	100
	결성규모	-	-	-	-	150	150

○ '13년 11월말 현재 총 50개 조합 총 1조 4억원 규모(문화계정 9,384억, 영화계정 620억)의 펀드 조성·운영 중

- 결성된 조합을 통해 현재까지 총 1조 1,931억원 투자

* 모태출자 : 3,903억원, 투자승수 : 2.56배

○ 특히 국내 상업영화 중 모태펀드 투자영화의 비중이 평균 85%(작품 수 기준)로 나타나는 등, 콘텐츠 산업의 주요 투자재원으로 기능

<한국영화 극장 매출 및 모태펀드 영화 투자액/영화 비율>

(단위 : 억원, %, 영화진흥위원회 및 KVIC 자료 재구성)

구분	한국영화 극장 매출	모태펀드 영화 투자액	한국 상업영화* 중 모태 투자 비율	주요 투자작*
2006	5,906	-	-	추격자, 7급공무원, 과속스캔들, 놈놈놈, 최종병기 활, 해운대, 국가대표, 아저씨, 도가니, 씨니, 조선명탐정, 광해, 은밀하게 위대하게, 7번방의 선물, 건축학개론, 늑대소년, 도둑들, 베를린, 설국열차 등
2008	4,123	463	56%	
2010	5,445	925	76%	
2012	8,556	1,543	85%	

* 다양한 장르, 제작규모의 영화에 투자되어 전반적인 영화 산업 성장을 견인

* 국내 상업영화 : 전국관객 10만명 이상 영화

○ 신규예산 200억을 모태펀드 출자예산으로 확보하여 문화산업 투자조합 신규조성 추진

○ 완성보증 절차 간소화 (5억원 미만 콘텐츠 추천위원회 생략) 및 한 기업당 지원범위 확대 (30억→50억) 등 제도개선

- 5억 미만 소액보증신청의 경우 추천기관(콘텐츠진흥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운용지침 개정

- * 완성보증 지원실적 : ('12년말) 782억원 ⇒ ('13년말) 1,223억원
- * '10년 144.3억 ⇒ '11년 261.3억 ⇒ '12년 375억 ⇒ 13년 441억으로 보증실적 지속 증가세
- 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창립총회 개최 등 설립 추진
 - 설립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7.11) 개최
 - 창립총회 개최(10.31) 및 법인설립인가(11.15), 등기 완료(11.21)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투자 시장여건 및 상황을 고려한 재원조성계획 수립 필요
 - '13년도 모태펀드 일부 출자분야의 경우 콘텐츠 투자시장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운용사가 선정되고도 최종결성 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 글로벌콘텐츠(출자규모, 투자조건 등에 따른 민간 출자자 모집실패)
- 향후 콘텐츠 분야 재원조성계획 수립 시 국내외 민간투자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축인 문화기술의 진흥체계 개선 및 전략적인 문화기술 R&D 추진을 통해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핵심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기틀을 강화함
- 제2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창조경제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제시
- 영화, 애니·캐릭터, 음악, 게임, 뮤지컬 등 글로벌 킬러콘텐츠 분야의 R&D 추진을 통한 문화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성과창출

□ 주요 성과

- 문화기술 R&D 추진기반 및 추진체계 강화
 - 제2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을 통해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문화기술 차원의 구체적 전략 제시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참여(핵심과제로 '문화·관광·콘텐츠 첨단화 포함)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한 문화기술 R&D 위상 및 추진근거 강화
 - 정부조직개편 등 대외환경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사업개편 추진 (내역사업 5개 → 3개) 및 예산확대('13년 395억원 → '14년 459억원)
- 핵심 문화기술 확보 및 성과창출의 효율성 확보, 가시적 성과창출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CT R&D 과제지원 60개 지원
 - 특허 등 주요 성과에서 국가 R&D 평균 대비 2배 수준의 효율성 확보
 - 국내 최초의 Full 3D 입체영화 '미스터고', 국내 최초의 스토리텔링 SW '스토리헬퍼' 공개 등의 기술활용성과 창출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존의 일반적인 디지털 콘텐츠 분야중심, 경제성장 목적 중심의 R&D 체계를 넘어서는 문화기술 R&D 추진 필요

□ 조치계획

-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다양한 문화기술 R&D 추진
 - 디지털콘텐츠 기술중심에서 탈피한 신산업 창출형 융복합 R&D 강화
 -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R&D 추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콘텐츠 산업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해 현장밀착형 도제식 창작훈련, 산업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 등 '융복합형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목표에 부응하는 다양한 창의인재 육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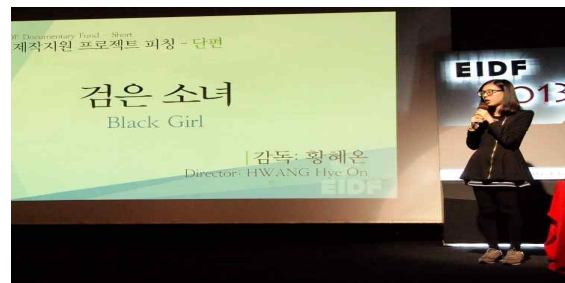
□ 주요 성과

- 콘텐츠 분야 전문가(멘토)와 창의교육생간 장기간의 도제식 창의숙성 멘토링을 통해, 청년 인재의 창작능력 개발과 일자리 창출
 - * 창의인재동반사업 ('13년 4,475백만원) 만화, 영화, 스토리, 방송 등 8개 플랫폼기관, 멘토 105명, 창의교육생 232명 멘토링 교육(9개월, 1인당 월100만원 훈련비 지급)
 - * 멘토-교육생간 다양한 현장 프로젝트(약 290건)를 수행하며 창작역량 강화
 - *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GFCC)에서 선정하는 2013년 글로벌 혁신사례로 채택

- (주요멘토) 이두호(만화가, 머털도사), 이성강(애니 감독, 마리아이야기), 이성규(다큐감독, 오래된 인력거), 윤태호(웹툰 이끼, 미생), 신춘수(뮤지컬 지킬앤하이드, 맨오브라만차)
- (주요성과) 한정석(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앙코르 최우수상, 한국초연 성공후 일본진출), 김원모(제10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트래블링쇼츠인코리아 경쟁부문), 조미연/전미현(서울뮤지컬페스티벌 최우수작품상 수상), 주병상 (제11회 대한민국 창작만화 공모전 카툰부문 최우수상) 등



뮤지컬 사랑꽃 공연 (구지영 교육생)
(DIMP 대상 수상)



황혜온 교육생 작품(검은소녀) 피칭현장



주병상 교육생 작품 <영혼살인>
(제11회 대한민국 창작만화 공모전 대상 수상)



황혜훈-송규학 교육생 작품 <라스트로열패밀리>
(제2회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 앙코르 최우수작)

○ 현업인 직무교육, 전략지역전문가 해외연수 등을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콘텐츠기획/디자인/제작/비즈니스워크숍 등 현업인 직무교육 5개 과정에서 191명 교육
- * 전략지역전문가 해외연수 3개 과정에서 53명 교육 : 일본 뮤지컬('13.5월, 21명), 미국 KPOP('13.10월, 15명), 베트남 게임('13.10월, 17명)

○ (주요성과) 유인수(연우무대 대표, 연수에서 만난 일본 어뮤즈社와의 비즈니스 미팅결과 일본 '어뮤즈뮤지컬씨어터' 공연 계약체결), 오정학(서울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사무국장,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서울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의 국제마켓 개최 등 프로그램 구성완료), 류호석(비손콘텐츠 대표, 비즈니스 미팅 결과 구글 뮤직과의 계약체결)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멘토링 종료 후 교육생 경력경로의 면밀한 관리 및 후속 지원 확대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필요

- * 대학생 등 예비인력의 지속적인 배출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는 전문경력직 선호 등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창작인력은 부족

<콘텐츠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현황(100명당 부족률)>

(단위 : 명)

구분	창작	기획	제작	기술	사무	전체
인원	7.1	5.9	6.2	6.7	2.7	5.9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의 창의인력육성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2010)

□ 조치계획

- '12~'13년도 창의인재 동반사업 수료생 전체를 대상으로 경력경로 추적 조사 실시 (~2014.2)
 - 경력개발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후속지원방안을 '14년 사업에 반영 예정

- * 교육생 공동 협업창작 지원 확대, 투자피칭 강화 등 차년도 사업에 반영예정
- 창의인재 동반사업 Post 창작 지원사업 시범추진(청년 창의프로젝트, '13 추경사업)
 - 젊고 재능 있는 창작자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제작, 발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25억원)
- 산업계 수요에 맞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현업 교육과정인 스마트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기획프로듀서양성 신규 추진
 - 스마트콘텐츠전문인력 : 앱개발과정 등 22개과정, 520명 수료
 - 기획프로듀서양성 : 프로젝트 기반 기획창작과정 등 2개과정, 27명 수료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교육중심의 전략지역전문가 해외연수를 한류콘텐츠 수출인력 양성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 과정으로 전환
 - * 한국 창작뮤지컬의 일본 뮤지컬 산업계 진출('13.5월, 21명), KPOP의 미국 시장 진출 ('13.10월, 15명), 한국 게임의 베트남 게임산업 진출('13.10월, 17명)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2013년도에는 영화분야 연간 영화관객이 사상 최초로 2억 명을 돌파(12.18)하였고, 온라인 영화부가시장도 2013년도 상반기에만 전년도 동기 대비 30.4% 성장하는 등 산업 성장 지속
 - * 한국영화 연간 관객이 2년 연속 1억 명을 넘었으며, 한국영화 점유율은 59.7%, 500만명 이상 관람한 영화 8편 탄생('7번방의 선물'(1천만 명), '관상', '설국 열차', '베를린', '은밀하게 위대하게', '숨바꼭질', '감시자들', '더테러라이브')
- 또한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은 수출 6.2억 달러(전년대비 10.2% 증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 매출액도 8.7조 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라바>, <로보카 폴리> 등 국산 애니메이션·캐릭터의 성공사례 지속적 출현효과
 - * <라바> 매출액 10억 원('11) → 20억 원('12) → 70억 원('13)
<로보카 폴리> 매출액 10억 원('11) → 45억 원('12) → 83억 원('13)
- 국내 게임산업도 전년대비 9.9% 성장해 매출액 10조원 시대를 열었고, 수출 역시 29억 달러(전년대비 11.2%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는 특히 모바일 게임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것으로 올해 다운로드가 2,000만 건이 넘는 게임이 2개(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1,0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게임 8개 출현
 - * 모바일게임 매출 : 4,236억 원('11) → 8,009억 원('12) → 12,125억 원('13)
- 음악산업 수출도 전년대비 17.1% 증가해 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매출액도 4.4조 원(전년대비 10.3% 증가)을 예상 또한 음악분야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음악 저작권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 뮤지컬 매출은 2,600억여원으로 전년대비 6% 증가 예상
 - 올해도 대형 라이선스 공연의 강세가 이어졌으나, ‘그날들’, ‘해를 품은 달’ ‘디셈버’ 등 다양한 중·대형 규모의 창작뮤지컬 제작으로 창작뮤지컬 콘텐츠 강화 및 관객 증가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둠
 - 아울러 재정 지원(40억)을 통해 내용상·규모상 다양한 창작뮤지컬의 제작 공연과 창작뮤지컬 콘텐츠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주요 성과

- 장르별·분야별 핵심콘텐츠 육성 및 창조경제 실현과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유관부처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각 장르별·분야별 주요 성과 달성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MOU 체결(미래부-문체부, 6.4)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수립(미래부 합동) 및 발표(7.4/경제관계장관회의)
 - 문체부 - 미래부 국장급 정책협의체 운영(8.1~)
 - 문체부 - 네이버 문화융성 및 건전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 체결(8.22/네이버 기금 500억 활용)
 - 현장소통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문화융성위원회 산하 ‘문화산업 전문위원회’ 발족(9.5~/민간전문가 9명 참석)
 - 문체부 - 미래부 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워크숍 개최 및 모바일 콘텐츠 상생협력 MOU 체결(10.7/문체부-미래부-카카오)
 - 문체부 - 미래부 콘텐츠 업계 초청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 개최 (11.12/스마트콘텐츠 육성전략 발표)
 - ‘콘텐츠 진흥전략 추진단’ 구성 운영(12.2~)
 - * ①투·용자, ②영화, ③방송, ④음악, ⑤뮤지컬, ⑥게임, ⑦스토리, ⑧애니/캐릭터, ⑨만화, ⑩패션, ⑪출판 등 문화융성위원(위원 및 전문위원) 및 장르별 전문가로 11개 분과 구성,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정책 과제 발굴
- (영화) 한·중 공동제작협정 가서명 체결(‘13.6.7)로 중국 영화시장 진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국과의 합작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는 경우 중국에서 자국 영화(중국의 대표적인 영화시장 규제인 외국영화 수입쿼터제의 미적용)로 인정되어 한국영화의 중국시장 진출 용이
-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 지원으로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 * <미스터고 3D> 등 5편 선정, 총 15억원 지원
-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영화 전문투자조합 결성('13.9.10/150억원)을 지원(100억원 출자), 민간 투자가 어려운 다양성영화를 활성화 하여 한국영화의 저변 확대
- IPTV 및 케이블TV 사업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 정보제공('13.1월, 월단위 매출정보 공개 합의)
 - * KT미디어허브, SK브로드밴드미디어, LG U+, 홈초이스 참여
- (음악)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으로 종사자 권익 강화
 - K-POP 공연장 건립 MOU 체결(4.30), 음악창작소 구축 MOU 체결(8.30), 대중문화예술분야(방송제작,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 발표(7.30), 서울국제뮤직페어 개최(10.10~12), 신인 뮤지션 육성지원 K-루키즈 파이널 콘서트(11.28/6개팀 참여)
- (애니/캐릭터) 애니메이션 전문펀드 결성을 통한 지원강화 기반마련
 -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 지원(122억원, 46편), 국산 캐릭터 개발 및 유통 지원(110억원, 81개), '13년도 캐릭터라이선싱 페어 개최(7월), 애니메이션 전문펀드 210억 원 결성(8.30), 불법 캐릭터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10월~)
- (게임) 인큐베이팅, 모바일게임 육성으로 국내게임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게임산업 성장에 기여
 - 중소 게임개발사 등 총 53개사 인큐베이팅 지원 중(글로벌게임허브센터, '13.12월 기준),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사업 지정·자유공모 의료·공공 분야 등 12편 개발 지원('13.3월~),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퍼블리셔(3개사)-중소개발사(17개사)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13.8월~), 대구 모바일게임 센터 구축 및 운영('13.11월~),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13.12월)

- (뮤지컬) 창작뮤지컬 지원 대폭 확대
 - 창작뮤지컬 지원(30억원, 재공연 11편), 창작산실 지원 (10억원, 대본 5편/시범공연 7편/제작공연 4편)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영화)한·중 공동제작협정 본서명 체결 중국 측 일정 변경으로 지연
- (음악)방송출연 표준계약서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효성 확보 노력 필요
- (애니/캐릭터)글로벌 시장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 애니메이션 강국(미·일)과 후발국가(중국·동남아) 사이에서 차별화 전략 미비
- (게임)게임 관련 각종 법률 등 부처의 규제와 지원을 일원화 필요성 대두
- (뮤지컬)국내 창작뮤지컬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조치계획

- (영화)한·중 공동제작협정 본서명 조기 체결("14년 상반기)을 통한 중국 영화시장 진출 확대 추진
- (음악)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애니/캐릭터)중국·동남아 시장 해외진출 지원 예산 증액으로 시장 개척 지원 예정
 - * 애니메이션·캐릭터 해외전시마켓 참가 지원(1,500백만원 → 2,350백만원)
- (게임)게임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관계 부처, 국회 및 업계와 지속적 협력 추진
- (뮤지컬)국내 뮤지컬 예산 지원 확대 및 제작 공연 기반 환경 지속 구축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영화분야 노사정 협약 체결,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발표 및 보급 등으로 영화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와 불공정거래 개선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으로 상생환경 생태계 확립
- 미래부 등 유관부처 및 콘텐츠 업계와 지속적 협력을 통한 상생 콘텐츠 환경조성,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거래 확립, 지역문화산업기관 지원 확대를 통한 문화콘텐츠 확산,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운영을 통한 콘텐츠 업계 지원 강화 등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상호협력과 지원 추진

□ 주요 성과

- 한국영화 동반성장 부속합의문 발표('13.4.11) 및 영화스태프 노사정 협약 체결('13.4.16),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 체결('13.5.16) 로 영화산업 공정성 확보
 - 영화분야 협약사항 이행점검 위한 영진위 산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 지속 운영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 *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 연중 운영, 쌍방향 모니터링이 가능한 신고센터 운영으로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접수건수 증대('12년 4건→'13년 7건)
 - 영화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 체불 금지, 근로시간 명시 등 근로 여건 개선
 - * 한국영화 동반성장 부속합의문 : 영화진흥위원회,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주)CJ CGV, (주)CJ E&M,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전국영화산업노조 등 참여

- * 영화 표준근로계약서 : '13.10월 현재, 제작 중인 영화들이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시작('국제시장', '관능의 법칙', '타짜2' 등), 전국 140개 영화관에서(44.6%) 표준 상영계약서 적용 사용
 - * 표준근로계약서 적용으로 스태프 임금수준, 처우 향상(언론보도 : 이투데이 8.23, 중앙일보 9.4, 한겨레 10.15, 서울경제 10.17)
- 독립영화 제작을 위해 총 56편, 12억원, 독립영화 제작지원작 개봉 및 영화제 수상(국제영화제 초청) 실적은 21건으로 목표치를 달성함
- * 장편독립영화제작 지원 시 스태프 인건비로 25%이상 집행유도
 - 대중문화예술분야(방송제작,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 발표(7.30)
 - * 방송사,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 참여
- 유관부처 및 콘텐츠 업계 등과 협력을 통한 상생 콘텐츠 환경조성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수립(미래부 합동) 및 발표(7.4/경제관계장관회의)
 -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방안'수립(미래부 합동) 및 발표(9.12/대외경제 장관회의)
 - 문화융성 및 건전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체부-네이버 MOU 체결(8.22/네이버 기금 500억원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 및 활용)
 - 문체부-미래부-카카오 콘텐츠산업 육성 위한 모바일 콘텐츠 상생 협력 MOU 체결(10.7)
 - 콘텐츠 창의생태 협의회 개최(7월, 11월, 12월, 3회 개최)
 - * 참석 : 중소 콘텐츠업계, 유통업계(방송사, 포털사, 통신사) 관계자 등
 - * 내용 : 중소 스마트콘텐츠기업 사례 공유, 스마트환경 정책방향 논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 현황 분석 및 공정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워크숍 개최(9.13, 문체부미래부 합동)



제3차 창의생태계 협의회 개최(문체부-미래부-콘텐츠 업계 등 참여)

- 문화콘텐츠 조성 기반 강화 및 기초 분야 지원 확대 추진
 - 예술 독립영화 등 다양성 영화 지원 강화(56편, 예산 12억원), 애니·캐릭터 분야 가족 영상물 제작 확대(11편, 예산 30억원),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지원(5편)
 - 애니메이션 전문펀드 210억원 결성(8.30),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영화 전문 출자펀드 결성(15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재원 확보(200억원), 완성보증 지원과정 간소화 및 보증지원 규모 확대('13.7~), 콘텐츠공제조합 설립(10.31) 및 운영을 통한 영세 콘텐츠 업계 지원 확대
 - * 모태펀드 문화계정 누적 운용현황('13년 11월말)
 - 총 3,583출자, 총 9,384억원 결성(45개 자조합), 총 1조 1,221억원 투자
 - 콘진원·영진위 등 문화산업기관 지원 확대 및 지역문화산업 지원으로 문화콘텐츠 발전 균형화 추진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콘텐츠 거래·이용 분쟁 실질 해결
 - * 콘텐츠분쟁 5,147건 접수('11년 3,445건 대비 49.4% 급증), 4,743건 처리, 404건 진행, 조정 97건
 - 콘텐츠분쟁 사전예방 활동 강화 및 콘텐츠사업자 약관 모니터링(연1회)
 - * 콘텐츠 이용민원 상담(전문상담콜센터 ☎1588~2594) : 6,430건
 - * 2012년(3,960건) 대비 62.4% 증가
 - 콘텐츠 이용보호 캠페인('13.12월~'14.01월, 매체광고 등)

< 콘텐츠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근절 및 중소 콘텐츠 사업자 보호 추진 >

- 부산, 청주, 제주 등 11개 지역진흥원과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계약 체결(2013. 7 ~ 2013. 11)
- 계약불이행 등 피해구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계약서 검토, 불법행위 피해구제, 법률 및 영업 관련 법률자문 등 408건 자문 완료
- 서울, 전남, 청주, 대구 등 총 12개 지역진흥원에서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공정거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3,316명 수료
- 콘텐츠 공정거래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 개최 및 콘텐츠 상생협력 홍보 진행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영화 및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지역문화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책 확대 및 활성화
- 게임분야 분쟁사건 증가에 따른 게임분야 전문가들의 분쟁조정위원 추가 위촉 필요

□ 조치계획

- 제도가 시작되는 초기단계이므로 정착을 위한 적정 기간 필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 및 사용권고 지속 추진
 - 영화분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신고센터를 확대·운영 및 점검
 -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안) 제정을 통한 확대 보급 추진
- 콘진원, 영등위 등 문화산업기관 연계 및 공모사업 발굴 확대
- 제2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14년 4월)을 통해 게임 분야 전문가 추가 위촉 추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 학교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2년 3,016회 → '13년 7,981회) 및 체험교실 등 확대 운영('12년 100개 교실 → '13년 193개 교실)
- (성인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확대) 대학생, 일반인 등 연령대별 교육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
- 원격평생교육시설 인가('12.12) 후 저작권 교육에 대한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실시(6회)
-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분야별 산업종사자 현장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전문 교육 실시

○ 유관기관 협업 홍보 추진 및 SNS 활용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 (문화예술인 대상 홍보 확대) 유관 기관 문화 행사 및 축제와 연계한 참여형 저작권 홍보 실시(총 4회)
- (SNS 저작권 홍보 강화) 페이스북 가입자 확대 추진 및 저작권 SNS 기자단 운영을 통한 홍보 콘텐츠 생성(약 723건)

□ 주요 성과

○ 지역 관계기관 연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

-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 6시간 이상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193개 교실)
- 학교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9개교)

- 학교, 공공기관 등 현장 방문,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실시(8,352회, 371,250명)
 -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인복지재단 연계, 중소·영세 업체 및 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10회, 277명)
 - 전국 대학이러닝지원센터와 연계, 대학 내 저작권 강의 개설·운영(영남대, 전북대, 강원대, 전남대, 인하대, 한국교원대 등 8개 대학)
 - 전국 대학이러닝지원센터 과정개발자 및 운영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총 1회, 35명)
 - 일반인 대상 입문 교육과정인 저작권 문화학교 운영(총 3회, 83명)
 - 산업 분야별 실무종사자 대상 저작권 아카데미 운영(10회, 267명)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운영(45회, 4,388명)
- **저작권 인적자원 개발·운영 및 양성 확대방안 모색**
-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운영(302회, 17,361명)
 - 저작권 강사풀 운영(325명)
 - 청소년 대상 교육을 담당하는 저작권 청년강사 운영(138명)
 - 저작권 교원직무연수 운영(1회, 17명) 및 교원연수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1회, 53명)
- **저작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의 체계화**
- 학교 보급용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7~12) 및 청소년 교육사업 평가 연구(8~12)
 - 원격교육콘텐츠 개발(16종) 및 리뉴얼(4종)
 - 캐릭터·디자인 등 산업종사자용(3종),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등 평생교육용(2종), 및 대학생용 동영상 콘텐츠(1종), 핫이슈 동영상 콘텐츠(10종) 개발
 - 청소년용(2종) 및 학부모용(2종) 교육콘텐츠 리뉴얼
 - 원격평생교육 과정 신규 개설·운영(6회)
- **SNS 활용 저작권 홍보**
- 페이스북 활용 저작권 홍보 확대추진(* '12년도 1,700명 대비 약 466% 성장)
 - 저작권 SNS 기자단 제2기 운영(총 23명, 저작권 홍보 콘텐츠 약 723건 제작)

- 저작권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 대학생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관련 홍보영상(3회)
 - 저작권 관련 행사 취재영상(3회)
 - 저작권 홍보 웹툰(5회)
 - 저작권 산업통계 활용 인포그래픽 제작(3회)
- 유관기관 및 언론사 협업 저작권 홍보(6회)
 - 언론사 : 머니투데이 [U클린 캠페인]
 - 유관기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소년 저작권 교육 방안 개선 필요
 - 청소년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청년강사(138명)를 통한 교육이 대부분(99%)을 차지하여,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교육 방안 마련 필요
- 대중매체 및 SNS 활용 저작권 홍보 콘텐츠 활용 확대
 - 최근 다변화되고 있는 스마트환경에 맞게 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저작권 홍보 필요
- 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 홍보 및 유관기관 홍보 협력 확대
 - 온라인 및 SNS 이용도가 낮은 문화예술인 대상 홍보 강화 필요

□ 조치계획

- 교원을 통한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 실시('14. 3월 ~)
 - 교과서 내 저작권 내용 반영, 저작권 체험교실 강화, 교원직무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저작권 교육 강사로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 실시
- 대중매체 활용 대국민 저작권 홍보
 - 20~30대 젊은 층을 포함한 일반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관 및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저작권 홍보영상 제작·송출('14.3~10월)

- 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 홍보 및 유관기관 홍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인의 참여도가 높은 저작권 산업 관련 행사 참여 홍보를 통한 창작자 대상 홍보 효과 제고(※저작권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 연계)
 - 관련 기관 행사 공동개최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 증진 및 협력('14.6월, 10월 예정)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집행을 통해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 및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기반 마련
 - 토렌트 등 새로운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한 온라인 기획수사 강화, 불법복제물 유통 관련 상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SD 카드 등을 통한 신종 불법복제 음원 유통에 대한 단속,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대책 마련 등
- 국외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지원센터 연계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방지 및 권리구제 지원 등 합법이용 환경조성
 - 문화원, 저작권센터 등과 연계한 저작권 합법계약 지원 및 한국 콘텐츠 권리인증, 표준계약서 제작·배포를 통한 저작권 분쟁 예방, 국제저작권 교류·협력 확대 및 현지진출 콘텐츠 업계 등과 민관협 의체 운영을 통한 한류 콘텐츠 보호체계 강화 등

□ 주요 성과

- 디지털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단속강화를 통해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망 구축 및 저작물 유통 환경 개선

◆ 불법 저작물 유통 환경 개선 성과(2013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 ◀ 불법복제 시장규모 감소 : ('10년) 5,101억 원→('11년) 4,220억 원→('12년) 3,055억 원
- ◀ 합법시장 침해율 감소 : ('10년) 19.2% →('11년) 18.8%→('12년) 16.2%
- ◀ 합법시장 규모 확대 : ('10년) 8조 9,348억 원→('11년) 10조 8,153억 원→('12년) 11조 4,963억 원



- 토렌트, 모바일 웹하드 등 새로운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한 온라인 기획수사 진행

- 토렌트 사이트 기획수사 추진(1월~9월)
 - 토렌트 사이트 10개, 호스팅업체·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 압수수색 등 불법 저작물 공유 토렌트 사이트 수사 진행
 -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 10개 토렌트 사이트에 업로드 된 238만 건의 시드파일이 약 7억1천5백만 회 다운로드 되어 저작권 침해규모는 8,667억 원으로 추산
- 모바일 웹하드 기획수사 진행 중(7월~)
 - 10개 모바일 웹하드 업체 압수 수색 및 조사(9~11월), 검찰 송치 추진(12월~)

- SD카드(효도 라디오)를 통한 불법 음원 유통 확대에 따라 재래시장, 전자상가 등 주요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 추진(10월~)

- * SD 카드 등 426건, 13백만점 수거
-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근절 대책’마련(관세청, 특허청 합동)
 - * 불법 캐릭터상품 단속 강화 및 확대, 불법 캐릭터상품 수입차단 DB 구축, 캐릭터 저작권침해 처벌 강화, 관계기관 상시협의체 구성·운영, 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 강화

○ 언론보도 상황

- (연합뉴스 1.28) 2013년도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요원 발대식
- (디지털타임스 1.28) 불법복제 꼼짝마라
- (SBS,연합뉴스 2.27) 문화부, 영화 ‘레미제라블’ 불법 게시 적발
- (연합뉴스,서울경제 3.11) 최신영화 불법복제 DVD유통 미리 막았다
- (KBS, SBS, YTN, 매일경제, 연합뉴스 5.30) 불법저작물 토렌트 운영자, 업로더 적발
- (연합뉴스 6.20) 온라인 불법복제물 감시, 장애인 250명 추가 투입!
- (연합뉴스, 서울경제 9.10) 불법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 위해 정부 합동단속 실시
- (KBS 뉴스, 중앙일보, JTBC, 11.12) 불법 복제 ‘효도 라디오’판친다...대대적 압수수색
- (SBS모닝와이드 11.14) 효도라디오, 그 이면에는...
- (MBN 11.12) 효도라디오 불법복제 심각. 문화관광부, 공급업자 쫓는 중...
- (한국경제TV 11.12) 효도라디오 그 실체는? 불법복제 트로트곡이 2천개나...

- 저작권법 위반사범 수사 및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예방 활동¹⁾,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복제·전송 중단요청²⁾, 온라인 재택모니터링³⁾ 강화 등
 - 1) ('11년) 1,116건 → ('12년) 1,803건 → ('13년) 3,559건
 - 2) ('11년) 377,549건 → ('12년) 921,211건 → ('13년) 1,661,895건
 - 3) ('11년) 263,286건 → ('12년) 412,728건 → ('13년) 1,417,409건
- 美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최근 5년 연속('09년~'13년) 제외됨
 -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주요 교역국(95개국) 지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한 "2013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우리나라는「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등의 분류에서 제외됨.
- 국외 저작권 불법침해 상시모니터링 및 침해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침해 구제조치(경고장발송, 행정처벌 지원 등) 시스템 운영
 - *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와 MOU체결(10.28)로 불법저작물 즉각 삭제 등 우리 저작물의 신속보호 협력 체계 구축
- 저작물 합법이용계약 체결 지원 강화를 통한 국내 창조기업의 환류 수입 확보 도모
 - 중국후난방송국, SBS 드라마 <태양의 신부> 리메이크 이용허락 합법유통 지원(2월), KBS 드라마 <아이리스2> 계약금 회수지원(5월) 등
 - * 한국 콘텐츠업계 합법유통 지원을 통한 수익 : 13억원('08년) → 65억원('09년) → 130억원('10년) → 250억원('11년) → 230억원('12년) → 250억원('13년 추정)
- 중국내 과도한 증명자료를 중국 북경사무소에서 발급한 '권리인증서' 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 유통 규범 간소화를 통한 중국 진출 지원
 - * 중국내 최대 통신기업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과 중국내 한국 유통사 '아이원차이나'간 합의하여 '13년 9월부터 한국 가온차트(Gaon Chart) 음원 '차이나모바일'에서 정식 유통 (현재 1,403곡 유통중)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안전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지원을 통한 거래 활성화
 - 저작권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저작권 관리정보(권리 관리정보)를 구축하고, ICN(통합 저작권권리관리정보)을 발급
 - 신속하고 투명한 저작권 거래를 위해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서비스 제공
- 개인 및 기업의 고아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원 재창출 기반 조성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도(공공누리) 확산을 통해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및 민간이용 활성화 추진
- 스마트 환경, 클라우드 등 새로운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기반 마련

□ 주요 성과

- 국내 유통 중인 저작권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ICN(통합 저작권권리관리정보) 구축 및 발급을 통한 신뢰성 있는 저작권 권리정보 제공
 - * 음악·어문·뉴스·방송대본·영화·방송·미술·캐릭터·공공 9개 분야의 저작권 관리 정보 수집·제공 : 11,392,352건('13년 12월말 기준/누계)
-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신속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저작권 이용계약 서비스 운영
 - * 음악(전송·복제), 어문(전송·복제·배포), 뉴스(전송) 거래 계약 건수 3,679건('13년 12월말 기준)
-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투명한 음원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운영
 - * 5개 음악 유통사 로그정보 수집 및 가온차트 제공(31,363백만건, '13년 12월말 기준/누계)

- 콘텐츠 산업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유저작물 소재 및 권리정보 종합서비스 제공
 - 공유저작물을 검색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공유저작물 포털 ‘공유마당’ 개편 및 공유저작물 이용(‘13년 12월말 기준 21.7만 건 구축 및 2,016,597건 이용)
 - 공유저작물 활용 사업화 지원(후무코리아, 철든아이 등 11개 기관 및 개인, 215,999건 제공)
 - 민간분야 공유저작물 권리정보 구축을 위한 디지털화 추진(‘13년 12월말 기준, 8만건)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운영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운영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 4회, 국제컨퍼런스 1회)
 - 공유저작물 운영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공동사업 실시(6회)
 - 2013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개최 및 나눔캠페인 실시(2회)
 - 소스코드가 공개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수집 및 검사·상담 서비스 제공(CodeEye 시스템 운영)
 - * ▲소스코드 수집건수 5,000만건(누적 1억2천만건) ▲검사서비스 이용건수 826건(‘13년) ▲오픈소스 라이선스 상담 188건(‘13년)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공공누리) 확산을 통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확대(‘13년 12월말 기준, 80개 기관 도입, 100여만건 등록)
 - 정부간행물 공공누리 통합 적용 및 확산을 위해 ‘정부간행물 납본(제출) 지침’ 제정 및 시행(9월)
 - 공공누리, 안행부의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책연구정보 포털(프리즘)과 연계를 통해 제도 확산 지속 추진(10월)
- 공공저작물 유통시스템 고도화 및 이미지 판매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탁 저작물 유통 채널 다변화 추진
- 스마트 환경, 클라우드 등 새로운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기반 마련

- 웹하드 등록요건에 포함된 기술평가 신청 접수(10건, 1~10월) 및 확인서 발급 8건(오디오 4건/비디오 4건)
-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기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웹하드에 대한 기술적용(95개 사이트) 점검 및 미래부 실태점검 시 우선점검 요청)
- 웹하드를 통한 카툰(웹툰, 이미지)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성능 평가 체계 마련
- 스마트화, 클라우드 등 새로운 유통 환경에 대응한 저작권보호와 이용 활성화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 R&D 과제 발굴 및 수행 (계속과제 5건, 신규과제 4건, 실용화지원 1건)
-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의 안전한 거래 및 인증 정보 활용을 통한 합법 유통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저작권 인증서비스 운영
 - 인증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영문인증서 발급 추가, 해외 진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사실 확인
- UCI 지원사업을 통해 UCI 확대 및 식별체계 저변확대
 - 주요 온라인 음원 유통사와 API로 연결하여 시장에 디지털음악이 유통되기 전에 UCI를 사전 발급할 수 있는 UCI 발급체계 일원화
 - UCI의 쉬운 적용을 위한 표준 패키지를 개발하고 창작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범용 등록관리업무 기능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활용 기반 마련
- 대국민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재활용
 - 저작권 보호분야 홈페이지 통합(4개→1개) 및 Windows, Linux 중심의 서버 가상화(12대→2대)
- 정부 3.0 정책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총 1,427만건 개방)
 - 91만건 문화정보포털 연계, 35만건 민간 기업 활용(네이버, e-book) 등
-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를 통한 저작권 기술 시장의 해외 네트워크 및 저작권 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 환경 조성
 -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11월), 저작권 기술 시상식 개최(장관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상 등 5종 시상)

* ▲전체 참가자 1,051명(2012년 700, 전년대비 150% 증가) ▲국내외 참여기관(업체) 48곳(해외 10곳(7개국), 국내 38곳) ▲해외-국내 기업간 네트워크 미팅(국내외 24업체 참여)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원 합리화) 뉴스 1차 공급자인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지원방식 및 평가지표를 합리화, 국내 미디어산업 지원제도 정비
- (뉴스미디어 경쟁력 및 공공성 강화) 법·제도 정비, 규제 완화, 뉴스콘텐츠 유료화 환경조성, NIE 확산을 통해 신문의 미래 독자 창출 등을 통해 미디어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미디어의 균형적 발전 도모) 미디어시장 여론집중도 조사, 우수 잡지 보급·지역신문 육성 등 매체의 다양성 확보
-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을 통한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정보 복지 향상

□ 주요 성과

(1)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원방식 및 평가 지표 합리화

- 뉴스콘텐츠 1차 공급자인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지원방식 및 평가 지표를 합리화하여 국내 미디어산업 지원제도 정비
 -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산정근거를 단말기에서 공적기능 준비용 보전 및 뉴스정보사용료 등으로 개편

< 정부구독료 산정방식 개선 >

- 기존방식 : 단말기 702대 * 월 418만원 * 12개월
- 개선방안

-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지위에 따른 공적 기능*에 대한 준비용 산출
→ 공적 기능 준비용 보전

* 공적기능 : △해외취재망 확충 △외국어뉴스 강화 △민족뉴스 강화 △지역 뉴스 강화 △미디어 및 뉴스통신산업 진흥 △멀티미디어 (공적)뉴스 제공

- 뉴스 서비스 고객으로서의 정부 사용료 협의 → 뉴스사용료 지급

⇒ 산정방식 개선에 따른 구독료 변화: '13년 354억원 → '14년 349억원(5억원 감액)

- '14년부터 성과지표를 '이용자 만족도'로 변경하여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공적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13년 '연합뉴스 외국어 서비스 이용도'→ '14년 '연합뉴스 이용자 만족도'

(2) 뉴스미디어 경쟁력 및 공공성 강화

○ 중소광고대행사의 정부광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광고대행사의 참여를 통한 통합 마케팅 수행 등 정부광고의 품질 제고 및 중소광고대행사 우대 방안 마련(8월)

① 중소광고대행사의 광고제작 진입장벽 완화

- △지역제한(서울소재 사업장) 폐지, △실적평가(사업수행실적, 매출규모, 재무안정성, 인력 등 항목) 폐지, △평가회(PT) 방식 개선(비용부담 완화) 등 중소대행사의 정부광고 참여 진입장벽 개선

② 중소광고대행사의 정부광고 참여 확대

- 광고대행사가 선호하는 AOR¹⁾(통합마케팅)방식 참여 확대

· AOR 방식의 적용기준 :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

- 중소광고대행사의 이익(수수료) 확대

· 대형대행사 지급 AOR 수수료 비율(7% → 6%)

· 중소대행사 수수료확대(2% → 6%) *AOR대상사업

☞ 별도 기획이 필요치 않은 20억 이상 단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협의 AOR 미적용

③ 광고주의 중소광고대행사 우선 배정 권고

- 광고주의 AOR 방식 채택시 중소광고대행사 우선 선정 유도

☞ 협조 요청사항으로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한계 있음.

④ 중소광고대행사 우대 광고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연말 업무 유공자 표창 등 동기 부여를 통한 중소광고대행사 유도

(2013 광고산업발전 유공사 포상(11.8)시, 중소광고대행사 우대 광고주 LH 공사에 국무총리표창 수여)

○ 뉴스 저작권 사업을 통한 뉴스 유료 이용 환경 조성

-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저작권료 분배율 상향(52%→55%) 조정

- 공공부문의 뉴스 합법이용 확산을 위한 라이선스 방식 뉴스상품 개발(이용기준별, 이용그룹별 가격 차등)을 통한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환경 조성 ※ '13년 뉴스저작권 판매액은 전년대비 11% 증가

1) AOR(Agency Of Records) : 민간대행사가 종합 홍보전략, 광고기획·제작 등을 담당하고, 재단이 매체 전략수립 및 구매를 담당하는 협업 방식을 의미

< 뉴스저작물 연도별 유통대행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판매액	10	507	1,447	2,699	4,127	5,782	8,721	9,700

* 뉴스저작권 이용료 현황

○ 종전 : 기관규모에 상관업은 이용매체에 따른 4그룹 가격체계

구분	이용료 (매체당/월)	내부직원용		외부홍보용	
		전자스크랩	내부게시판	홈페이지	대외발송
현재	530,000 원	11,880원 (40% 할인)	79,200원 (40% 할인)	220,000원 (80% 할인)	220,000원 (80% 할인)

○ 변경 : 이용기준 2단계, 이용그룹별 6단계 차등

- 이용기준 가격비교 (매체당/월 이용료,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기존 가격체계			변경(안)		
상품명	단가	상품내용	상품명	단가	상품내용
통합상품1	530,000	내부+웹+메일링	통합 라이선스	440,000	내부+웹+ 메일링+모바일+ 복사
통합상품2	420,000	내부+웹+메일링			
내부망 상품	151,800	내부망 게재	내부 라이선스	55,000 ~275,000	내부+모바일+복사
스크랩 상품	19,800	스크랩 및 보고용	내부망 용으로 전용 가능성 높아 판매 중단		

- 이용그룹(규모별) 가격비교 (매체당/월 이용료,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임직원	기관	내부	외부	통합
1그룹	5천명 이상	22	275,000		440,000
2그룹	2천명 이상~5천명 미만	28	220,000		385,000
3그룹	1천명 이상~2천명 미만	85	165,000		330,000
4그룹	5백명 이상~1천명 미만	176	121,000		231,000
5그룹	1백명 이상~5백명 미만	138	88,000		198,000
6그룹	1백명 미만	108	55,000		165,000

○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확산을 통한 미래독자 창출

- NIE 거점학교 확대·운영을 통한 NIE 클러스터 활성화

(‘12년 120개교→ ‘13년 195개교)

- 정규 교과와 연계된 NIE 정착. 초등학교용 NIE 교과서 개발
(초등 3~4, 초등 5~6학년용)

- 학부모 NIE 연수를 통한 가정 NIE 활성화(32개소, 1,514명 연수)

(2) 미디어의 균형적 발전 도모

- 매체 영향력의 객관적 측정을 통한 여론집중도 공개('13.7월)
 - 제1기 여론집중도조사('10년~ '12년) 결과, TV·신문·인터넷·라디오 등 매체별 여론집중도, 매체합산 여론영향력지수 등 발표
 - 다양한 여론환경 조성을 위한 미디어지형도 구축·진단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운영(2기 위원회 출범, 4.3~)
 -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6.4, 6.18 등 2회), 워크숍(5.2~5.3), 2013년 여론집중도 조사연구보고서 작성 등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파악 및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회 지속 운영
- 지역신문 경쟁력확보를 위한 지역신문콘텐츠 진흥사업 지원
 - '지역사회의 지평확장'을 주제로 한 지역신문 컨퍼런스('13.11.15/대전 컨벤션센터) 개최를 통한 지역언론인 공론의 장 마련
 - 기자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디플로마 연수(239회, 5,544명 참여), 레이아웃·서체 등 지면제작방향 개선(69개사), 신문기사 자료 디지털화 지원(27개사) 등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강화 및 뉴미디어 전환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우수잡지 선정·보급(50종), 국내 우수 잡지의 해외홍보 기회 확대(한류잡지 웹앱-K매거진 개발) 및 한류잡지 해외수출 기반 구축
 - 한류잡지 초록번역 지원(영어·일어·중어, 총 2,500부 제작)
- 책임 있는 언론육성을 위한 등록매체 관리강화
 -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준수 실태 점검('13.6~9월)
 - ※ 조사대상 : '13.5월 기준 인터넷신문 4,212개, 인터넷뉴스서비스 175개
 - 정기간행물 등록·신고정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등록매체 관리시스템 재구축('13.12월 완료)

(3)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 토요 NIE 교실을 운영,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NIE 확대 및 자신감, 성취감 부여를 통한 미래 사회 인재로 육성('12년 74개교→ '13년 158개교, 11,636명)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신문수송·운송비 지원을 통해 한계지역 주민 정보 접근권 제고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16,747처, 3,925명), 신문수송·운송비 지원(1,212개 신문수송노선, 약 5만건의 신문우송 지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인터넷신문 폭증으로 선정적 기사, 광고로 인한 국민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의 신문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13.6~9)하고 시도에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청('13.12)하였으나,
 - 인터넷신문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실태점검 정례화 및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단 언론자유가 손상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 준수)

□ 조치계획

- 신문법에 명시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정례화(2년 단위)
- 시도에 실태점검 결과송부 및 후속조치 요청, 조치결과 확인을 통해 미디어환경 개선 추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방송콘텐츠 창작기반조성, 제작, 수출 등 방송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한류 확산
- 다양한 장르의 방송영상콘텐츠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방송 포맷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방송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 방송영상산업계의 교육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 방송영상시장과 연계성을 강화한 전문 인력양성
- 스마트 미디어 도입·디지털 방송전환 등 고화질 차세대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제작 인프라 시설 구축을 통한 방송영상산업의 성장기반 확보
- 우수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진출 성과 확대 및 중남미 등 다변화된 국제공동제작사업의 추진에 따른 한류 문화 확산

□ 주요 성과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 간 권리배분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8월)
 -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기여도에 따른 저작재산권 인정, 출연료 미지급 방지를 위한 지급 보증보험 제출 등
-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을 진흥하고 방송영상시장의 상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문체부·미래부·방통위/12월)
 - 방송산업 규제 혁신, 방송영상콘텐츠 시장 활성화, 차세대 방송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5대 전략 및 19대 과제 제시

- 방송콘텐츠의 기획·제작·송출·유통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빛마루) 건립
 - 13년 목표 공정률 100%를 달성하여 2013년 공사 완료



○(조성부지) 한류월드(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재)
 ○(시설규모) 부지 10,702㎡(3,237평), 연면적 56,594㎡ (17,120평), 지상 20층 지하 4층
 ○(건립예산) 2,192억(문체부 1,172억/미래부 1,020억)
 ○(주요시설) 스튜디오 6(대형 500평 1, 중형 310평 1, 소형 150평 4), 중계차 2, 편집실 17 등
 ○(이용대상) 독립제작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우수방송콘텐츠 발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드라마, 다큐멘터리, 포맷파일럿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장르별 특화 지원을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 업계의 제작역량 및 해외 경쟁력 강화 (미니 2편/단막극 9편/다큐 21편/포맷파일럿 9편/포맷바이블 5편)
 - ‘13년 미니시리즈 <불의여신 정이> 평균 시청률 9.6%, 약 73억 원 매출
 - ‘13년 단막극 지원작 <부라보마이 라이프> KBS 시청률 3.6%
 - MBC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KBS <불후의 명곡>, <1박 2일>, JTBC <히든싱어>
- 다양한 방송영상산업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맞춤형 핵심 창의인재 발굴 및 육성
 -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2과정, 52명 교육), 드라마프로듀서스쿨(2과정, 40명 교육),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정규 강좌 38과정, 14,171명 수료/열린 강좌 26과정 11,484명 입과)
 - 동 교육과정은 현장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13년 교육생 평균 만족도도 94.6점에 달함
- 스마트 미디어 · 고화질 디지털방송전환에 대비한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시설 구축
 -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지원은 HD NLE 편집실 2실, TV스튜디오 조명시설 설비보강, DMS/방송회관 TV스튜디오 무선마이크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타 CG(자막기) 및 멀티뷰어 시스템 구축 완료
 - HD드라마타운 건립은 중간설계의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경제성 검토(VE), 중간설계도서 검사 및 변경 사업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대전시 등), 교통영향평가(대전시) 및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청) 심의 완료

-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지원 및 해외 현지 수출을 위한 맞춤형 재제작 지원으로 우수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수출기회 확대
 - BCWW : '12년 39백만 불 → '13년 41백만 불(2백만 불↑)
 - BCM : '12년 26백만 불 → '13년 27백만 불(1백만 불↑)
 - 견본시 참가 및 개최지원: '12년 77백만 불 → '13년 79백만 불(추정)(2백만 불↑)
 - 수출용방송콘텐츠 재제작 : '13년 29개 업체 45개 작품 950백만 원 지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방송사·제작사 간 권리배분 등에 관한 제작(구매)표준계약서(8월)의 시행에 따른 업계 활용 및 시장 개선 현황 파악의 필요성 제기

□ 조치 계획

-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표준계약서의 시장 적용 현황을 점검하여 지속적 수정·개선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한 업계 활용 유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해외진출 강화) 도쿄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 동남아·남미 등 성장 잠재력 있는 시장을 개척하여 출판한류 확산기반 조성
 - 해외 전문 에이전시를 통한 영·불·중·독 등 시장 맞춤형 수출지원
 - 출판 행사 공동 개최 등 쌍방향 교류 확대로 출판저작권 수출강화
- (성장기반 조성) 출판 통계시스템 구축, 출판 전문인력 양성, 출판단지 활성화 등 출판산업 성장 기반강화
- (산업생태계 구축) 도서정가제 정착, 인쇄산업 발전지원 등 출판산업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우수도서 선정·보급 등 국내 출판수요 진작
- (미래 산업 대비) 전자출판 진흥 인프라 구축, 전자책 제작지원 등 출판산업 신성장동력 강화

□ 주요 성과

- 시장 맞춤형 한국문학 번역지원 등 출판산업 수출 기반강화
 - 美 달키아카이브출 총서 발간(12종) 등 북미시장 한국문학 출간지속
 - 영·불·중·독 등 해외 전문에이전시를 통한 한국문학 출간(5개사)
 - 영상 등 K-Arts 번역(25건), 한국문학 전자책 출간(17건) 등 한류확산
 - 해외 출판관련 법제 등을 담은 '수출가이드북' 제작지원
 - 중소출판사 수출 확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6.21)
 - ※ '저작권 수출과정 및 수출성공사례' 발표
 - 해외 수출전문가 파견 지원(북경도서전에 7개 에이전시 파견 등)
- 전략적 쌍방향 문화교류로 저작권 수출 활성화 도모
 - LTI Korea 포럼(6개국), 문학 및 작가축제, 번역가 커뮤니티, 작가 파견 해외 레지던스 운영(3개월→6개월) 등 수용성 있는 문화교류 확대

- 해외편집자·에이전시·유통전문가 등 분야별 국제교류(6회) 강화
- 초록·샘플번역(266건), 해외정보지영·종문 계간 등 우수콘텐츠 해외출간지원
- ※ 초록/샘플 번역지원 : 30개사 168종 187건 / 79건(7개 언어)

○ 주요 국제도서전 참가지원 등 새로운 시장 개척

- 도쿄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7월), 해외도서전 한국관 참가(5월)
- 이탈리아(볼로냐), 일본(동경), 중국(베이징·상해), 독일(프랑크푸르트), 태국(방콕), 프랑스(센상드니), 멕시코(과달라하라) 문학행사 참가지원
- 세계 20개국 35개 처 한국도서 보급사업 운영(9,200권 지원)

○ 우수출판 콘텐츠 선정·보급 등 출판 내수 진작

- 우수도서 선정 보급 사업 추진으로 국민독서 기반 마련
- ※ 학술도서: 11개 분야 221종, 교양도서: 11개 분야 420종 총 약 31만권
작은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배포
- 우수 저작물(30편), 우수 출판 기획안(33편) 등 우수 출판물 제작 지원
- 1인 출판사의 출판 지원(10편), 우수 출판 편집·디자인 공모(9종)
- 청소년 대상 도서교환권 서울교육청 등 2만3천장 배포(1만원권)
- '청소년권장도서' 선정·홍보 등 사회 전반의 책읽는 분위기 조성
-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15개소), 마케팅 교육(9회) 등 지역서점 활성화
- 출판산업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재기에 대응한 과태료 처분(2건)
- 출판메세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가이드북 제작·배포(4,000개)

○ 전자출판 진흥 인프라 구축

- 출판인 세미나, 전자출판 제작혁신 과정, 창업비즈니스 과정 등 출판 재직자, 창업자 등 대상 전자출판 아카데미 지원(600명)
- 체험관, 테스트베드를 갖춘 전자출판 지원센터 운영(2.1억)
- * 일반인 대상 전자책 체험관 운영, 제작자 대상 전자책 품질검증 지원
- 국제기준에 맞는 전자책 식별체계 정비 등 법제도 개선 추진

* 도서관법 개정 및 전자책 B2B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 (도서관법 개정/13.12월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전자책에도 ISBN 부여 의무화, ISBN 받은 전자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 (B2B거래 표준계약서) 도서관 등의 전자책 구입 및 서비스 관련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출판계, 저작권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13.10월~)

○ 전자출판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추진

- 우수도서·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전자책 제작지원(1,141종)
 - ※ '12~'16년간, 총 1만종 우수 전자책 제작지원 목표
- 디지털 작가상 및 우수 전자책 시상으로 우수콘텐츠 창작 활성화
 - ※ 제8회 디지털작가상(총 17편/총 상금 51백만원), 제1회 대한민국 우수전자책 시상
- 전자책 불법복제 추적차단을 위한 '전자책 바로센터' 운영
 - ※ '13.1.7 서비스 개시, '13.12월 말 기준 회원사 440곳(출판사, 유통사 등), 불법복제 추적 및 차단 2,426건, 전자출판물 등록권수 31,287건

출판사/유통사/저자	특징점 전송 →	전자책 바로센터 (출판진흥원)	특징점 전송 →	ICOP (저작권보호센터)
전자책 특징점 추출	← 저작권침해알림, 증거자료 제공	특징점 추출모듈 제공 저작권센터와 MOU	← 추적결과 전송	불법복제 모니터링 증거자료 제공

- 전자책 콘텐츠·제작기술의 국제도서전(북경, 동경, 프랑크푸르트) 전시 지원, 수출 전자책 번역 지원(20종/英·美·日) 등 해외유통 확대(2.5억)

○ 출판 통계 시스템 구축·운영 등 산업지원 강화

- 출판산업 분기별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 등(실적)
 - ※ 분기별 통계 보고서 발간(분기 500부), 출판산업 실태조사(6~11월) 등 추진
-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경영기법 과학화 지원
 - ※ 온라인 컨설팅(95), 오프라인 컨설팅 개최(9회 33건) 등(12월)
- 신간도서 DB 구축(54,156건) 등 출판유통 정보화 추진

○ 출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 차세대 출판 산업을 능동적으로 주도할 출판 전문인력 양성(5억)
 - ※ 에이전트양성, 디지털출판 심화, 출판·편집디자인 심화 등 5개 교육 과정(121명 이수), 전자책 셀프 퍼블리싱, SNS마케팅 등 이슈별 기획특강(252명 수강)
- 중소출판사 대상 청년인턴 지원
 - ※ 청년인턴 100명, 6개월, 1인 월80만원, 정규직 전환 시 월 65만원지원(청년 취업인턴 채용률 100% 달성)

○ 파주출판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 복합공간으로 조성

- 파주출판단지의 문화 클러스터, 국제적 지식거점 조성계획 마련
 - ※ 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출판단지 활성화 포함(문체부·미래부, 13.7.4)

- 출판도시를 문화창조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저자, 편집자, 방문객 등이 소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출판시설구역에 허용하도록 제도개선
 - ※ 국토부, 산업부와 협의하여 산집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13.11.13), 지자체(경기도, 파주시)와 협력하여 파주단지에 책방거리 조성
- 파주출판단지 2단계 조성공사 완료(9월), 주차장 부지 분양완료(12월)
- 어린이 책 잔치, 파주북소리행사 등 출판단지를 활용한 출판문화운동 추진
 - ※ 파주북소리 행사에 VIP 방문, 출판단지를 창조경제의 표본적인 곳으로 평가, '13년 파주단지 80만명 방문, 전년 대비 15% 증가
- 출판제작 체험 및 독서교육을 병행하는 '파주출판도시 체험학교' 개설
 - ※ 40회 실시 1,000명 체험학교 참가(소외 계층 5개반 200명 우선 참가)

○ 인쇄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 인쇄협회 '인쇄수출지원센터'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 ※ 국제전시회 참가(5.14~18 북경, 5.29~6.1 뉴욕, 10.9~13 프랑크푸르트)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7.2 도쿄, 11.6 샌프란시스코) 해외 인쇄시장 현황조사(7.16~10.31 독일)
- '친환경 기술·경영지도위원회' 구성, 친환경기술 경영 컨설팅 지원
- 국내(오송, 코엑스 등 10개), 해외(북경, 뉴욕, 프랑크푸르트 3개) 주요 도서전에 직지 등 인쇄문화 전시 지원
- 디지털인쇄과정 등 4과목, 48시간 인쇄 전문인력 양(연 100명)

○ 비용 절감 및 글로벌 통용을 위한 '국내 인쇄품질 표준기준' 개발

-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인쇄 세척액' 개발('12년 잉크 개발)
- 제책의 품질향상 및 지면 활용도를 높이는 '제책용 접착제' 개발
 - ※ 인쇄 주요국은 국제표준규격을 토대로 자국 실정에 맞는 인쇄물 품질기준 운용 중(미국 SWOP, 유럽 EURO Color Specification, 일본 Japan Color)
- '한자서체', '인쇄품질 공정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출판사 또는 인쇄업자는 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지자체에 신고필증 반납하여야 하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하였으나 지자체에 신고필증 반납하지 않아 등록세가 부과되는 사례 존재
- (개선방안) 출판·인쇄업 폐업 관련, 직권말소제도 신설
 -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지자체는 그 영업을 직권으로 말소
- (기대효과) 사업자의 이중 신고로 인한 불편 해소, 폐업 미신고로 인한 세금부담 완화

□ 조치계획

- 법률 개정 추진('14년)
 - 의원발의로 법률개정안 상임위 회부('13년 8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관광숙박산업 다양성 확대 및 관광숙박 시설의 양적성장에 걸맞은 질적 수준 제고
 -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 소형호텔업 신설을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하여 의료관광분야 활성화 기대 및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숙박시설 확충에 기여
 -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를 통한 관광인프라 경쟁력 강화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양·질적 동반 성장 기여
- 다양한 안내체계 구축 및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 편의 제고
 -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지도 등 관광안내체계 구축
 - '1330' 콜센터의 연중 24시간 운영을 통해 관광안내, 관광불편신고 접수, 통역 등 관광객 편의 제고
 - FIT(개인관광객)를 위해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형 안내서비스 '스마트 투어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안내 수요에 부응
- '관광경찰제도' 도입으로 '안전한 한국관광'의 이미지 제고
 - 관광지에서의 범죄예방,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수사, 관광 불편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관광경찰' 출범('13.10.16)

□ 주요 성과

- 개별관광객 증가 등 여행트렌드 변화에 맞춤형 특색 있는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중단기 부족한 숙박시설 해소 및 관광숙박시설 다양성 확보
 - 전국적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를 위한 모텔·여관 등 일반숙박시설을 관광형 호텔화(우수숙박시설*) 전환 확대, 단체관광객 유치 가능한 모텔밀집지역을 중화권 시범특구** 지정·지원

- * '12년 451개소 16,641실 → '13년 612개소 23,090실 / **수원, 시흥월곶, 인천
- 국민여가캠핑장·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등 다양한 대체숙박시설 운영 지원을 통하여 관광 숙박시설 부족 해소
 - * 한옥체험업 수 : ('12년) 608개소 ⇒ ('13.9월말) 629개소 (21개소, 3.5% 증가)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기준 마련(1인 8시간 40,000원) 및 근무환경 개선비(1인 100,000원) 등을 통한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로조건 개선 및 신규양성교육·보수교육 지원(신규양성교육 1인 500,000원, 보수교육 1인 200,000원)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질적 수준 제고
- 다양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관광기반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제공
 -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지원 24개소(신설 13, 개보수 11) 및 전국 255개 관광안내소 대상 모니터링 및 평가('13.7~9월)
 - * 관광안내소에 외국어(영·일·중) 가능자 배치·운영으로 관광편의 서비스 제공
 - * 전국 관광안내소 249개소에 관광안내원 586명 근무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및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원
 - * 외국어표기(영·일·간체·번체 등 4개국어) 번역 및 감수지원((3,499건)
 - * 관광안내표지판 1,900개, 관광안내지도 790만부
 - 전국 관광안내표지 현황 및 다국어 표기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 방안 마련
 - * 전국 관광안내표지 실태조사 추진('13.4~'14.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실태조사 결과 반영, 안내표지판 개선 추진('14~ '16년)
 - FIT(개인관광객)를 위해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형 안내서비스인 '스마트 투어가이드' 개발·보급으로 다양한 관광안내 수요에 적극 부응
 - * '10~'11년 : 문화유산(신라권·백제권·가야권, 유네스코문화유산 등),
 - * '12~'13년 서울도보여행(청계천 일대, 북촌한옥마을) 앱 구축, 운영
 - * 세계관광기구 등 국제기구로부터 우수성과로 인정받음
 - ▶ PATA Gold Award 2013 수상(Marketing Media-Consumer Travel Brochure부문)
 - ▶ UNWTO(세계관광기구) 울리시즈 Awards 2013 본선진출('14.1.22 최종 1,2,3위 발표)
- 관광안내, 관광불편신고접수, 통역 등을 제공하는 '1330' 콜센터 운영을 통해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고
 - * 한,영,일,중 4개 언어/ 34명 안내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 '13년 278,718건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12년 239,317건)
 - * 관광불편신고접수건수(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1,107건(외국인 949건, 내국인 158건/ 감사편지 78건 포함)
 - 관광경찰 제도 도입을 통한 ‘안전한 한국관광’의 이미지 제고
 - 관광지에서의 범죄예방,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수사, 관광 불편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관광경찰’ 출범(‘13.10.16)
 - * 관광경찰 : 101명(현역경찰 52명, 의무경찰 49명)
 - * 활동지역 : 외래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시내 7개 지역(명동, 이태원, 홍대 입구, 동대문쇼핑몰, 시청, 청계, 인사동) 중심으로 순찰 및 상황근무
 - 관광경찰과 연계한 상시 관광수용태세 점검활동 추진 예정(지자체, 지역별 관광특구협의회, 상가연합회 등과 협조)
 -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기간*에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및 개선 조치(집중점검, 업계 자정활동 유도 등)를 통하여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 중국춘절(2.6~2.15), 중국노동절·일본골든위크(4.27~5.6), 중국국경절(10.1~10.7) 기간 대비, 사전 2~3일 전부터 기간중 점검
 - * 수용태세 점검대상 : 음식점, 기념품 판매, 쇼핑, 가이드, 택시, 콜밴 등
- ※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14.1.17 시행예정, 국토부)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다양한 국내관광 소재를 개발하고, 우수한 관광지 발굴 및 다각적 홍보로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
 - 특히 '한국관광 100선' 선정 및 '2013 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국내 여행의 질적 향상에 기여
- 스마트 환경에 맞춘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든 관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관광활동 참여를 지원
- 소외계층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여행 이용권 지급 및 장애인 복지 관광 활성화 추진

□ 주요 성과

- 전국민 대상 연중 캠페인 실시로 국내관광 수요 증대 및 내수 활력 제고
 -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름철·하반기 연중 캠페인 실시 및 국무회의 보고
 - * (여름철) '대한민국 구석구석, 나만의 여름특집'
 - 기간 : '13.6.20 ~ 8.31
 - 참여기관 : 안행부, 환경부, 해수부, 문화재청 등 17개 정부 및 유관기관
 - 추진내용 : 여름철 여행성수기 추천여행정보 제공 및 홍보
 - * 생태관광/숲체험(환경부, 산림청), 농산어촌 체험마을(안행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캠핑/레저(안행부, 해수부), 기차여행(한국철도공사),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시장경영진흥원), 추천여행상품(한국관광협회중앙회), 도보여행(문체부), 축제/행사(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문체부)
 - (하반기) '대한민국 구석구석, 맛있는 여행'
 - 기간 : '13.10.15 ~ 12.15

- 참여기관 : 안행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등 21개 정부 및 유관기관
- 추진내용 : 음식테마거리, 맛집 등 주요 음식자원과 관광지 연계·홍보
 - * 음식테마거리(문체부), 농어촌 체험마을(안행부, 농식품부, 해수부), 팔도장터 관광열차(한국철도공사, 시장경영진흥원), 축제/행사(31개 지자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맛지도(시장경영진흥원), 추천여행상품(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전국 지자체 참가 대규모 국내관광 박람회 ‘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 및 국민 참여 한국관광 100선 선정을 통한 국내관광 수요 촉진
 - ‘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13.2.28~3.3) : 지자체의 매력적인 관광지 소개 및 여행관련 각 분야의 상품 홍보, 관광 관련 업계의 참여로 즉각적인 관광 수요 증진에 기여
 - * 2013년 ‘내나라여행박람회’ 행사개요
 - 주제 : 내나라 첫여행
 - 일시 및 장소 : 2013.2.28.(목) ~ 3.3(일)(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 규모 : 현장 관람객 수 10만 7,886명(전년대비 약 3.5% 증가) / 320개 기관 참여(지자체 100개, 업체 220개) / 520여 개 전시부스 설치
 - 국민 참여 온라인 실시간 투표를 통한 ‘한국관광 100선’(mustgo100.or.kr) 순위 선정으로 계절·시기성을 반영한 국민의 관심 지역 추천 및 국민의 국내관광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환기
- 생애초기 여가력 개발을 통해 장단기 국내관광 수요를 확대하고자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 총 286개 학교 약 12,532명 지원(‘12.12월말 기준)
 - * (‘12년) 수도권 초등학교 학생 대상 → (‘13년) 전국 초·중·고 대상 확대
- 국내여행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
 -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통하여 매월 “이달의 추천 가볼 만한 곳”을 선정·홍보
 - 여행작가 등을 활용하여 매월 잘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관광소재 발굴 및 연계 코스 홍보
 - 여행상품 활용 제고 및 여행사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여행사 대상 공모를 통한 추천내나라여행상품 선정 및 전국 홍보

-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으로 관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관광정보 웹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국내 여행 정보 제공
 - * 대한민국 구석구석 3.0
 - 콘텐츠 내용 : 여행기사, 관광지/숙박/음식/교통/축제정보, 테마여행, 배움여행, 포토갤러리, 이벤트 정보 등
 - 다운로드수(265만건)
 - 주요수상 : 모바일 웹어워드(3회 수상), 정보문화상 정보화기술 대상, 스마트&거버먼트 대상, 모바일 브랜드 대상, SERI 선정 CEO에게 필요한 10대 앱 선정
 - 목적지 중심 및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 제공 및 흥미를 유발하고자 문체부·한국관광공사·지자체·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서비스 '마이앱' 구현
 - * 사용자 지역 방문 시, 해당 지역의 관광정보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구석구석' 앱을 통해 자동 제공되며, 관광정보 외에도 발도장, 여행리뷰 작성 등의 신규 기능을 통하여 관광객의 흥미 유발
 - 국내여행 블로그, 트위터 운영을 통한 고객과 소통 강화
 -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유튜브 등 SNS 채널 운영
 - 외국어 여행정보사이트 강화(10개 외국어) 및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을 위한 'Visit Korea' 등 기존 앱의 지속적인 콘텐츠 보강 및 홍보
 - 스토리텔링형 스마트 투어가이드의 확산
 - 주요 관광지 및 박물관, 특정 테마 관광 시 활용가능한 스토리텔링형 오디오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확대
 - * 현재 역사(신라·백제·가야), 박물관(중앙·경주·김해·공주·부여),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서울도보여행(청계천, 광화문, 인사동 등) 12개 앱 제공
 - 대학생 온라인 기자단 '트래블리더' 및 여행분야 파워네트즌 '트래블로거' 발굴 온라인 프로모션 실시
-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및 컨설팅 실시로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질적 수준 상향화

- 부천시, 용인시, 강릉시 등 총 10개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컨설팅 실시
- '10~'12년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실행 사업 공모, 총 4개 지자체 선정 및 지원('13.7월)
- 저소득층 대상 여행이용권(1인당 15만원) 지원, 장애인을 위한 '함께하는 여행' 실시 등 소외계층 관광복지 실현
 - '13.12월 기준 여행이용권사업 56천명 '함께하는 여행' 총 13회 800명 수혜 등
 - SK 이노베이션, 한국타이어, 한미글로벌 등 민간기업의 참여로 장애인 관광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총 110백만원 지원 효과)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4대궁 및 종묘, 템플스테이, 고택·종택 등 우리 고유의 역사가 살아 있는 전통문화를 관광 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 제공
 - 창덕궁 달빛기행 확대시행('12년 25회→'13년 30회)에 이어 궁궐 야간 개방 특별공연('13.10월, 30회) 첫 시행으로 야간관광 활성화 도모
-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구축, '13년 한옥스테이 최초 인증제 도입을 통해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우수 대체숙박시설 확충에 기여
 - 템플스테이 전용·특화프로그램 시설 신축·개보수('12~'13년, 20개소)
 - 한옥스테이 인증제 통해 239개 한옥, 1,899실 확보
-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100%)하였으며, 고택·종택 및 고궁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 전국 고택·종택 운영자 대상 워크숍 개최 및 의견수렴('13.11.15)
 - 살아 숨쉬는 궁궐 만들기 유관기관 상설협의회 개최('13.12.19~20)
-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당초 성과목표(문화관광축제당 평균 관람객 수)를 100.7% 달성하였으며, 우수한 지역축제를 선정·지원하여 글로벌 축제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음

□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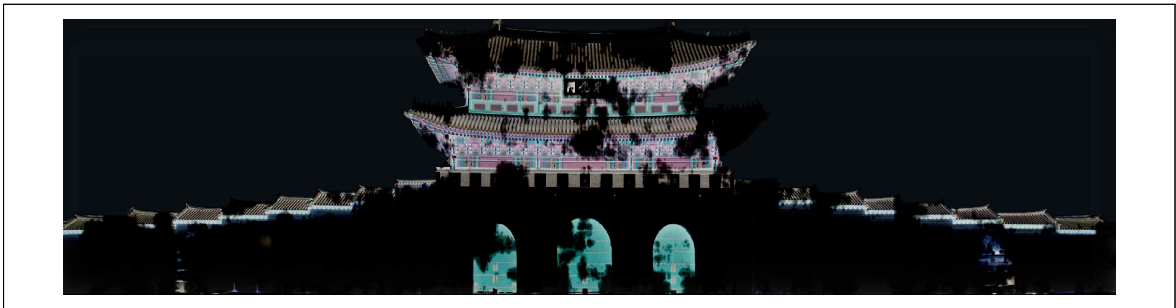
- 창덕궁 달빛기행 확대시행('12년 25회→'13년 30회)으로 고궁 야간 관람객이 전년 대비 6.3% 증가('12년 3,200명→'13년 3,400명)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야간관광 활성화 도모



- 특히, 2013년 궁궐 야간개방 특별공연(10월, 30회)* 첫 시행으로 명동, 인사동 등지에 쇼핑, 식도락 관광을 목적으로 왔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품격 있는 조선 왕궁의 이미지를 각인시킴

* 창경궁 통명전('13.10.5~13/12회), 경복궁 수정전 및 흥례문('13.10.16~28/18회)

- 단순한 고궁 사업이 아닌 국가정체성 확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고궁프로그램 개발·시연
- 서울 광화문을 대형 스크린으로 활용, 광화문 빛 너울을 소재로 한 'Media Facade'시연('13.8.15~21)



* 8.15 개막식 KBS, MBC, SBS 등 8개 방송사 동시 취재·방영

* 총 관람객 51,000여명 / MBC, SBS, 연합뉴스 생중계

-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인천공항의 이점을 활용,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센터, 체험관, 전시관을 연계한 전통문화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전통문화 해외보급에 기여
- 외국인 문화행사 참여인원 579,811명(전년대비 10% 증가)

구분	문화체험	상설공연	공예전시	명절행사
추진횟수	365일	2,190명	365일	2회
참여인원	251,343명	231,020명	85,018명	12,430명

* 약 300여종의 전통공예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활용 ('13년 기준 7억원 수익창출)

- 전통한옥, 고택·종택 숙박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최초 한옥스테이 인증제 도입 및 BI개발·보급
 - 한옥체험업 서비스, 운영관리, 위생,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옥스테이 인증제 도입, '13년 239개 한옥 1,899실 확보
 - 한옥스테이 BI 상표권 취득('13.6월), BI 활용 홍보물품 및 현판 제작·배포('13.8~11월)



- 고택·종택 등 전통한옥을 관광숙박 체험시설로 활용, 한국 고유의 대표적 생활문화체험 관광 상품으로 발전(220개소, 60억원)
 - * 한옥체험업 수 : ('12년) 608개소 → ('13년) 630개소 (22개소, 3.6% 증가)
-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 재발견 및 외국인에게 한국문화 체험기회 확대(114개 사찰 템플스테이 운영)
 - 템플스테이 전용 및 특화프로그램 시설 신축·개보수를 통해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대체숙박시설 확충에 기여('12~'13년, 20개소)
 - '템플스테이 가치평가에 관한 정책 세미나 개최('13.10.2)'를 통해 템플스테이 개선점 및 발전방향 논의,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 * 후속조치 : 사찰음식 활성화를 위한 업무관계자간 회의('13.12.9), 사찰음식 표준식단 개발 및 세계 사찰음식 대축제 등 2014년 사업계획에 일부 반영
 - '제5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개최('12.11월~'13.3월)'를 통해 우수 문화상품 자원 확보 및 국내외 홍보콘텐츠로 활용
 - * 매년 5개 작품 상품화, 114개 운영사찰로 보급 / 향후 수익상품으로 추진예정



- '13년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180천명으로(내국인 144천명, 외국인 36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참가자 만족도 조사결과 10점 만점에 8.2점으로 목표(8.0)를 초과달성하는 등 한국전통불교문화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우수한 지역축제를 선정·지원하여,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2013년 42개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지원(67억원)
 - ※ 대표축제 2개, 각 6억원씩 지원 / 최우수축제 8개, 각 3억원씩 지원 / 우수축제 10개, 각 1.5억원씩 지원 / 유망축제 22개, 각 0.79억원씩 지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사업의 경우 관광기금을 사용함에 따라 문화유산 활용사업 확대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음
 - 사업 주체와 예산 지원 주체 불일치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
 - * 문화재청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 조치계획

- 관광기금으로 편성된 궁궐 활용 프로그램 예산(창덕궁 달빛기행 등) 문화재청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추진의 통일성과 발전 도모
 - * '14년 전환내역 : 14개 사업 6,450백만원(문체부 관광기금→문화재청 일반회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간 상호 연계를 통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국내관광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 소규모 사업과 광역적 관광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사업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광수요 창출 및 균형 잡힌 관광기반 구축
- 추진일정의 충실성이 높으며,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중간 평가 연구용역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방문, 유관기관 협의 등 실시

□ 주요 성과

-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사업 평가 및 컨설팅 실시, 통합정보 관리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관광시설물 운영시설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를 통해 관광객 증대 및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유형별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계획수립, 예산집행, 성과창출 등 단계별 문제점 해소
- * 동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용역('13.5~'14.1/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3대 문화권 중간평가 연구용역('13.9~'14.7/한국관광개발연구원) 등
- 관광개발사업 통합정보관리 체계구축을 통해 DB 관리, 우수사례 공유, 중복사업 방지 등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및 자연친화적 관광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및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행문화 체험기회 제공
 - 관광지 개발 : 소요산 관광지 등 47개소

- 문화관광자원개발 : 부산진역사문화가도 조성 등 184개소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세어도 자연학교 사업 등 32개소
- 남해안, 서해안, 지리산권 등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의 지속 추진
 - 남해안권 관광클러스터 :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등 11개소
 -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 서해안 썬셋 드라이브 사업 등 10개소
 -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하기 등 9개소
 -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등 17개소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등 8개소
 -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사업' 등 32개소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 관광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05년 1,941→ '13년 4,283억원) 체계적 평가시스템 및 데이터 축적 부재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움

□ 조치계획

- 2014년부터 국가관광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획평가센터 운영으로 사업계획 및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집중 컨설팅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방한 일본인관광객 '12.9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12.8 외교갈등, '12.11 엔화 약세), 중국 <관광법> 시행으로 인한 방한 관광상품 가격인상 등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위기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적절한 대책마련*을 통해 외래관광객 1,200만 돌파 달성(12,172천명, 전년동기 대비 9.3% 증가)
 - * (對일본) 한일 우호분위기 조성 노력(한일 관광진흥협의회 조기 개최, 한일 문화관광교류 행사(동일본 지진피해지역))
 - * (對중국) 한중 관광품질향상 실무협의체 발족,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제 도입, 중국 개별관광객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북경·상해 호구소유자 2,900만명)
- 제5회 한중 관광장관회담(10월/중국 쿤밍), 제8차 한중 관광실무협의회(5월/중국 베이징), 제28차 한일 관광진흥협의회(6월/한국 울산), 제8회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및 한중일 정부 간 실무급회의(9월/일본 나라) 등 양자·삼자 정부 간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개최하는 등 한중일 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증진의 계기 마련
-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내 주도적 위상을 제고하여 관광외교역량 강화 및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특히, 한국인의 UNWTO 고위직(문화관광국장) 진출을 달성하고 Rio+20 정상회의 후속조치인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10개년 계획' 방향 설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국제기구 내 한국의 주도적 위상 강화
- 한류관광, 스키관광, 의료관광 등을 국가별, 수요자별 특징에 따라 마케팅하고, 급성장하는 중국시장을 집중 공략하여 외래관광객 1,200백만 유치에 기여함
- MICE, 크루즈,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함

□ 주요 성과

- **방한 중국인관광객 대상 관광품질 향상 및 FIT 유치확대 활동 전개**
 -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제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13.3, 7월)
 -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시행 지침 개정('13.5, 9월)
 - 제8차 한중 관광실무협의회 참가('13.5.15/중국 베이징)
 - 중국 전담여행사 대상 중국 <관광법> 관련 설명회 개최('13.7월)
 - 중국 관광객대상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실시('13.9.1)
 - *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중국 우수대학 재학생(211 공정대학), 북경·상해 지역호구자, 국내 콘도 회원권 구매자
 - 제5차 한중 관광장관회담 개최 및 “한중 관광품질향상 실무협의체 발족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13.10월/중국 쿤밍)
 -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제 도입 및 실시 완료('13.11월)
 - * 전담여행사 157개(이중 35개 업체 시정명령) 업체 재지정(갱신), 22개 업체 지정취소
 - 중국 <관광법> 시행 후 시장변화 대응을 위한 방한관광 시장 조사 수행('13.11~'14.1)
 - 주시안한국관광공사 지사개설('13.8~12월)
 - SNS 활용 중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한국관광 홍보 활성화
 - * 중화권 전지사 SNS 채널개설·운영(팔로워 2,472,898명, 포스팅 6,180건), 재한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 운영(30명, 포스팅 2,000건, 노출효과 1,700만명), 파워블로거·SNS유저 초청팸투어
 - FIT 관광안내서 계간지 발행(쿠폰북) 및 중국현지배포(3회, 총 9만부)
 - 신개념 여행서비스 '한귀덩니'(맞춤형 여행가이드-현지친구사귀기) 144팀 매칭, 중국인 FIT관광객 298명 유치
- **일본인 방한여행 수요의 조속한 회복 및 감소세 둔화 촉진활동 전개**
 - 제28차 한일 관광진흥협의회 조기 개최('13.6월/한국 울산)
 - 일본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특별 운영자금 융자지원(11개사 97억원/'13.5월)
 - 방한 일본인 관광객 유치관측지원 사업 전개('13.9월~'14.3월)
 - * 일본 인바운드 여행사 42개사에 광고홍보비 지원(총 10억원)
 - 한일 문화관광교류 행사 전개('13.5월/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 일본 주요여행사 대상 토크세일즈 및 간담회 개최('13.5월/일본 도쿄)
- 한일우호관광축제 개최('13.7월/일본 도쿄)
 - * 여행사 방한상품 상담(3,800건 *현장 예약건수 420건), 메디컬에스테 상담 (1,200건), 웨딩촬영 예약(200건), 한글교육 상담(이화여대 200건, 한국어 120건) 등), 국내지자체 · 일본여행사 B2B상담회(13개 기관 참가)
- 일본 BS후지 TV 한국 지방관광특집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13.4~7월, 매주 월요일, 총 13편)
- 제1회 한일지방관광교류서미트 참가('13.9월/일본 나라)
- 2013 부울경위크인 저팬 및 경기위크인 아오모리 행사 전개('13.4월 및 10월/도쿄, 후쿠오카, 나고야, 센다이, 아오모리 지역 일반소비자 대상)

<2013년 12월 현재 주요국가별 입국자 수>

(단위: 천 명, 전년 대비 성장률(%), 추정치)

구 분	전 체		일 본		중 국		미 국		대 만		홍 콩	
	입국자수	성장률	입국자수	성장률	입국자수	성장률	입국자수	성장률	입국자수	성장률	입국자수	성장률
2012	11,140	13.7	3,519	7.0	2,837	27.8	698	5.5	548	28.0	360	28.2
2013.1	754	△0.02	206	△15.5	196	17.6	49	5.0	45	5.2	24	△24.8
2013.2	815	0.5	217	△26.2	250	43.7	45	△5.9	45	1.6	37	65.3
2013.3	1,011	10.3	289	△.9	276	50.5	63	13.1	42	18.2	35	48.3
2013.4	972	0.5	203	△32.2	335	50.9	65	1.4	35	△18.7	30	△14.5
2013.5	919	△2.5	223	△29.6	279	32.4	65	0.4	41	△1.0	24	△2.7
2013.6	1,059	11.9	201	△33.5	399	70.2	70	6.3	54	6.4	35	19.4
2013.7	1,205	19.4	208	△30.5	570	76.4	63	2.4	48	△14.9	33	5.9
2013.8	1,359	23.2	271	△22.0	642	78.9	59	2.1	51	△6.1	37	8.8
2013.9	1,157	17.2	247	△20.1	484	70.6	63	8.3	47	△5.5	28	6.6
2013.10	1,088	6.1	245	△9.2	343	22.8	72	1.3	50	2.0	43	17.5
2013.11	908	7.8	223	△10.7	276	35.2	54	1.2	43	7.8	36	14.8
2012.12*	925	10.8	214	△5.8	270	37.8	53	6.8	44	6.5	39	14.6
2013 (누계)	12,172	9.3	2,747	△21.9	4,321	52.3	722	3.5	545	△0.7	400	11.2

○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 대폭 개선

- 11월 관광수입은 방한객 증가와 방한객 1인당 지출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한 12.6억불이며, 관광지출은 원화강세에 의한 해외여행 수요증가로 3% 증가한 14.7억불을 기록함(관광수지 21억불 적자)

<2013년 관광수입 · 수지>

(단위: 천 명, 백 만 US\$, 전년 대비 성장률, 잠정치)(%)

구 분	외래객 입국		관광수지	관광수입	
	인 원	성장률		금 액	성장률
2013. 1	754	-0.02	△546	1,027	1.7
2013. 2	815	0.5	△350	945	△9.2
2013. 3	1,011	10.3	△186	1,154	△2.5
2013. 4	972	0.5	△178	1,187	△9.3
2013. 5	919	△2.5	△336	1,125	△19.1
2013. 6	1,059	11.9	△191	1,196	4.3
2013. 7	1,205	19.4	△458	1,219	9.5
2013. 8	1,359	23.2	△512	1,062	△1.2
2013. 9	1,157	17.2	△201	1,325	26.1
2013.10	1,088	6.1	△94	1,448	25.0
2013.11	908	7.8	△206	1,263	26.8
2013.12	925	10.8	-	-	-
2013 (누계)	12,172	9.3	△3,258	12,948	3.8

○ 국제관광교류 관련, 주요 국가와 양자협력 강화를 통한 신규시장 개척 기반 마련

- '2014-2105 한-러 상호방문의 해' 협약 체결 및 선포식 개최
- ST-EP 재단의 국제기구화 의결(제20차 UNWTO총회, 8.23~29) 및 'International ST-EP Organization' 창립준비회의 개최(11.6/런던)
- UNEP(유엔환경계획)과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UNWTO·APEC·ASEAN+3·OECD 관광위원회 등 관광 국제기구 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쇼핑, 숙박, 식음료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 도입 추진, 중장기 산업 육성계획 수립, 대형 컨벤션·인센티브 관광 집중 유치 및 홍보 확대 등 마이스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
- 시장별 해외관측행사(로드쇼, 박람회 참가 등)참가, 의료관광기업 및 상품개발 지원,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진행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각종 사업을 관계기관과의 협력 하에 성공적으로 추진 하였음

□ 주요 성과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MICE)의 양적, 질적 성장
 - 전년에 이어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한 세계 5위를 달성하여 세계 국제회의의 주요 개최지로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 정립(2013.6월 발표)
 - * 한국의 국제회의의 개최 순위 : 2010년 세계 8위 → 2012년 세계 5위
 - 대형 컨벤션 유치 확대(외국인 1천명 이상) : 11건(2012)→17건(2013)
 - * 500명 이상 중대형 컨벤션 27건 유치 성공
- 의료관광 마케팅 활성화 지원 및 유치여건 개선
 - 해외 의료관광객 수는 '12년 15만명에서 '13년 20만명(잠정치)으로 대폭 증가 예상
- 입체적 크루즈관광객 유치마케팅을 통한 한국 크루즈관광 매력 부각 및 크루즈 관광객 증가
 - * 크루즈 입항횟수('12년 223회→'13년 9월 366회), 크루즈 관광객수 ('12년278,369명→'13년 9월 663,946명) 대폭 증가
 - * 관계부처(해양수산부·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한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13.7.17.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 산업 육성방안 발표」)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녹색관광은 수요·공급측면에서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기후적 지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관광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
 - 녹색관광기본계획('10.4월)을 수립하여 한국형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생태관광인증제 시행 등의 **다양한 녹색관광 자원을 발굴·지원으로 녹색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주민이 주체적·자발적·협력적으로 관광사업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관광경영체 형성(주민주도형 관광 경영 공동체)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 걷기여행길 홈페이지 구축으로 전국에 산재 돼 있는 걷기여행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 제공
- 최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다양한 녹색관광 프로그램·개발 운영**을 통해 녹색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 5일 근무 정착으로 가족 또는 동호인 단위 도보관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생태탐방로 정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슬로시티 지역의 고유 향토자원(자연자원, 전통음식, 전통 전승문화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 **소득과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관광과 레저 융합형 관광문화 확산**
 - 친환경 자전거열차 운영, 장거리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바이크텔' 지정(전국 13개소) 및 두바퀴 휴게쉼터 개장(양평 국수역), 무동력 수상레저(카누·요트) 체험교실 및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 등

□ 주요 성과

- 생태관광인증제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으로 건전한 생태 관광 도모
- 주민 스스로 경영공동체를 만들어 융복합형 관광사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관광두레」 도입
 - 지원기관 역할 명확화 및 협력적 지원체계 성공가능성 확인
 - 시범사업을 통해 문체부, 지자체, 문화관광연구원, 관광공사의 역할이 명확해졌으며 관광두레의 형성과 역량강화, 사업홍보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모델을 정립함
 - 관광두레 브랜드 및 홍보자료 준비 완료



- 지역별로 평균 7개 이상의 예비 관광두레기업 발굴
 - 짧은 컨설팅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호응으로 예비 관광두레 기업을 발굴하여 14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두레 사업 가능
- 걷기여행길 홈페이지 구축으로 부처별·지자체별로 산재돼 있는 걷기여행길 정보를 집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편의 제공
 - * 걷기여행길 조성 현황 : 6개 중앙부처 길 480개, 1,171코스('13년 10월 현재)
- 역사적·문화적 특색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및 걷기여행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탐방로 조성 7건, 탐방로 정비 14건,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4건 등
- 슬로시티 지역의 고유 향토자원(자연자원, 전통음식, 전통 전승문화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지의 고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생태관광 정책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태관광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
 - * 문체부-환경부 협업과제 발굴('13.8.2), 생태관광정책협의회간사회의('13.8.30, 11.6), 생태관광정책협의회('13.9.6, 10.22)
- 다양한 녹색관광 프로그램 제시 및 **저탄소 관광레저 문화 확산**
 - 지역관광콘텐츠를 결합한 친환경 자전거열차 운영
 - * '12년 16회 3,667명 → '13년 20회 4,739명 참가(1회 평균 240여 명)
 - * 임시열차 편성(무궁화호), 최대 승차인원 288명(72명×거치전용 4량 244대)
 - 장거리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바이크텔' 지정(이용자 선호도조사 및 공모)·운영(전국 13개소) 및 두바퀴 휴게쉼터 개장(양평 국수역)
 - 외국인 자전거 관광 상품 개발 및 자전거 여행 정보 제공 등 국내외 홍보 강화
 - * 외국 자전거 동호회 등 관광객 유치(1,058명) 및 외국어 안내책자(영·중·일 43,000부), 자전거 특화 이벤트(바이크 캠핑대회 등) 개최
 - 무동력 수상레저(카누·요트) 체험교실 운영(5~11월, 7개소)으로 수상레저 저변확대 및 대중화 기여
 - * 카누 체험교실(인천, 부여, 상주/ 8,744명)
 - * 요트 체험교실(충주, 상주, 부여, 부산/ 3,490명)
 - 수상레저 체험교실 안전관리 자체점검(7.23 ~ 7.30), 현장확인(8.10 ~ 8.11)등 안전사고 대비 및 체험 전 안전교육 강화
 - *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13.7.18) 관련
 - 승마관광 홍보 및 지자체 이벤트 지원
 - 승마관광 활성화 팸투어 :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시(8월)
 - 말 관련축제 지원 : 말 이벤트(체험, 시범승마단) 지원(9월)
 -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승마교실 】

- 사업명 : ‘공원에서 말 달리자!’(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승마교실)
- 대 상 : 일반시민, 지역아동센터 등(약 4,500명)
- 장 소 : 서울시내 공공장소(도시공원, 운동장 등)
- 사업기간 : 2013년 6월 ~ 10월
- 운영업체 : (주)클럽M승마교실
- 체험방법 : 15 ~20분 내외의 승마구보체험(무료)

- 승마관광 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승마관광 모델 프로그램 개발 : 승마관광 서비스 및 운영 매뉴얼, 특화 프로그램 개발(6월~10월)
 - 승마관광 활성화 세미나 : 승마관광 발전방향 및 상품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11월)
-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서울, 도심공원 등)



올림픽공원(한국체육대학교)

월드컵공원(명화 잔디광장)

【 찾아가는 승마교실 】

- 사업명 : ‘공원에서 말 달리자!’(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승마교실)
- 대 상 : 일반시민, 지역아동센터 등(약 1,500명)
- 장 소 : 서울시내 공공장소(도시공원, 운동장 등)
- 사업기간 : 2013년 6월 ~ 10월
- 운영업체 : (주)클럽M승마교실
- 체험방법 : 15 ~20분 내외의 승마구보체험(무료)

- 승마 활성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 추진(7.16)
 - (농림부·문체부) 전국 승마시설 운영 실태조사 공동조사
 - * 지자체 소관부서 조사 협조 및 공동조사 참여
 - * 조사실태 분석 및 제재·합법화 등 후속조치
 - (문체부) 소년체전 승마정식종목 채택 추진은 유소년 승마단의 지자체별 추진이 완료된 후 가능한 중장기 계획, 추진을 위한

농림부, 마사회 예산지원 협조

-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저비용 승마관광 모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요부문을 실태조사 시에 포함하여 승마장의 의견 수렴
 - (교육부) 토요일스포츠데이 등 학교체육 도입 활성화(어린이+학부모) 추진, 농림부나 마사회의 지정 승마장을 추천하여 도입예정
 - (경기도) 학생, 성인, 승마장 경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승마 콘텐츠(군부대, 기마순찰대, 대학학점제, 공용버스노선 등)활용
- 농식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승마 활성화 방안' 발표(11.19)

◇ 관계부처 협업(농식품부 : 인프라 확충, 문체부·교육부 : 승마수요 확대)을 통한 승마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 도모

○ 승마장/승용마 : ('13) 366개소/5.9천두 → ('17) 500/10

○ 승마회원수 : ('13)4.5만명 → ('17)10 *승마장 이용자수('13)68만명→('17)200

◇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 민간 중심의 승마산업 육성

* 정부는 시설·제도개선 등 인프라 지원, 민간은 책임경영 등을 통한 승마산업 주도

- 한국마사회 말운동회 말갈라쇼 '폐가수스 페스티벌'협업 운영
- 한국관광공사 구석구석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 북 등 SNS 채널 통한 대외홍보지원
- 도자기 조랑말 꾸미기 체험(나무 조랑말 꾸미기 병행)



조랑말 모양의 도도자기에 유성펜,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조랑말 꾸미기 체험

- 천을 이용한 제주 올레 간세이형만들기
- 타일에 말 컨셉의 아트 체험 행사 실시 후 모아서 마사회 공간 활용 아트 벽 등으로 활용하여 경마공원 등 재방문 유도
- 말똥과자, 말모양 과자 등 말 컨셉의 재미있는 과자 판매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광두레) 기존 관 주도의 시설조성에 치중하거나 사업비 지원 관행으로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개발 사업의 이해 부족 및 참여도 미흡
- (걷기여행길 조성) 6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걷기여행길 조성 추진하여 걷기여행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중복투자 및 이용자 혼란 문제 발생(같은 길에 다른 명칭과 이질적 안내표지로 이용자 혼란 초래)

□ 조치계획

- (생태관광) 생태관광 예비인증 대상(총 17개 : 여행상품13, 숙박시설2, 매력물2)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 효과 확인 (~ '13.10)
- (관광두레) 관광두레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tourdurei>)운영으로 문화부·유관기관·지역PD 간 실시간 소통과 지자체·지역별 사업지별 워크숍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13. 8월~)
- (걷기여행길 구축) 걷기여행길 홈페이지 일일 점검과 주간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 제시 및 조치결과 확인('13. 10월~)
⇒ 걷기여행길 조성 및 관리체계 정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안내체계 마련
- (문화생태탐방로) 걷기여행길 조성 및 관리체계 정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안내체계 마련('14.1월 ~)
 - 걷기여행길 전국 실태조사 및 DB구축
 - 걷기여행길, 주변 관광정보 제공 및 여행 코스 안내를 위한 두발로 2.0앱 업데이트
 - 걷기여행길 관리체계 입법화 및 관리기준 마련
 - 관계 부처간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기업도시 활성화대책관련 간척지 양도·양수 협약서 변경이 '13. 12월말까지 모두 완료됨에 따라 '14년부터는 기업도시가 본격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2013 성과지표 : 영암해남 기업도시 기공식
 - '13년 실적 : 간척지 양도·양수 협약서 변경완료(12월) / 기업도시 기공식 개최, “솔라시도” 브랜드네이밍 선포(12월)
- 다양한 콘텐츠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을 성과목표대로 달성함에 따라 민간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개발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조성하였다고 봄
 - 2013 성과지표 : 콘텐츠 육성(2건), 관광개발 투자유치 지원(3건)
 - 콘텐츠 육성('13년 실적) : 2건 완료
 - 기업도시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관광상품을 출시 일반시민들의 기업도시 인지도 제고, 트레블리더, 파워블로거 대상 팸투어 실시 등을 통해 다각적인 기업도시 홍보를 전개하였음.
 - 또한 맞춤형 콘텐츠 협의회(시행사, 전문가 등) 를 통해 기업도시별 특성있는 콘텐츠를 발굴, 향후 기업도시 개발·운영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 태안 : 부남호 생태습지공원 계획 수립
 - * 영암·해남 :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적용방안 등
 - 관광개발 투자유치 지원('13년 실적) : 3건완료, 추가사항 시행
 - 각 시·도에서 1개소씩 추천한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거쳐 관광개발 프로젝트(3개소)를 선정, 멘토링 체제 실시
 -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적극 전개하였음 (국외 투자박람회 참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팸투어 실시, 세미나 등)

- 추가로 코트라(KOTRA) 외국인 투자주관(FIW) 지역개발사업 설명을 통한 중국 등 방한 국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 실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관광개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음
- 개발여건 미성숙 등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략적 홍보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새만금 홍보협의회(2회)’를 통해 관계기관 유기적 홍보계획 수립·시행, 국내외 홍보 등 범정부 차원에서 투자자 및 관광객 유치를 전략적으로 홍보하였음
 - 또한, 새만금 상설공연 개최, 홍보 동영상 광고, 언론매체·온라인 홍보, 팸투어, 사진전시회 등을 통해 새만금을 적극 알림으로서 새만금을 관광목적지로 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2013 성과지표”외 추가사항
 - 관광레저도시 개발 기반조성을 위해 “2013 성과지표”외 제도개선(관계법령 개정), 진입도로 국고지원 등 추가사업을 발굴
 -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관광레저도시 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개발 기틀을 조성함으로써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함

□ 주요 성과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 추진
 - 기업도시법령 개정을 통한 간척지 양도·양수 기준가격 반영(6월)
 - 간척지 양도·양수 변경 협의 완료(11월)
 - 투자활성화를 위한 무역진흥투자회의 안전상정 반영(11~12월)
 - 기업도시 기공식, ‘솔라시도’ 브랜드네이밍 선포(12월)



- 면 적 : 20.9km²(634만평)
- 투자계획 : 1조1,037억원
- 시 행 자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 주요시설 : 골프장, 테마파크, 바이오산업단지 등
- 계획인구 : 18,300명(7,320가구)



- 일 시 : 2013. 12.13(금) 11:00~12:00
- 장 소 : 구성지구 일원(해남군 산이면)
- 참 석 : 기업도시 개발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 국무총리, 차관, 국회의원, 유관기관 대표 등
- 주최/주관 : 전남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 행사내용 : 식전행사 → 공식행사 → 식후행사

○ 다양한 콘텐츠 육성(2건)

1) 관광레저도시 연계 관광상품

- 태안 : 태양을 품은 바다이야기 관광레저도시태안과 서해의 보물섬 안면도 100배 즐기기 여행
- 영암·해남 : 영암 F1코리아 국제경기장 코스관광 및 카트체험, 해남 공룡박물관 관람, 남도 맛집탐방 기행
- 지원금액 : 25천원*1,000명=25백만원
- 운영기간 : 5월 ~ 11월(만족도조사 포함)
- 관광레저도시 홍보 및 관광상품 운영을 통한 기업도시 인지도 제고 및 지역관광활성화 기여

2) 파워블로거 대상 기업도시 현장 팸투어 실시(5회 : 6~11월)

- 트레블리더와 함께 KTX 타고 떠나는 남도 슬로우 여행(1박2일/영암해남/8월)
- 한국지리여행 전문가와 함께하는 레저도시 연계 주변 관광자원 홍보(1박2일/태안/9월)
- 영암·해남 기업도시(F1경주장) 주변관광연계 팸투어 실시(10월)
- F1경기, CJ경기 관광레저도시 홍보 팸투어 실시(10월)
- 한국지리여행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역 주요 축제 및 관광자원 연계 관광레저도시 홍보(1박2일/영암해남/11월)

2-1) 온·오프라인 홍보사업

- 어플 업그레이드, SNS 및 파워블로거 홍보
- 트위터 이용 및 파워블로거 팸투어를 통한 온라인 홍보

3) 맞춤형 콘텐츠 협의회(시행사, 전문가 등) 개최(5회 : 6~11월), 기업도시별 콘텐츠 발굴

- 태안 : 부남호 생태습지 공원화사업
- 영암·해남 :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적용방안
- 종합세미나 형식으로 발표 및 전문가 토론

1차	2차	3차	4차	5차	비고
6.5	8.27	10. 14	11.5	11.29(공동세미나)	
태안	영암해남	태안	영암해남	영암해남/태안	

○ 기업도시 등 대규모 관광개발 투자유치 지원(4건)

1) 투자유치 프로젝트 선정(3개소)

- 전국 관광개발 사업 3개소를 투자유치 지원 대상으로 선정
- 사업주체의 비전·목표, 추진의지, 개발사업의 특성, 차별화 요소,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평가 실시
- 선정 : 부산(동부산 관광단지), 전북(무주 태권도원 민자지구 개발사업), 전남(신안 사파리 아일랜드)

[3대 관광개발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일원 · 기간 : 2012~2020년 · 사업면적 : 1,187,178㎡ · 사파리 및 숙박시설 등 · 사업비 : 약 1,320억원 (민자814억원) · 민자투자유치현황 : 0% · 토지확보율 :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 일원 · 기간 : 2013~2017년 · 사업면적 : 113,000㎡ · 태권도수련원내 민간관광시설 · 사업비 : 약 3,500억원 (민자1,066억원) · 민자투자유치현황 : 0% · 토지확보율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일원 · 기간 : 2006~2017년 · 사업면적 : 3,662,725㎡ · 사업비 : 약 4조원 (민자 2조8천억원) · 민자투자유치현황 : 70% · 공정율 : 기반시설 61%

2) 2013 APTDI 싱가포르 컨퍼런스 참가(10.21~25)

【행사개요】

- 행사명 : APTDI(Asia Pacific Tourism Destination Investmen Conference)
- 기간 : 2013. 10. 21(월) - 10.25(금)
- 규모 : 25개국 500여명 참가
- 행사성격 : 관광목적지 개발 투자 컨퍼런스
- 참가단체 : 공공기관, 부동산 개발 및 투자자, 운영업체 등
- 주최 : Questex Hospitality Group

- 관광목적지 투자자 시장의 흐름변화, 투자기회요인 포착
- 컨퍼런스 참가자 대상 한국관광투자 소개 및 개별사업 소개
- 개별투자자 10회 내외 개별 상담(주최측 주선)
- 공동 관광투자유치 테이블 운영, 세일즈콜, 개발사례지 답사 등
- 해외 잠재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리스트 확보로 지속적 투자유치 활동의 기반 마련
- 투자자 면담, 사례지 답사, 컨퍼런스 참가 등을 통한 지자체 담당자의 투자유치 관련 지식 및 경험축적을 통한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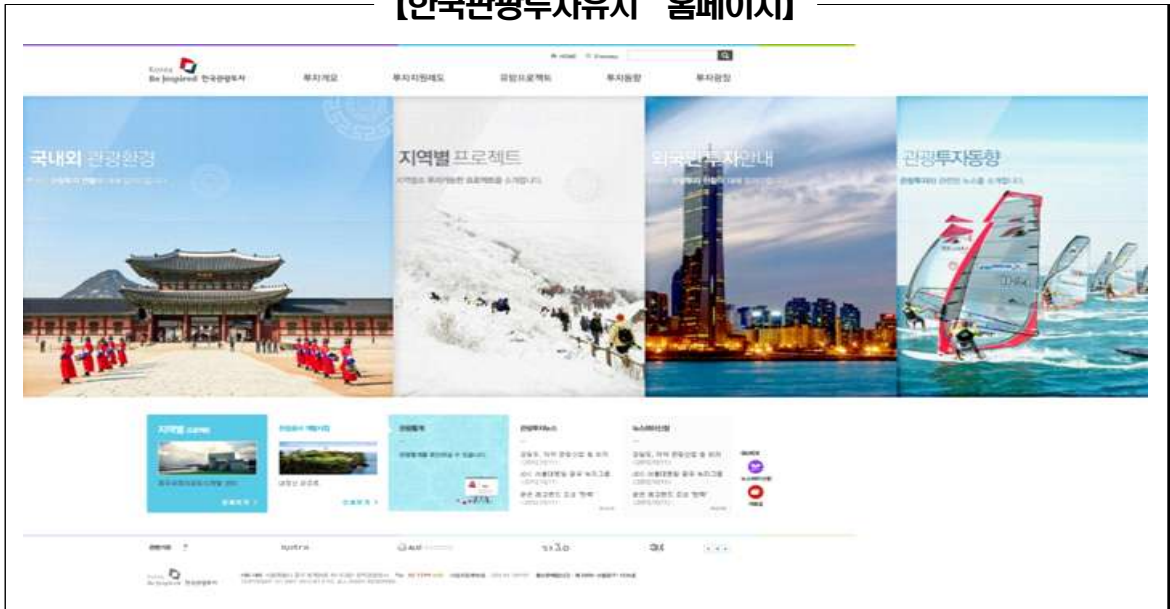
3)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산업인프라 확충이 충분한 KOTRA와 해외 관광네트워크화 된 관광공사 장점을 활용한 협업
 - 외국인투자주간(FIW) 2013행사('10.29~31/ 롯데월드호텔)시 지역개발설명회 등 사업설명 참가 및 공동 추진
- 방한 국외투자자 대상 팸투어 등 현장 투자설명 실시(5회)
- 기업도시 등 대규모 관광개발 투자유치 위한 세미나 개최(2회)
 - 국내기업(잠재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유치 세미나개최(12.5)

4) 한국 관광투자유치 홈페이지 제작

- 관광투자 온라인 서비스를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기존 투자유치제도 및 소개사업 최신정보 제공
- 정보 및 전달력 향상을 고려한 홈페이지 콘텐츠 구성 및 디자인 설계
 -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분류 체계 수립
 - 사이트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정보의 접근이 용이한 디자인 설계

【한국관광투자유치 홈페이지】



- 제도개선 총 5건(무역투자진흥회의 등),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국고지원 등 추가사업 발굴, 성과목표 초과 달성
 - 관계부처와 협의,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총 5건)
 - 국토교통부와 협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13.6월)
 - * 간척지 양도·양수 가격기준(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양도) 마련
 - 국토교통부와 협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13.12월)
 - * 개발면적 70%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확보시 선수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기업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 산정 방식 변경
 -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10월)
 - * 담보(또는 현금)가 필요한 보증증권 등은 면제
 - * 계약금 20%로 상향 조정, 권리질권 설정
 -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10월)
 - *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수시 대금 분할납부(3년거치 7년상환)
 - *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고정금리(5%)에서 변동금리로 변경
 - 법무부와 협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13.5월)
 - * 공익사업투자이민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적용(손익발생형)

-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10.9km, 총 사업비 2,756억원)을 기본·실 시설계비 49억원 국고지원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영암 삼호읍 ~ 해남 산이면
 목포-광양간고속도로(국도2호선) ~ 레저도시(지방도806호선)
- 사업량 : L=10.9km, 4차로
- 사업기간 : 2013.~2018.
- 사업비 : 2,756억원 (국비 50%, 지방비등 50%)
- B / C : 1. 08

○ 새만금 상설공연 홍보

- 새만금 상설공연 관련 웹 포스터를 일반 공중의 SNS를 통해 확산(4.25~5.10)
 - * 총1,789명 참여(블로그 1,003명, 페이스북 786명) / 4,560건(블로그 2,161건, 페이스북 2,399건)의 댓글 게재
- KTX 매거진 광고(7월) 새만금 상설공연 광고포스터 게재

○ 새만금 동영상 활용 홍보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 홍보(4.26, 4.29)
 - 모바일 리워드 광고 애플리케이션(애드라떼)활용 홍보
 - 새만금관광레저도시 CF영상 송출, 새만금 페이스북 참여자수 확보
 - * 새만금 홍보동영상 시청건수 : 6,162건, 페이스북 ‘좋아요’ 관계 맺기 수 증가 : 144명(4.24기준) → 5,421명(5.3기준)
- 지하철 및 공항, 버스터미널 영상 광고(6~11월)
 - 서울메트로 9호선 25개 역사 가이드TV 광고(일 40회)
 - 서울메트로 1~4호선 120개 역사 가이드TV 광고(일 36회)
 - 서울도시철도 5~8호선 148개 역사 가이드TV 광고(일 80회)
 - 인천국제공항 멀티큐브 광고(일 30회)
 - 센트럴시티 전광판, 동서울시외버스 PDP모니터 광고(일 150회)

○ 언론 홍보 : TV방송 교양프로그램 PPL(5.17)

- SBS 모닝와이드 3부 - 여행의 발견 “새만금 당일치기 여행”
-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대회 및 새만금 지역 일대의 관광자원 홍보
 - * 방송일시 : 5.17(금) 08:15~08:22, 방송시청률 : 4.5%



- 무가지 활용 홍보(7.9): 지하철 무가지(메트로)에 새만금 기사 게재
- 온라인 홍보
 - 파워블로거 활용 온라인 매체 홍보(5.20~6.12)
 - 새만금 지역여행을 희망하는 파워블로거를 선발(10명) 진행
 - 새만금 방문 후기 포스팅 생산(각 2회씩)하여 온라인 매체 홍보
 - * 파워블로거 : 일 방문자수 3,000명 이상인 블로그 소유자
 - 새만금 루트개발 이벤트(6.17~7.19)
 - 마이크로페이지 제작(<http://www.smgtour.kr/>)
 - 새만금 홍보관과 아리울 예술창고를 경유하는 자유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등록된 참여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이벤트 진행 * 1,267명 참가, 여행루트 131건 개발



- 새만금 지역 팸투어
 - 한국사보협회 30명(6.12), 한국여행작가협회 기자 25명(6.29~30)
 - 셀러브리티 동행(소설가 조정래) 참여희망 당첨자 등 30명(7.26)

- 참여기자, 여행작가의 소속매체를 통해 새만금 콘텐츠 노출 및 여행후기 콘텐츠 생성으로 새만금 홍보



○ 축제·행사연계 홍보

- 여행박람회 활용 홍보(5.24~26)
 - 2013 하나투어 여행박람회(킨텍스 제2전시장 한국관)참가, 새만금 리플렛 배포 및 새만금 관광정보 전달 * 리플릿 1,500장 배포
- 새만금 사진 전시회(8.13~14)
 - 서울 광화문역사에 「명품 새만금 환경사진 공모전」 수상작과 새만금 항공사진 전시



- 지역축제 활용 홍보(10.18~24)
 - 제 94회 전국체육대회 주경기장에서 새만금사진 전시 및 홍보물 배포 * 리플릿 1,000장, 엽서 1,500장 배포

○ 새만금 상설문화공연 개최

- 공연기간 : '13.4월~11월
- 장 소 : 새만금 방조제 상설공연장(아리울 예술창고)
- 내 용 : 새만금상설공연(144회), 이벤트공연 및 체험행사

- 상설공연 : 4. 20 ~ 8. 25 (판타스틱 공연)
- 창작공연 : 9. 4 ~ 11. 3(국악과 음악의 접목 라이브 뮤지컬)
- 시즌공연 : 어린이날, 휴가철 등
- 공연개최현황 : 총 144회(상설공연 98회, 창작공연 46회)
- 관람객 : 27,574명(평균 객석 점유율 52.3%)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개발여건 미성숙 등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 및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근본적 민간 투자유치 방안 필요

□ 조치계획

-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 완화 등 적극지원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생활체육 진입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다양한 생활체육시설·프로그램·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체육활동 가치 및 방법 홍보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 및 만족도 제고
- 「국민체력 100사업」을 통한 체력수준별 체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 및 스포츠 복지서비스 확대
- 과학적인 체력관리 필요성 인식 증가 및 생활체육 참여 유인체계 구축으로 자발적 수요 확대
- 저소득층 성인·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및 사회 나눔 실현

□ 주요 성과

-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 「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기반 마련
 - 종합형 스포츠클럽 9개소 시범운영
 -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 확대
- (지도자 양성 및 파견 확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및 고령화시대에 따른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3(2,152명)→'13년(2,195명)
- (국민체력인증제 성공적 운영) 정보와 지식부족 등으로 과학적 체력관리를 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보편적 체육 복지서비스 제공
 - (거점센터) 14개소, 56,104명 참여(목표 대비 125.2% 달성)

- (체력증진교실) 4,255명 참여(목표 대비 101% 달성), 만족도 상반기 87.9점, 하반기 92.9점(5점 상승)
- (연구용역) 청소년 체력인증 기준 및 스포츠 활동 개인이력 관리 시스템 개발(축구,야구)
 - ※ 성인기 인증기준('11) → 어르신 인증기준('12) → 청소년 인증기준('13)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확대 및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도모
 - ('12) 만7세~19세 → 만5세~19세로 범위 확대, 30,500명 지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확인시간 지연 및 웹 결제 단일방식 운영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및 개선요구 점증

□ 조치계획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자격여부 실시간 확인 시스템 마련, 단말기 결제방식 추가 도입을 통한 이용자 편의 개선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공공체육시설로의 접근성 제고 및 1인당 면적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 추진
-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우수 공공체육시설을 선정,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
- 20년 이상 경과된 전문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체육활동 및 관람 환경개선으로 기존시설 활용도 제고

□ 주요 성과

- 지역 주민 밀착형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
 - 시·군·구 종합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 1개 시·군·구 1개소 설치 지원 중으로 '13년까지 204개소 지원 완료
 - 농촌지역 게이트볼장 등 어르신 선호 체육시설 지원(6개소, 30억원)
- 학교 부지를 활용, 운동장 및 체육관(강당 겸용, 전용)을 건립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 공동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활동 공간 지속 확충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101개소, 352억원) 및 다목적체육관(17개교, 93억원) 조성 지원
- 시·군 운동장 및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등 지방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145개소, 1,033억원)
 - 생활체육공원(36개소, 148억원), 노인건강체육시설(6개소, 18억원) 조성
-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향상, 균형배치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사업 추진

-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13.4., '14.1.)
-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및 포상(권역별 4, 부문별 5, 장려 4)
- 20년 경과 노후 전문체육시설 개·보수 지원('10년~'14년, 5년간 한시 지원/ '13년 50개소 5억원 지원)
- * 매년 체육진흥투표권 총수익금의 5% 배분, 개수·보수 시설비용의 30% 지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건립지원 생활체육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없던 것을 개선하여 생활체육시설의 리모델링 등 개보수 지원으로 확대 필요
-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10년 이상 노후화된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의 지원도 포함

□ 조치계획

- 현재 20년 이상 전문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하던 것을 10년 이상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로 확대
- '14년까지 한시적 지원규정 폐지(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10년 이상 노후체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개·보수 수요 파악 및 지원 계획 수립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와 토요일스포츠강사 배치,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 지원으로 학교체육을 내실화하고, 학원스포츠 리그제의 정착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확대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학교운동부 선진화에 기여

□ 주요 성과

-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3,800명)를 배치하고, 전국 초중고에 토요일스포츠강사(11,448명)를 배치하였으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23종목) 개최를 지원하여 학생 건강·체력 증진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를 점차 확대(초4~중2 적용)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 방지를 유도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시도교육청의 지방비 확보가 미흡하여 당초 계획(6,051명)보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실적(3,800명) 저조

□ 조치계획

- 예산 편성시 시도교육청에 배치 가능한 인원을 조사하여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배치 인원이 적은 시도에는 지방비 확보 독려 추진('14. 5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그간 국제스포츠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로, 2017 FIFA U-20 월드컵 유치, 2020 하계올림픽 태권도 핵심종목 유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 진출 등 가시적 성과를 많이 도출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위상을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주요 성과

- 2017 FIFA U-20 월드컵 대회 유치
 - FIFA 집행위원 대상 적극적인 유치활동 결과, U-20 월드컵대회를 유치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FIFA 주관 남자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축구 그랜드슬램’ 달성
 - ※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 2002년 월드컵, 2007년 U-17 월드컵 개최
- 세계반도핑기구(WADA) 이사국 진출 성공, 선진 스포츠도핑방지시스템 구축 등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국제역량 강화
- 세계반도핑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 진출 성공 및 선진 스포츠도핑방지시스템 구축 확대
 - 세계반도핑기구 정부 간 회의 정부대표 참석, 개도국 도핑검사관(DCO) 초청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국제 활동을 통하여 이사국 진출 성공, 국제역량 강화
 - '14년 세계반도핑기구 공인 실험실 인증 유지(KIST 도핑컨트롤센터), '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 '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 '18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KIST 기능보강 지원 확대
- 국제스포츠기구에 진출한 임직원 진출 지원, 국제스포츠 인재의 체계적 양성 사업 등을 통해 국제체육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

- 한국인 임직원 증가 : 2012년 341명(세계기구 120명, 아시아기구 221명) → 2013년 358명(세계기구126명, 아시아기구232명)
- 외국어 교육과정(국내연수 초급, 중급, 해외연수) → 해외 인턴십 및 학위 과정(해외 인턴십, 해외 학위, 국제심판 자격취득) → 전문 과정(국제 스포츠기구 임·직원 진출 실무 교육)으로 이어지는 국제 스포츠 기구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과정의 체계적 운영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 국제 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 국제수준의 경기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부족
- 네트워킹 구축 효과의 지속유지, 스포츠 뿐 아니라 자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우호세력 확장을 위해 스포츠 회의 개최·인사 초청 등 주체적인 국제교류 활동 필요

□ 조치계획

-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사업 내실화 및 교류·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개도국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반도핑기구 회의 개최 등 적극적 활동 추진
- 국제 스포츠 포럼 등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장을 적극 마련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국내 및 국외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요층을 겨냥, 전략적인 세계화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의 전통무예이자 국제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는 태권도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
 - * 세계화 사업 : 태권도 사범 및 시범단 파견, 태권도 전공자 인턴 파견, 봉사단 파견, 퓨전 공연물 ‘탈’ 공연, 태권도원 건립 등
- 초기 파견 1, 2세대 한인사범의 노령화로 인하여 한인 사범 인적네트워크 재건 및 한국태권도 종주국 위상 강화와 한국태권도의 우수성 홍보에 기여
- 런던올림픽 태권도 경기의 성공적 수행으로 태권도 세계화에 이바지
 - 32개 메달을 21개국이 획득하는 등 고른 메달 분포
 - 경기 흥미도 배가 및 판정의 공정성 제고

□ 주요 성과

-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조성될 태권도원이 '13년 당초 목표(진척률 100%)를 달성함에 따라 차질 없이 '13년 준공 완료
 - 태권도원 조성 완료에 따른 재단 사무처 이전(서울→무주) 및 시범운영을 통한 본격적인 운영준비체제 구축 완료
- 시범단, 봉사단 등의 전략적 국가 선정 및 파견을 통해 태권도 세계화에 기여, 선진국 대상 태권도 퓨전 ‘탈’ 공연사업 추진 등 한류문화 콘텐츠 다양함 제시를 통한 한국이미지 제고에 기여
- 태권도 전공 대학생을 태권도장사업이 비교적 활발한 미주지역 중심으로 인턴사범 파견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태권도 사범의 해외 파견을 통해 태권도 활성화 및 보급 확대
 - 키르기스스탄 현 대통령 국기원 방문('13.11월) 등 각 국가 주요 인사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 확대를 통해 태권도 활성화 기여

- 태권도 사범과전국 내 국립사범대학에 정규 과목화(캄보디아, 남아공) 및 미래 체육지도자 태권도 교육 발판 마련
- 태권도 세계화 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태권도의 올림픽 핵심종목 유지 ('13.9월, IOC 총회)
 - 태권도 세계화 사업(사범, 봉사단, 태권도 시범공연)을 통해 태권도 보급 및 저변인구 확대로 국제스포츠로써의 위상 강화
 - 지난 런던올림픽에서 공정한 판정 관련 경기규칙 개정, 전자호구 도입 및 비디오 판독 확대 등을 통해 태권도 종목유지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기여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태권도 성지로써 건립된 태권도원(2014.4월 개관)의 전략적 홍보와 방문객 증대 등을 위해 다각적 노력 필요
- 태권도 종목 유지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적 사범 파견 국가 수의 부족으로 파견 국가 확대 노력 필요

□ 조치계획

- 태권도원 운영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태권도 국제화사업 확대 등을 통한 태권도 세계화 견인
- 태권도 사범단 파견 사업 확대('13년 1,150백만원→'14년 1,800백만원)
- 주한 외국인대상 교육 사업('14년 신규사업, 200백만원)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대부분 영세(10인 미만, 95.7%)하고, 내수시장 중심(매출의 96.5%)인 국내 스포츠산업 실태를 개선하고자, 품질력 공인, 용자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국내스포츠 용품 시험 및 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등 글로벌화 지원, 전문인력양성·스포츠산업진흥포럼 등 기반 조성 추진
 - 스포츠산업실태조사결과('13.12월),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확대(전년 대비 2.17조원 증대) 및 종사자수(전년 대비 6천명 증가)도 증대
- ※ '13년 성과관리계획 상 시장규모 목표치(37.5조원)를 초과 달성(38.7조원)
- '08년 수립한 제1차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스포츠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발표('13.12.2)
 - 유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융·복합, 스포츠산업 참여·관람 등 잠재수요 창출, 강소기업 육성 등 4대 전략, 31개 과제 제시
 - 문체부 체육국 내 스포츠산업과 신설('13.12.13), 컨슈머리포트 창간('13.12월) 등 추진기반 및 정책 추동력 마련

□ 주요 성과

- 국내 스포츠용품 업체의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 국내 스포츠용품 PGA(미국, 골프), FIBO(독일, 헬스기구) 등 해외 유망 전시회, 해외로드쇼(유럽, '13.10월) 참가지원 등 수출 지원

※ 4개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 참가 : 31개사, 56부스 참가
- 상담 : 수출2,543건(상담액 102,648천달러/1,078억원)

* 참가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참가 전시회 줄이는 대신(5개→ 4개), 규모 확대 및 부스 고급화


※ 해외로드쇼(10.7~16, 유럽)

- 참가 : 7개사, 56부스 참가
- 상담 : 수출 57건(상담액 15,142천달러/1,514억원)

○ 계약추진액 : 4,724천달러/472억원

* 기업별 맞춤형 바이어 매칭 및 방문상담 지원

-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을 개최, 428개사 참여, 약 1,630억원 판매 상담

<p>※ 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13.2.21 ~ 24, 코엑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 : 428개사, 1,615부스 참가 ○ 상담 : 내수 4,987건(상담액 249억원) 수출 548건(상담액 132,696천달러/1,391억원) ○ 참관객 : 41,942명(전년 대비 19.57% 증가) <p>* 해외 참관객 전년 대비 19.6% 증가('13년 712명, '12년 696명)</p>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별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컨설팅·마케팅 지원(총 17개사)

※ 신규 3개사 :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2~3년차 :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 **국내 스포츠용품의 품질력 공인 및 해외 인증 지원**

- 스포츠용품에 특화된 품질성능 시험(총 1,504건) 및 인증 부여 (KISS, 29개 업체 50개 품목)로 품질력 보증
- 스포츠용품에 대한 CE(유럽), TUV(독일) 등 해외 인증 지원(15개 업체, 27개 인증)으로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한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 **국내 스포츠산업체의 안정적 사업기반 조성**

- 영세한 체육용구 생산업체, 열악한 민간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융자지원(21개사, 55억원, 15개 시중은행, 4% 금리)
 -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5개사, 1,369백만원) △민간체육시설 시설설치 및 개보수(13개사 3,710백만원) △스포츠서비스업체 연구개발(3개사 500백만원)
- 지역별 인력양성(지방 5개 대학, 10개 과정, 400명), 스포츠 비즈니스 역량강화(6개 과정, 108명)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채용박람회('13.11월) 개최로 일자리 연결 지원

○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14~'18) 수립, 향후 5년간 목표 설정, 추진전략 및 과제 도출하여 정책 기반 마련**

- 향후 5년간('14~'18) 국내 스포츠산업에 IT 등 다양하게 접목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스포츠 잠재수요 확대 등 추진
 - ※ 시장규모 37조원(13년)→53조원(18년), 일자리 23만명(13년)→27만명(18년)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스포츠용품 품질인증(KISS)의 법적 근거 미비

- 현재 민간 자율 인증제로 운영됨에 따라 대외적 공신력이 높지 않음에 따라 법적 근거를 둔 법정 임의 인증제로 개선 필요

□ 조치계획

○ 품질인증제 법제화를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추진(~'14)

- ※ 공청회 개최 등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지원, 현재 국회 계류중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스포츠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콘소시엄을 구성, 스포츠산업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스포츠용품 및 장비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
 - 반도핑 검출 기술, 표준 기반 개인 스포츠이력 관리 기술 등 스포츠과학기술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지원
 - 전문마라톤화 개발, 실감형 루지 시뮬레이터 개발 등을 통해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 기술 및 경기력 향상 제고

□ 주요 성과

- 스포츠산업 기술연구개발(R&D)으로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 △스키 및 보드의 하이브리드 구조재 적용 기술 개발 △실감형 동계스포츠 훈련 체감시스템 융합기술 개발 등 총 10개 과제 계속 지원(52억원)
 - △접이식 전동 폴 골프 카트 △기술혁신 정책 프로세스 기술 △스포츠서비스 R&D 전략 등 4개 과제 신규 지원(7억원)
- 스포츠산업 기술연구개발 과제의 전문성 및 집행투명성 제고
 -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가 사전검토, 외부전문위원을 활용한 과제 선정 및 평가 실시, 유사·중복성 검토 등 전문성 제고
 - 신규과제 수요 조사 및 계속과제 기술특허동향조사 실시하여 국내·외 기술 수요 및 동향을 연구에 반영
 - 과제 진도점검, 연차평가 등을 통한 진도관리 및 이행실태 점검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스포츠산업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율 제고 필요

- 연구개발사업의 논문 등록과 특허 출원 및 등록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 및 사업화는 증가는 정체

□ 조치계획

- 스포츠 R&D 지원사업의 성과 진단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성과 조사·분석 실시('14. 3월 완료)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분석('07~'12년 지원, 74개 과제, 220여개 기관)업무 시행으로 스포츠 R&D 성과 관리체계 점검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계획수립 시 적절한 사전조사 및 이해관계자(가맹경기단체) 의견 수렴
 - 대회선정 및 예산집행계획을 가맹단체가 수립하고 예산 일괄교부 지원(턴키방식)으로 자율성 보장
- 국가대표 상시훈련 실시 및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력 향상 및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 ※ '12년 500백만원 → '13년 750백만원
 - 종목별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 : 목표치 102% 달성
 - 종합국제대회 경기력 향상
 - 2013 농아인올림픽대회 : 종합 3위
- 국제회의참가, 국내인사의 국제기구 진출, NPC 교류 등의 국제 스포츠교류를 통해 스포츠외교력 강화 및 대한민국 위상 제고 (IPC집행위원 1명, APC 상임위원 2명 진출)
 - ※ IPC 집행위원 선출결과 : 총12명 당선(집행위원후보 25명 중 1차 최다 득표(99표/150표) 선출)

□ 주요 성과

- 장애인 국가대표 상시 훈련 강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종목별 국제대회 · 종합국제대회 참가 시 우수 성적 달성
 - 국가대표 상시훈련 총 30개 종목 480명 훈련(평균 60일)
 - 2013 농아인올림픽훈련 총 10개 종목 100명 훈련
 - 역대최대규모 참가 및 최다 메달획득, 종합 3위 (금19, 은11, 동12)
 -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 등 4개 종합대회 참가(총 448명)
 -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 역대최대규모 참가(234명) 및 스페셜올림픽 대국민 인지도 상승(2%→72%)

- APC KL 장애청소년경기대회 최대 종목(10종목), 최대규모(75명) 참가 , 종합10위 - 금11, 은7, 동6)
- IPC 육상세계선수권대회 등 25개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지원
 - '13년 25개 대회 지원, 금42 은37 동37 획득
 - '14년 소치동계PG 출전권 획득(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등 전 종목)
- 국제기구 회의 및 국제대회 참가 시 적극적인 스포츠교류 활동을 통한 장애인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 국제기구 내 국내임원 진출 성공
 - IPC 집행위원(나경원 위원) 및 APC 상임위원(전혜자, 정금중) 진출
 -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ICSD) 집행위원(변승일 회장) 및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협회(IBSA) 집행위원(최동익 회장) 진출
- 종목별·유형별 국제스포츠교류 활동지원(7회)
 -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대한장애인컬링협회, 대한장애인수영연맹, 대한장애인럭비협회, 대한농아인체육연맹,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동계종목 훈련지원 강화 및 우수선수 육성으로 2014 소치동계 PG 부터 2018 평창동계PG까지 단계별 경기력 향상 추진 필요
- 국제스포츠기구 대회정보 공시 지연에 따른 가맹단체의 긴박한 업무추진 및 계획변경 발생 관련 대비책 마련
-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s)와의 양해각서 및 의향서 체결 이후 실질적 후속조치 미흡

□ 조치계획

- 신인 및 꿈나무 선수 육성을 통한 선수 세대교체 및 훈련지원 환경 개선, 대회참가 지원강화('13년도 꿈나무신인선수 캠프 실시)
- 국제대회 참가지원 시 업무협조체계 구축

- 해당 가맹경기단체와 대회 1차 엔트리 제출 시부터 선수단 구성, 훈련 일정 및 예산내역 점검 등의 업무협의를 추진
-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s)와 기 체결된 협약서 내용 철저히 분석 후 단계적으로 협약내용 수행(실질적 교류관계 강화하여 전략적 우호관계 형성)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장애인의 체육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참여율을 볼 수 있으며 ‘지원사업 만족도’의 하락은 양적인 팽창만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제공을 희망하는 욕구가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수 : ‘08년(140천명) → ‘09년(201천명) → ‘10년(230천명) → ‘11년(521천명) → ‘12년(711천명) → ‘13년 목표(720천명)(12월 20일 기준 876천명)
 - 생활체육지원사업 만족도 : ‘10년(80.6점) → ‘11년(86.4점) → ‘12년(86.5점) → ‘13년 목표(87.5점) → ‘13년(84.7점)
-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가맹단체 및 실업팀 지원 등 장애인 체육 인구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토대 정책 수행
 - ⇒ 그 결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의 가시적 효과 표출
 - * 생활체육참여율 : ‘08년(6.3%) → ‘09년(7.0%) → ‘10년(8.3%) → ‘11년(9.6%) → ‘11년(10.6%) → ‘12년(12.3%)

□ 주요 성과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6개시도 230명), 지도자 역량강화교육(3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 활동 수혜자수(‘12년말 876,000명)
- 생활체육대회지원 : 종목별생활체육축제 개최(13개), 어울림생활체육대회(48개소), 생활체육동호인대항전(66개소), 제7회 장애학생체육대회(5.11~14, 15개종목)
- 생활체육사업 지원 : 장애청소년체육교실(230개소), 생활체육교실 및 전통종목육성(335개소), 생활체육동호인지원(147개소)

- 장애인체육 인구 및 선수 확산을 위한 전문체육 지원 :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동·하계 1회), 장애인국내대회(82개), 장애인전문인력양성(66개소, 2,584명), 장애인국제전문체육교류지원(10개소, 114명),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31개), 장애인 시도지부 지원(16개), 장애인실업팀 육성(10개 팀, 50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본계획 이행 필요)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13-’17)’를 통한 정책기반을 마련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미흡, 2014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 필요

□ 조치계획

- 제2차 장애인체육 중장기계획(‘13-’17)을 기반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비전 및 전략체계 수립’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각 부처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민간전문 컨설팅업체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홍보컨설팅 지원을 통해 박근혜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추진력 확보에 기여
-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최신 홍보기법을 실습 중심으로 커리큘럼 운영, 공직자의 정책홍보 역량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
- 국정과제, 현안사항 등에 대한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정책 보도를 실시간 모니터링·분석하여 관계기관(청와대·총리실·부처·국회)과 공유, 정책여론 피드백은 물론 정책홍보 기획·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하는데 기여
 -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도흐름과 쟁점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연중 1,500여건 이상 정부 부처, 정책홍보TF 등에 적기 제공해 홍보적 관점의 시사점 도출 지원
- 국가위기와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분석과 전파, 다각적인 여론분석을 통해 정부의 기민한 위기관리 및 대응체제 지원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철도노조 파업 등 일일 2회 이상 언론 보도 및 여론상황 보고. 주요상황 해당기관에 SMS 통보
 - 확인이 필요한 정책기사는 「홍보상황실」에 등재, 홍보 부서 간 자료 공유를 통해 보다 신속한 현안 대응 체계 가동
- 정부에서 실시하는 브리핑을 각 부처와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정부발표에 대한 언론의 취재지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
 - 사회의 환경변화(모바일환경, 디지털방송,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취재지원 서비스의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주요 성과

- 국정기조 및 주요 국정과제·범정부현안 중심의 과제 선정, 민간 컨설팅 지원 및 여론조사를 통해 △상황분석 △홍보전략 수립 △실행 프로그램 등에 활용, 정책 인지도 확산 및 추진력 확보에 기여
 - 문화융성, 창조경제, 정부 3.0, 4대약 근절, 국민행복제안센터, 행복주택, 문화·여행·스포츠관광 이용권(바우처) 통합, 일하는 방식 개선, 국민행복기금, 소방차 출동로 확보 등 컨설팅 지원(64건)
 - '경찰의 집회시위방식', '취업시장에서의 스펙'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 부처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지원(총 5건)
- 국민 삶의 태도, 가치관 등의 변화추이에 대한 「2013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5년 주기)를 실시, 정부정책 및 사회과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
 - 조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방송 3사 및 7개 일간지, 인터넷 신문 등 다수 보도
- 교육 대상의 수준 및 관심 분야에 따른 차별화된 소통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직자 홍보역량 제고
 - 최신 홍보 트렌드를 정책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역량 및 전문·심화과정을 통해 정책 홍보 능력 배양

<2013 홍보전문교육 현황 : 34회 348명>

△기본역량(2회) △전문·심화과정(홍보기획 1회, 마케팅기획 1회, 뉴미디어 3회, 미디어트레이닝 25회, 언론·미디어의 이해 2회)

- '정책보도 분석자료'(연간 1,500여건 이상)을 정기적으로 부처에 제공, 정책홍보 핵심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 토대로 △정책보도종합(월 100건 이상) △시사 프로그램 분석(월 50여건) △주간 정책보도 분석 △현안분석(월 10건 이상) 제공

<2013 주요 현안분석 현황>

△대통령 방미·방중 등 순방외교 성과 △개성공단 중단 사태 △한일관계 △방공식별구역 확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국정 업무보고 등

- 4대 국정기조 및 140개 국정과제 관련 홍보 추진상황 실적 및 홍보상황 분석 자료를 국무조정실 등에 제공, 홍보 자료로 활용
 - 4대 국정기조(5회), 140개 국정과제(3회 / 4월, 8월, 12월) 분석
- 주요 정책과제 관련 보도흐름과 주요쟁점, 여론추이 등을 종합한 분석자료를 '홍보TF' '정책홍보사전협의'(국민소통실-관련부처)에 제공, 현안 대응력 제고에 기여

<2013 주요 정책과제 분석 현황>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 △학교폭력대책 △철도산업 발전방안 △지역공약 이행계획 △기초연금 △세제개편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부동산정책 △지방공약 이행 계획 △방위비분담금 △국가채무 관련 △공기업 합리화 정책 △4대 환경규제법안 관련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 국가위기상황 및 갈등이슈 발생시 '여론상황 종합'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위기관리 및 대응체제 지원
 - 밀양송전탑 건설 갈등, 철도노조 파업,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사고 등 언론보도·여론상황 일일 2회 이상 보고, 범정부TF 지원
 - 신문 가판 모니터링 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확인필요보도 내역'작성, 홍보자료공유카페인 「홍보상황실」에 등재
- 매체환경과 여론형성과정의 변화를 감안해 종합편성채널 정책 뉴스에 이어 시사-대담 전 프로그램 모니터링 대상 확대
- 정부발표 취재지원 서비스의 다변화
 - 온라인 서비스 확대: 정부발표에 대한 언론 취재지원시스템인 e-브리핑시스템을 확대하여 e-브리핑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 오프라인 서비스 확대 : 정부세종청사 공용 브리핑실(4개소 : 기재부동, 국토부동, 복지부동, 교육부동) 및 기자실(공용기자실, 케이블TV기자실, 카메라기자실) 조성
 - e-브리핑 영상 서비스 품질 강화 추진
 - 현재 서비스 중인 브리핑영상을 SD급에서 HD급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영상 서비스 품질 강화 기반 마련(HD급 장비 보유: 1개소 → 6개소로 확대)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새 정부의 4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주요 국제행사 등의 집중 홍보로 국정운영 기반 마련 및 추진력 확보
 - '희망의 새시대', '문화융성', '4대약', '정전·유엔군 참전 60주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 부처대변인협의회 활성화(격주→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 정례화(월1회), 공공부문 매체협업 홍보, 정책발표 사전협의제 운영,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 TF 운영 등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소통기조 공유 및 주요정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홍보계획 종합·조율
 - 부처대변인협의회 및 온라인대변인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4대 국정과제 및 주요현안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홍보기조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홍보를 위한 부처간 소통함으로써 부처 간 이견과 혼선을 최소화
 - 정책별 SNS 언급량, 연관키워드 등 온라인 정책여론 상시 모니터링 및 부처간 실시간 공유
 - 부처·공공기관 보유매체 홍보협업 체계 구축(4월~)
 - 부처 및 공공기관 매체활용 협력홍보를 시스템화하여 정책 관련 광고·영상물 등의 'One Source-Multi Use' 협업홍보 활성화
 - 발표 메시지, 예상쟁점 등 정책발표 전 사전 홍보협의 시스템화
 - 정책입안부서-대변인실-문체부 국민소통실간 회의 개최, 홍보 전략 및 대응방향 논의
 - 문화융성, 창조경제, 정부3.0, 고용률 70%, 4대약 근절 등 5개 TF 운영
 - 철도과업, 의료민영화 등 주요이슈에 대해 소통실·관계부처 TF를 통해 신속 대응

□ 주요 성과

-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춘 국정철학 및 주요 정책사항 광고로 대 국민 인지도 제고 및 국격 제고 기여
 - (국정비전 및 국정기조) 희망의 새 시대(6~7월), 문화융성(10~11월)
 - (국민안전 및 민생정책) 에너지 절약,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안전사회 KBS 공동 캠페인, 국민안전·생활편의정책 등
 - 전광판, 국정만화 등을 통한 신속한 생활정보 제공
 - ‘4대악 근절’관계부처 협력 공동 캠페인으로 사회체감 안전도 제고 및 학교폭력 감소
- * 2013년 체감안전도 65.7, 2012년 59.4(분야별 안전도 설문조사, 경찰청 6.4)
- * 학교폭력 피해학생 비율 1.9%, 2012년 12.3% (학교폭력실태조사, 교육부 11.28)

<4대악 근절 캠페인 추진 실적>

- 문체부 주관, 경찰청·여가부·법무부·안행부·교육부·식약처 등 7개 부처가 협력하는 4대악 근절 홍보TF 구성, 통합 홍보전략 수립·시행
- 4대악 근절 캠페인 영상 제작 및 KBS 1,2TV, 전광판, 엘리베이터, 고속도로 휴게소, 유튜브 등 집중 송출(9.16~11.15), 결과(별첨)
- 관계부처 상호 협력 체계 구축(MOU 체결 등)으로 정책실효성 확대
 - ▲법무부-여가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교육부-경찰청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 ▲여가부-경찰청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지원 등
- 2만여개 민간 업소(화장품 매장, 은행, 편의점 등)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포스터 게시, 리플릿 배포 등(여가부·경찰청 ‘해바라기 캠페인’)
- 종교단체, 통신3사, 극장, 주류업체 등과 협력하여 간행물, 고지서, 극장광고, 제품 포장 등에 신고정보와 공동 슬로건 표기(경찰청)

별첨 4대악 근절 안전사회 캠페인 추진 결과

1. 개요

- (목적) 국정과제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대국민 안전 의식 및 관심 제고
- (내용) 4대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시작’ 편(9월)과 참여를 유도하는 ‘약속’ 편(10월-11월) 2편 제작 활용
- (연예인 무료 동행) 임권택, 백윤식, 임정아, 박주미, 장혁, 이보영, 다니엘헤니, 이재훈, 이준, 정종화, 김우빈, 아이유, 김소현 (13명)

2. 추진 실적

- 대체별 통합 홍보 현황

매체	내용	기간	비고
TV (429회)	KBS 1,2TV	9.16~11.15	185회
신우,정지	KBS네트워크	9.16~11.16	244회
온라인	154개 매체	6.17~6.24	지역신문 115, 전문지 26, 잡지 13개
유튜브	유튜브(홍리씨)	9.16	초회주 확산 14만
엘리베이터 모니터	엘리베이터 모니터	10.16~11.15	4만여대
전광판	전광판	10월	전국 210기
서버버스 모니터	서버버스 모니터	10월~11월	1007대
고속도로 휴게소	프로야구경기장	10.8~11.1	목동, 대구, 잠실(경기당 2회), 178개소

3. 추진 성과

-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한 홍보효과 제고

부처	협력 매체
문체부	전광판·서버버스 모니터, KTV, SAFE TV 송출
안행부	엘리베이터 모니터(4만대), 프로야구경기장 상영 지원
경찰청	홍보모델 지원 아이유, 이재훈, 임정아
식약처	전국교육도로 휴게소(178) 지방 식약처 전광판 송출
교육부	행복학교 박람회(간행물)에서 홍보영상으로 활용

- 참여 연예인들의 인터뷰(9편), 각부처 SNS, 정기간행물 등 활용
- 부처 캠페인에 활용(교육부 학교폭력 방지 블루밴드,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 전화 등)

- 스타들의 참여(제능 기부)를 통한 관심 제고

- 발표 메시지, 예상쟁점 등 정책발표 전 사전 홍보협의 시스템화
 - 공약가계부 등 핵심 국정과제 대상으로 협의 실시, 쟁점 대비 및 여론의 수용성 강화 메시지 강구하여 여론 연착륙
 - ‘재원 조달방안 부재, 공약후퇴’등 언론 비판예상 쟁점 대비, 일관된 메시지 제시로 공약사항 실현 가능성 우려 불식

☞ (사례) 공약가계부(기재부)

- (홍보방안) 발표 전 △언론 대상 협력 △부처 간 이견 방지를 통한 약속이행의지 부각
- (언론평가) “국민과 약속 반드시 지키되, 부담 최소화” 정부의 강한 의지 긍정 평가
<국민 6.1> 복지지출이 59%... ‘국민행복시대’에 초점 맞췄다

- 주택정책 등 부처 정책현안 대상, 과제 발표 효과성 제고
 - 과거 대책과의 차별성 부각을 위한 메시지 강구, 언론의 긍정 평가 및 시장·학교 등 정책 파급력 제고

☞ (사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복지부)

- (홍보방안) 국민 입장에서 새롭게 보험 적용받는 항목 중심의 사례 부각
- (언론평가) “비급여 서비스를 건보 관리체계로 끌어들이며 진료비 낮추는 진일보한 대책”
<조선·한국 6.27> 암·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평균 43% 줄어든다

- 밀양송전탑 문제 등 갈등현안에 대한 지속적 홍보상황 점검 및 홍보 가이드를 통해 갈등 확대 방지 노력 성과
 - 정책 당국의 입장이 아닌 홍보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하여 긴장·갈등 상황 완화 노력

☞ (사례) 에너지상대가격 체계 합리화(산업부)

- (홍보방안)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 사전 공감대 형성이 중요, 가계 부담 최소화” 강조
- (언론평가) 다수 매체에서 “가격 인상으로 전기 과소비 잡겠다” 의지로 해석

- 2014 예산안, 국민행복기금 등 43개 생활밀착형 정책과제 대상 공공매체(39개 부처 및 산하·공공기관·민간 보유 334개 매체 대상) 협업홍보 실시

☞ (주요 실적)

- ▲(5월)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복지부) 등 6개 정책과제 ▲(6월)여름철 에너지 절약 홍보(산업부) 등 6개 정책과제 ▲(7월)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생활문화 확산(국토부) 등 6개 정책과제 ▲(8월)<창조경제>무한상상 아이디어 프로젝트 지식재산 창출 보호·활용 선진화 전략(중기청) 등 6개 정책과제 ▲(9월)2013년 추석 민생안정 대책(기재부) 등 5개 정책과제 ▲(10월)수산물 방사능 걱정 뚝 안심하고 드세요(해수부) 등 6개 정책과제 ▲(11월)지구 끝 새로운 미래, ‘新 해양실�크로드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공(해수부) 등 6개 정책과제 ▲(12월)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환경부) 등 7개 정책과제

※ ‘13.5월 시행 후 참여매체 지속 확대(초기 91개 매체 → 현재 334개 매체)

-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홍보 매체를 홍보에 공동으로 이용, 별도 비용 없이 홍보콘텐츠 파급 효과 제고

☞ (사례)

- 정부 3.0 홍보영상(안행부) → 지하철 2·5·6호선 모니터(국토부) 등 활용, 대국민 홍보
- 창조경제타운(미래부) → 대학교내 전광판(기상청), 사회적기업 매거진(고용부) 등 활용, 취업 및 창업 관심계층 대상 홍보
-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산업부) → 신한은행 사보 및 국민은행 영업점 TV(금융위), 주요 공공기관 청사 등 직장인 대상 홍보
- 추석 민생안정 대책(기재부) → 추석 연휴 前 일주일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국토부) 및 세종시 BRT 버스안내광고(행복청) 등 대중교통 접점 활용 홍보

⇒ 부처 협업홍보에 대해, 다수 부처가 ①국민중심 정책 홍보방안 수립 ②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 ③부처 간 one-voice 유지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 평가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향후 발표될 주요정책 사안의 선제적 홍보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소통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성 제기
 - 주요 정책이슈의 경우,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점검 강화 계획
- 정부 내에서 사전협의제 활용도 제고
 - 사전협의를 경험한 부처에서는 그 효용성을 감안하여 추가 협의 요청 활발하나, 未참여 부처는 자료보안 및 민감 사안 노출 등을 이유로 사전협의 기피
- 원활한 자료 공유시스템 개선 필요
 - 하반기 선정된 홍보콘텐츠 자료 공유시 일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공공기관 자료 확산에 운영이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정부 주요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홍보 간행물 발행을 통하여 국민과의 소통 확대 및 정책 이해도 제고
 - 위클리 공감, 카툰 공감, 손끝으로 읽는 국정, 리플렛, 성과사진집 등 정기·수시 간행물 발간
-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정책홍보 간행물 적시발간과 대국민 배포를 통해 충실한 정책 홍보
 -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논리 개발 및 간행물 기획·발간
-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한 주요 정책정보 종합서비스 및 정책정보 확산
 - 새 정부 국정철학·과제 등에 대한 기획홍보 추진 등 정책정보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되돌아본 2013년 정책 핫 이슈
 - *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새 정부 첫 해 주요 정책 리뷰
 - 사이트 명칭 변경 : 공감코리아 → 정책브리핑
 - * ‘공감코리아’ 명칭이 ‘정책’ 이미지와 바로 연결되지 않아 인지도 제고에 한계
 - *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브리핑’으로 명칭 변경
 - ‘정책 하이라이트’ 신설, 국정과제 및 당일 발표 정책이슈 부각
 - 수용자 중심 메뉴 개발 : ‘희망’사다리’ 특집 페이지 제작
 - * 국민 개개인(8개 카테고리: 노인, 청소년 등)이 필요한 생활 정책 안내
 - 정책포털 내 검색기능 강화
 - * 사이트를 콘텐츠형과 검색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홍보,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정책 기자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제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전달하고, 일자리 정보 등 국민이 관심 있는 실용정보 확산으로 정책 이해도 증진 및 국민 소통 강화
- 민간포털 등 외부사이트와의 콘텐츠 제휴 연계 및 협력사업 지속 강화를 통해 일반인의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

□ 주요 성과

-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생활밀착형 정보와 정부가 알리고자 하는 주요정책을 부족한 예산과 한정된 지면을 효율적으로 운용·활용하여 부수와 지면 활용도를 최대한 늘리고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을 통해 대국민 소통 역할 충실히 수행
 - 안정된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지속추진 : 1,842,000부
 - 정부대표 종이매체 정책정보지 '위클리 공감' 제작
→ 1,470,000부 발행 : 주간, 3만부 대국민 배포
 - 정부 유일 카툰(만화) 정책 정보지 '카툰 공감' 제작
→ 360,000부 발행 : 월간, 3만부 학생 등 젊은층 공략 배포
 -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대표 정책 정보 점자간행물 '손 끝으로 읽는 국정' 제작
→ 12,000부 발행 : 월간, 1천부 시각장애인 배포
 - 주요 정책 및 현안 홍보 비정기 간행물 발간 : 676,000부
 - 국민생활 정책정보 제공, 새정부 국정비전 소개, 대통령 인수위 백서, 대통령연설문, 고향가는 길 등 11종
- 정책정보 사각지대 및 무관심 계층을 위한 홍보 콘텐츠 개선과 정책홍보 소외 대상자 정보 접근 편의성 확대
 - 만화정책지 : 친근한 콘텐츠 젊은 주제 지향 젊은 층 타깃 홍보
 - 점자간행물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보이스 아이스 활용 오디오 북 기능 수행
- 정책홍보간행물 제작 관계자와 간담회·워크숍을 통해 전문가 의견조사 및 홍보의 효율성 제고

- 지속적인 정책간행물 품질 제고 및 배포처 개선 노력
 - 매호 지속적 정책홍보 콘텐츠 보강 및 표지 등 디자인 개선
 - 정책 수요층, 오피니언 리더, 다중이용 장소 등 맞춤형 배포
- 정책 현안과 연계한 홍보메시지 및 홍보콘텐츠 개발로 효과적 홍보 추진
 - 국민생활 정책정보, 문화융성, 창조경제, 4대약 근절 등 홍보 콘텐츠 및 국정 아젠다 담론 확산
- 새정부 국정철학, 주요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기획 특집페이지 및 정책포커스 코너 운영, 주요 이슈 홍보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에 기여
 - 박근혜정부 출범, 안전한 사회(4대약 근절) 등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이슈에 대한 특집페이지 운영을 통한 주제별 종합서비스 제공
 - * 박근혜 정부 출범, 안전한 사회(4대약 근절), 전기절약, 희망사다리, 문화의 달 등 특집페이지 제작 운영
 - 주요 현안별 정책포커스 운영으로 홍보 이슈에 대한 대응성 강화
 - * 부처 업무보고, 문화융성, 창조경제, 정부 3.0 등 13개 주제
 - '대한민국 희망 우체통'(2~3월), '승례문 복구'(5월), '국민행복'(6~7월), '전기절약'(7~8월), '정책브리핑'(9~10월)', 대통령 정상 외교 메뉴 신설(10월), '문화융성'(10월), 일반인 대상 정책브리핑 정책 SMS 서비스 기획(12월) 등 홍보 프로모션을 통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찾아가는 홍보,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정책 기자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제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전달하고, 국민이 관심있는 실용정보 확산으로 정책 이해도 증진 및 국민 소통 강화
 - * 2013년도 제 6기 정책기자단 운영(145명), 12월말 현재 633건 기사 생산
 - * 생산된 콘텐츠는 정책기자마당(정책브리핑의 하위 사이트) 게재
 - 생활정책 서비스 강화를 위한 희망사다리 특집페이지 구축, 운영으로 저소득층·취업희망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서민정책 정보 제공

- *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국민생활정책(희망사다리)’ 특집페이지 제작·운영(8.23.~)
- 부처별 인포그래픽, 카툰, 동영상, 사진 등 국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용력이 큰 연성 콘텐츠 수집 및 원스톱 제공
- 민간포털 등 외부 사이트와의 콘텐츠 제휴 연계를 지속 강화하여 일반인의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
 - 3대 민간포털, 주요 공공포털, 법률저널·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 기관 홈페이지 콘텐츠 제휴를 통한 정책정보 확산
 - 주요 정책키워드를 개발, 관련 정책정보를 온라인 콘텐츠로 요약·구성하여 민간포털 키워드 검색시 해당정보 노출
 - * ‘13 등록키워드 : 부처업무보고, 창조경제, 주택시장정상화 종합대책, 공약가계부, 정부3.0, 2014 예산안 등
- ‘소셜메타블로그’ 메뉴 운영(<http://social.korea.kr>)으로 부처별 운영 중인 블로그, SNS 콘텐츠를 연계·종합서비스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이용 편리성 제고
- 국정과제사진 등 국가 주요현안을 활용한 전 부처 기록사진 수집 및 공유로 온라인 사진 전시
- 과거 국정기록사진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간행물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필요
 - 정책홍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디자인 등 지속 개선
- 정책포털 만족도 조사결과 시스템의 편의성 및 기능성은 대폭 개선되었으나, 콘텐츠의 다양성 및 쉽고 자세한 정보게재 요구 사항이 다소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조치계획

- 국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례중심의 콘텐츠 개발 강화
- 정책 콘텐츠 수요층에 맞춘 정기·수시 간행물 발간방식 다양화
- 위클리 공감 독자 및 정책 수요자에 맞춘 온라인 콘텐츠 강화

- 인포그래픽 · 웹툰 등 이해하기 쉬운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 확산
- 정책브리핑 모바일 및 검색 서비스 개선 추진
 - 주요 키워드에 대한 키워드 메뉴바 및 테마검색 기능 추가 등
 - 모바일 서비스 방문자 확대를 위해 연성 콘텐츠인 '정책플러스' 메뉴 추가 등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국민 참여를 통한 정부-국민간 소통 기회 마련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로 쌍방향 홍보 기회 마련
 - 'SNS국민리포터'를 통해 주요 국가행사 및 정책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재확산함으로써 풍성한 홍보 콘텐츠 생산
 -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청년정책에 대한 대학생 PR전략발표회로 현장감 있고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 수렴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기여
- 민관협업 형태의 문화예술을 활용 학교폭력 치유 캠페인 추진
 - 기업,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 협력으로 △학교폭력 피해가족 힐링 캠프, △청소년 뮤지컬 학교 순회공연 등 사회공헌 캠페인 공동 추진
- 온라인 환경변화에 발맞춰 정부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의 안정적 운영 및 모바일 채널 신설로 대국민 접점을 확대 하고 온라인 이슈에 대한 부처 협력 강화로 정책 소통 활성화
 - 정부대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통 채널의 안정적 운영·영상 서비스 중심의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는 한편, 모바일 중심의 카카오톡 채널 개설로 정책 콘텐츠 확산은 물론, 국민의 정책이해도 및 친근감 제고
 - 새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홍보현안에 대하여 부처 협력을 통한 연계 홍보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보 제공 및 홍보 효율성 제고
- 국민 참여 프로모션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문화융성(국정기조)의 가치공유를 위한 온라인 국민 참여프로그램 추진으로 국민의 적극적 문화향유 및 문화를 통한 소통 활성화
-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SNS 및 부처 대표 SNS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SNS 활용기반 확산 및 소통 활성화 제고

□ 주요 성과

-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
 - 이슈별 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직접면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함
- 사회 각 부분별 단체와 소통 및 협력 강화 관련
 - 청년정책 및 대국민소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학생소통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대학생 및 청년의 고민과 목소리 경청
 - 홍보 관련 학회와의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 후원을 통해 정책소통 방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지식 활용 및 소통 채널 구축
 - 민관협업 형태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학교폭력 치유 캠페인’ 추진
 - 기업,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 협력으로 △학교폭력 피해가족 힐링 캠프, △청소년 뮤지컬 학교 순회공연 등 사회공헌 캠페인 공동 추진

- 문체부(정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NGO)-신한생명보험(기업)간 3자 업무협약 체결(3.25)
- 청소년 뮤지컬 ‘유령친구’ 학교순회 공연(5~8월), 학교 폭력예방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6~11월), 청소년 연극치료 캠프(5.31~6.2), 학교폭력 피해가족 힐링캠프(7.28) 개최
 - 청소년 뮤지컬 <유령친구> 학교공연(12회) 결과
 - 관람인원 : 6,000여명(중고교 학생, 교사, 학부모 등)
 - 보도: EBS <폭력없는 학교>, KTV(정책뉴스 KTV 10), 언론을 통해 사례 소개
 - 청소년 연극치료 캠프 결과
 - 참여: 100여명(학교폭력 고위험군 학생, 연극치료사 등)
 - 보도: KTV(정책오늘, 희망대한민국), 언론에 사례 소개

- 정부대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 다양한 소통채널의 운영으로 정책 콘텐츠 접근성 제고
 - 영상 소비 확대 추세에 발맞춰 영상 중심의 SNS 유튜브*를 활성화 하여 정부대표 페이스북 등 다른 SNS와 연계 운영
 - * 정부대표 유튜브 친구수는 부처 1위(‘12.12 3,472명→’13.12→8.8만)
 - 모바일 중심의 카카오톡 채널(대한민국 정부*)을 개설, 푸시메시지를 통한 대국민 점점 확대
 - * 정부대표 카카오톡 6월 개설, 푸시메시지 11회 발송(‘13.12 현재 친구수 15.6만)
-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인포그래픽 등 시각 콘텐츠의 활성화
 - 가계공약부 등 주요 정책 발표시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의 제작 및 확산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 유도

- * 사용자의 행동(클릭)에 따라 인포그래픽 내용이 노출되도록 구성한 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제작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를 통해 정부 인포그래픽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부처 대상 인포그래픽 제작 교육, 부처 제작 인포그래픽 책자 제작 등으로 활성화 유도
- * 국정기조별 색상, 정부인포그래픽 상징물 등으로 개별적이던 부처 인포그래픽에 정체성을 부여
- 온라인대변인 회의 운영을 통한 정부 온라인 홍보 역량 제고 및 부처 협력홍보 체계화
 - 최신 ICT트렌드 분석, 우수 홍보사례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홍보 기법 함양 및 온라인 홍보 역량 강화
 - 부처 협력홍보를 통한 국정과제 확산 및 주요 홍보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확산
- 온라인 국민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 및 가치 공유
 - 문화콘텐츠의 단순 소비에서 벗어나 문화콘텐츠 생산 동참 유도 등 국민들의 적극적 문화향유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융성 가치 확산에 기여
 - ※ 사업기간 동안 참가 동영상 350여 편, 홈페이지 방문자 23만 명 기록, 오프라인 공연 11회, 관람객 1만1천여 명, 행사 관련 언론보도 100여 건
 - 공연기획자와 공연예술가들을 중개하는 시범서비스 제공, 아마추어 공연예술가들의 활동 지원함으로써 문화생태계 다양성 확대에 기여
 - ※ 별도 구축 홈페이지를 통한 매칭 정보서비스 제공, 북서울미술관 공연, 포천 나눔의 집 공연, 천안 단국대병원 공연 등 성사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문화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문화소의 지역·계층의 문화 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 격차 해소
 - 민간 포털 Daum, 주요 저작권 단체 및 문화콘텐츠 유통기업과 민관협업사업 방식의 추진으로 민간의 문화융성 공감대 확산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홍보 주제가 국가 주요행사 위주로 홍보 콘셉트의 다양성 부족
 - 민간부문과의 협업으로 생활밀착형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체험 프로그램 발굴 필요
- 정부 SNS 전문역량과 관련, 온라인 홍보 기획·관리 역량은 강화되었으나, 콘텐츠 제작·채널 운영을 위한 실무자급 전문 역량 보강 필요
- 모바일 중심 SNS 등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과 범정부 온라인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국민 접점을 넓히고 홍보 효율성을 높인 반면,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적시에 적절한 플랫폼에 활용하는 면에서는 다소 미흡
 - 영상, 인포그래픽,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방법 모색 필요
 - 블로그, 인포그래픽, 영상 등 각종 콘텐츠를 모바일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 및 재가공 방안 모색 필요
- 시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접근성과 확산성이 좋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오프라인 공연과의 연계를 통해 온-오프 통합 사업모델을
 -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는 일반 국민들의 좀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마련 필요

□ 조치계획

- 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구조 다변화
 - 기존 방식의 영상/인포그래픽 등의 멀티미디어 제작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 적기 홍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짧은 시간에 제작할 수 있는 방안 추진(부처 담당자 인터뷰 영상 등)
- 모바일 플랫폼용 콘텐츠 제작 강화
 - 기사, 웹툰, 인포그래픽 등 기존 블로그 콘텐츠를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재가공, 카카오톡 등 모바일 콘텐츠로 활용
 - 소셜 큐레이션 사이트 '정책공감+'의 모바일 최적화로 이용 가능성 증대

- 다양하고 안정적인 매칭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 참여도 제고
 - 지자체 및 지역문화단체와 연계, '위문 공연' 등 전문적 공연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공연기획 매칭을 통해 일반 이용자의 참여 확대
 - 불특정 대중이 아닌, 지역문화센터 회원 등 타겟 고객층의 명확화
 - 지역과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추진
 -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으로 사업의 지속성 확보
 - 오프라인 공연 등 1회성 행사 위주가 아닌,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접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집중
 - 로드뷰 등 증강현실,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UI,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현장성 및 이용편의도 제고
 - 문화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 계기별/시기별 오프라인 공연 개최를 통해 플랫폼 운영의 모멘텀 확보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케이블·위성·IPTV·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정부정책 등 공공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정책공급자와 수혜자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 국민들의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임
- 국정비전 홍보강화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신뢰라는 사회자본 형성에 크게 기여
 - 국정과제, 새 정부 국정기조 등 집중 조명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정책전문채널에서 국민희망채널로 방향성을 전환하고 국민 친화형 프로그램 확대
 - 국민 편익을 위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 확대
 - 'KTV국민방송'으로 채널명칭 변경 및 기관 로고 변경, 대국민 친밀도 제고
- 시청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NS 등 플랫폼 다변화 및 저채널화를 위한 채널 마케팅 적극 노력
 - 정책영상콘텐츠 허브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스마트 미디어용 콘텐츠 개발·유통 강화
 - 채널인지도 제고 및 시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채널 마케팅 추진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 경쟁력 있는 전문방송기관으로 시스템 개선
 - 정책콘텐츠 허브 기능 강화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 결정 구조로 조직 개편 단행(정책콘텐츠부 신설, 부·팀제로 개편)
 - 세종청사 이전을 위한 방송 장비·시설 이전 계획 수립 및 중단 없는 방송을 위한 준비 철저

- 정부 3.0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민간에 정부영상자료 확대 개방을 위해 KTV 영상자료규정 개정(이용료 90%인하)

□ 주요 성과

- 정책전문채널에서 '국민희망채널'로 전환
 - 국민이 찾아보는 '국민행복 프로그램' 중점 편성
 - * 뉴스편성 축소 : 주간 45회, 20시간 50분 → 주간 15회, 6시간 미만 축소
 - * 희망뉴스 편성 → 희망의 새 시대, 국민행복시대(주5회)
 - 생동감 있는 정책의 현장성과 생활정보 강화
 - * “정책현장을 가다”, “생생 경제”, “KTV 중계석”
 - * 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 : 국외이송약취사건(3.21), 키코소송(7.18), 통상 임금소송(9.5), 지식재산권 소송 컨퍼런스(10.22)
 - 국민 편익·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콘텐츠 제작
 - *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민원), “4대악 추방캠페인”, 특별생방송 “성폭력 친고죄 폐지”, “층간 소음 줄이기 캠페인”,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 “KTV 문화가 있는 삶” 중계 등
 - 국민과 소통하는 참여 프로그램 확대
 - * “파워특강”, “고택음악회”, “국악콘서트 울림”, “희망 창의 교육”, “내 아들 군대 간다”, “대한너우스와 함께하는 리사이틀 인생쇼”
 - 국민리포트 확대 등 세대·계층·지역별 공감 프로그램 활성화
 - * 국민리포트 : 대학생·시니어·글로벌·주부 기자단 활용, 일 15분 내외/ 국민 리포트 주1회(60분) 방영
 - * “공공일자리를 잡아라”(청년층), “귀농다큐, 살어리랏다”(중장년층), “다문화 소통캠프 우리는 한가족”(다문화), “지역이 미래다”(지자체장 출연, 총43회 방영) “문화융성의 길잡이 지방문화원”(지역문화), “멘토링 토크 시대공감 Q”, “다큐멘터리 희망”,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등
 - 「KTV 국민방송」으로 채널명칭 및 로고 변경('13.11월)
 - * 전국민 대상 기관명칭 공모전 추진(8.1~10.18), 로고제작(11월), 사전홍보(11~12월)
- 국정비전 홍보 강화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
 - 국정과제 집중기획 프로그램 신설

- (프로그램) “KTV 현장다큐 문화 행복시대”(주1회, 30분), “KTV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주1회, 30분), “KTV 기획 대한민국 희망 창조경제”(주1회, 30분)
 - * 핵심정책 밀착 아이템 발굴, 정책수혜 실질적 체감 효과 중점 부각
- 특집 프로그램을 통한 새 정부 국정기조 집중조명
 - * KTV 특집 “미래코리아, 동북아 중심에 서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다” (4부작), “창조경제, 세상을 변화시키다”(2부작), “새시대 한미동맹 60주년, 그 미래를 선언하다”(2부작), “한중관계, 신뢰외교의 새 역사를 쓰다” (2부작) “창조경제 이스라엘을 가다”(2부작), “다자외교의 서막을 열다”, “다자경제외교 2막을 열다”, “창조경제 · 문화융성! 외교지평을 넓히다”
- 국민갈등해소와 통합가치 창출을 위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협업
 - * 특별생방송“국민통합 공감토론회(11월)”, KTV중계석“말(언어)문화 개선 운동 토론회(11월)”, KTV중계석“국민대통합 추진전략 공청회(12월)”, KTV중계석“지역갈등 토론회(12월)” - 국민대통합위 홈페이지에 KTV on air 링크와 유튜브 중계
-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캠페인 SB물 제작·확산
 - * “정전 60주년 특집, 대한민국 바로 알기”제작(3분*3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2분),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1분), “당신의 행복이 우선입니다”(40초), “대한민국 희망우체통”(2분*5편)
- 플랫폼 다변화 및 채널 마케팅 강화를 통한 정책접근성 제고
 - 정책콘텐츠 허브 기관 구축 기반 마련
 - * 전담부서(정책콘텐츠부) 신설(7.15), HD VOD 전용 인터넷방송, 소셜 미디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완료
 -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개발 · 유통 강화
 - SNS(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 등)를 통한 정책 콘텐츠 확산
 - *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5월), SNS용 콘텐츠 18,632건 제작
 - KTV 뉴스 속보 SMS(단문서비스) 제공
 - * 주요 고객 2,443명 대상, 일 1회(주 5회) 이상 발송(8.1~12.31)
 - 정부부처, 유관기관, 민간포털(네이버, 다음, 판도라, 곰TV 등)내 KTV 콘텐츠 제공

- * 정부 45개 부처 대상 뉴스레터 6,480건/ 민간포털 33,237건 제공
- KTV 주요 뉴스 전국 옥외 광고물(전광판) 표출
 - * 서울·경기지역 9개소 시범실시, 이시각 주요뉴스 등 송출(9.2~12.31)
- 미래부·MSO 등 관계기관 방문 등 저채널화 지속 추진
 - * IPTV, 케이블 등 채널 변경 : KT(215→43번), 남인천방송(96→27번), 광주 방송(72→44번)
- 타매체, 유관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 지속 확장
 - * MOU체결 기관인 국방일보·새마을운동신문에 무료 광고 게재
- 경쟁력 있는 방송전문조직으로 시스템 정비
 - 방송전문기관으로서 보다 유연한 부·팀제로 조직 개편(1기획관 6과→7부, 7.15)
 - * 정책콘텐츠부 신설(정책콘텐츠 허브 기능 강화) , 책임방송 구현을 위한 팀제 실시(16팀) 등
 - * 기존에 분리되었던 예산과 기획 기능 통합(기획편성부), 전산 및 디지털 시스템 통합(정책콘텐츠부), 영상물 편집기능 부서 조정 등
 - 국민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환류 기능 강화
 -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재구성(10인, 9.30),
 - * KTV 방송 모니터 운영(시청자 모니터 5명, 전문 모니터 5명)
 - 세종시 청사 차질 없는 이전 및 서울방송센터 설치 추진
 - * 세종시 청사이전 TF 구성·운영 / 세종시 청사이전비(197억원) 확보
 - * 방송장비 이전계획 수립용역(5월), 방송시스템 이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공사 실시설계 추진(12월)
 - * 서울방송센터 추진 TF 구성·운영 / 안행부·기재부 등 관계기관 지속 협의
 - HD디지털방송('13년 전면 실시)에 맞는 효율적인 방송영상자료 관리
 - 「대한뉴스」 예비촬영 필름, 문화영화 필름 등(총 233시간) HD 디지털
 - 효과적인 디지털 변환 사업을 위한 필름서고 기초조사 실시
 - * 예비KC('66~'05) 2,494칸, 문화영화KC('83~'05) 497편 3328칸, 보안필름 259편, 극영화 171칸, 문화영화 원본(누락포함) 789편 5,200칸
 - 현대사를 보여주는 문화영화 2,773편 목록집 수록 제작
 - 정부기록영상물을 저작권으로 등록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

- * '대한뉴스' 22호~2040호(2,019편), 문화영화 '한국인의 인상' 등(2,773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
- MOU 체결 방송사(53개사)에 우수방송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책
콘텐츠 확산에 기여
- * '인문학열전' 등 66종 총 3,255벌 제공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시청률 제고를 위해 정책현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및 지속적인 채널 마케팅 추진 필요

□ 조치계획

- 채널인지도 제고 및 시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채널 마케팅 추진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미흡·부진 과제 및 사유	개선·조치계획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 학예사 인건비 지원시 등급별 차등 지원 필요 - 교육사(에듀케이터) 자격 요건 강화 필요	○'14년 사업계획 수립시 학예사 등급별로 차등화 하여 인건비를 지급 하고 및 교사자격증 이외 문화예술교육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 검토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구축 - 종교문화시설건립 집행률 부진 - 2013년도 종교문화시설 11개소 중 8개소가 2012년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지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부진	○향후 지방비 확보 상황 점검 등 사업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공정율을 반영하는 등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 성과지표 중 '전당 시범콘텐츠 만족도'의 목표치(68.5%)가 지난 2년간 실적치('11년 70%, '12년 75.6%)를 감안할 때 낮게 설정됨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시 그 간의 추세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추진일정을 엄격히 관리
○해외문화교류 인프라 및 한국 문화 저변 확대 - 문화원 신설에 있어 현지 국가에서의 돌발 상황 발생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미흡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개원('14.6월~) - 현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이집트 정세가 완화되면 '14.6월 이후 개원 예정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 추진계획 중 일부 일정이 지연 또는 변경 추진됨	○대부분의 추진계획이 해외에서 다른 나라와 관련된 행사가 주를 이루는 만큼 보다 계획적인 추진일정 수립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임
○국립국악중고 운영 - 성과목표의 적극적 설정 필요(입상실적 목표치 92건/달성 139건)	○'11~'13년 실적치를 분석하여 '14년도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전통예술중고 지원 -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 교실의 축소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공연을 실시하여 국악의 저변확대에 노력 - '예술꽃 씨앗학교' 및 국악교육중점학교 등 지역별 거점학교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특화프로그램 운영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 성과지표 '국악방송 청취자 만족도'는 국악방송 운영사업의 지표로는 적절하지만,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의 성과지표로서는 부적절	○'14년부터 과제 또는 지표 조정을 통해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 멘토링 종료 후 교육생 경력경로의 면밀한 관리 및 후속 지원 확대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필요 * 대학생 등 예비인력의 지속적인 배출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는 전문경력직 선호 등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창작인력은 부족	○'12~'13년도 창의인재 동반사업 수료생 전체를 대상으로 경력경로 추적 조사 실시 (~2014.2) - 경력개발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후속지원방안을 '14년 사업에 반영 예정 ○창의인재 동반사업 Post 창작 지원사업 시범추진(청년 창의프로젝트, '13 추경사업) - 젊고 재능 있는 창작자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제작, 발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25억원) ○산업계 수요에 맞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현업 교육과정인 스마트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기획프로듀서양성 신규 추진

미흡·부진 과제 및 사유	개선·조치계획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교육중심의 전략지역 전문가 해외연수를 한류콘텐츠 수출인력 양성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 과정으로 전환
<p>○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저작권 교육 방안 개선 필요 · 청소년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청년강사(138명)를 통한 교육이 대부분(99%)을 차지하여,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교육 방안 마련 필요 - 대중매체 및 SNS 활용 저작권 홍보 콘텐츠 활용 확대 · 최근 다변화되고 있는 스마트환경에 맞게 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저작권 홍보 필요 - 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 홍보 및 유관기관 홍보 협력 확대 · 온라인 및 SNS 이용도가 낮은 문화예술인 대상 홍보 강화 필요 	<p>○교원을 통한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 실시('14.3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내 저작권 내용 반영, 저작권 체험교실 강화, 교원직무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저작권 교육 강사로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 실시 <p>○대중매체 활용 대국민 저작권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대 젊은 층을 포함한 일반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관 및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저작권 홍보영상 제작·송출('14.3~10월) <p>○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 홍보 및 유관기관 홍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의 참여도가 높은 저작권 산업 관련 행사 참여 홍보를 통한 창작자 대상 홍보 효과 제고 (※저작권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 연계) - 관련 기관 행사 공동개최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 증진 및 협력('14.6월, 10월 예정)
<p>○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신문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실태 점검 정례화 및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p>○신문법에 명시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정례화(2년 단위)</p> <p>○시도에 실태점검 결과송부 및 후속조치 요청, 조치 결과 확인을 통해 미디어환경 개선 추진</p>
<p>○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사 또는 인쇄업자는 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지자체에 신고필증 반납하여야 하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하였으나 지자체에 신고필증 반납하지 않아 등록세가 부과되는 사례 존재 	<p>○출판·인쇄업 폐업 관련, 직권말소제도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지자체는 그 영업을 직권으로 말소
<p>○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사업의 경우 관광기금을 사용함에 따라 문화유산 활용사업 확대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음 - 사업 주체와 예산 지원 주체 불일치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 * 문화재청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p>○관광기금으로 편성된 공필 활용 프로그램 예산(창덕궁 달빛기행 등) 문화재청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추진의 통일성과 발전 도모</p> <p>* '14년 전환내역 : 14개 사업 6,450백만원(문체부 관광기금→문화재청 일반회계)</p>
<p>○권역별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관광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05년 1,941→ '13년 4,283억원) 체계적 평가시스템 및 데이터 축적 부재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움 	<p>○2014년부터 국가관광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획평가센터 운영으로 사업계획 및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집중 컨설팅</p>
<p>○관광레저도시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여건 미성숙 등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 및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근본적 민간투자유치 방안 필요 	<p>○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규제 완화 등 적극지원 필요</p>

미흡·부진 과제 및 사유	개선·조치계획
<p>○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지원 생활체육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없던 것을 개선하여 생활체육시설의 리모델링 등 개보수 지원으로 확대 필요 	<p>○현재 20년 이상 전문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하던 것을 10년 이상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까지 한시적 지원규정 폐지(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10년 이상 노후체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개·보수 수요 파악 및 지원 계획 수립
<p>○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산업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율 제고 필요 - 연구개발사업의 논문 등록과 특허 출원 및 등록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 및 사업화는 증가는 정체 	<p>○스포츠 R&D 지원사업의 성과 진단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성과 조사·분석 실시('14.3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분석('07~'12년 지원, 74개 과제, 220여개 기관)업무 시행으로 스포츠 R&D 성과 관리체계 점검
<p>○장애인체육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13-'17)'를 통한 정책기반을 마련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미흡, 2014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 필요 	<p>○제2차 장애인체육 중장기계획('13-'17)을 기반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비전 및 전략체계 수립'</p>
<p>○보유매체 파급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간행물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필요 - 정책홍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디자인 등 지속 개선 - 정책포털 만족도 조사결과 시스템의 편의성 및 기능성은 대폭 개선되었으나, 콘텐츠의 다양성 및 쉽고 자세한 정보제공 요구 사항이 다소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p>○국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례중심의 콘텐츠 개발 강화</p> <p>○정책 콘텐츠 수요층에 맞춘 정기·수시 간행물 발간방식 다양화</p> <p>○위클리 공감 독자 및 정책 수요자에 맞춘 온라인 콘텐츠 강화</p> <p>○인포그래픽·웹툰 등 이해하기 쉬운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확산</p> <p>○정책브리핑 모바일 및 검색 서비스 개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키워드에 대한 키워드 메뉴바 및 테마검색 기능 추가 등 - 모바일 서비스 방문자 확대를 위해 연성 콘텐츠인'정책플러스' 메뉴 추가 등
<p>○한국정책방송원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률 제고를 위해 정책현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및 지속적인 채널 마케팅 추진 필요 	<p>○채널인지도 제고 및 시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채널 마케팅 추진</p>